■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673-813.
http://doi.org/10.17948/kcs.2022..94.673

【해외 학자 투고 논문】

명청 시기 공자의 이력도지(履歷圖誌)와 한국 문헌
—하버드 연경도서관 장서를 중심으로—

毛文芳*

목 차

1. 明清시기 孔子의 履歷圖誌
2. 한국의 孔子 이력 문헌
3. 孔子의 聖蹟圖
4. 韓國 孔子 履歷圖誌의 特色
5. 儒家의 知識型態에 대한 해석

국문초록

동아시아 각국에도 孔子의 聖蹟圖가 존재한다. 본문은 하버드 연경도서관 선본실이 소장하고 있는 明清 및 朝鮮時代의 孔子에 대한 履歷文獻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全文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첫 번째 부분은 明清時期에 나타난 孔子履歷圖誌가 형성한 儒家의 서술적인 圖畫와 聖蹟에 대한 규범 등 두 가지 계통을 탐구하며, 孔廟와 연결하여 孔子形象에 신성성을 부여한 문장들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편년체로 쓴 기록, 闕里誌와 聖蹟圖 등으로부터 14種에 달하는 朝鮮時代 孔子履歷文獻에 대해 논하며, 「闕里誌」를 핵심으로 정통성을 계승한 것과 聖像에 대해 관심을 둔 것, 朱子를 공자의 반열에 둔 것 등의 특색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本文은 中, 韓 양국

* 대만 국립중정대학 중문과 교수.

이 孔子 履歷文獻에 대한 정리를 통해, 동아시아 한문화권은 「聖蹟」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통으로 구축한 圖像을 관찰하며 더 깊게 들어가 中韓兩國은 규범을 어떻게 형성하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경전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비교하였다. 필자는 그들의 분석과 해석은 聖人과 經典의 구조로 이루어진 「儒家의 知識型態」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간주해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이 視覺化 수단을 통해 유가의 지식 양식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연구하여 近世文化의 변화라는 명제에 답하고자 했다.

주제어: 명청, 이력도지, 공자, 성적도, 조선시대, 하버드 연경도서관.

1. 明淸시기 孔子의 履歷圖誌

1) 문인의 履歷圖誌

필자는 장시간 명청 시대 초상화책자의 다양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명대 중엽 문인 관료들은 적지 않은 履歷圖를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실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한 예로 명대 邊貢(1476-1532)은 「雲衢履歷圖後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雲衢履歷圖者, 掌太常寺禮部尚書正菴崔公之所自爲也。(…) 幸通仕籍,事四朝, 今且老矣。每念吾身所以生之、成之、食之者, 恐其耄而遂忘之也。爰自童子以至于今衰,其事之可紀者二十四條, 圖且名之, 而疏其事於下。其圖屬乎親者六 ; 屬乎師者一 ; 屬乎君者十有七, 他不與焉。吾將朝於斯, 夕於斯。觀乎吾親,則不忘身之生 ; 觀乎吾師, 則不忘身之成 ; 觀乎吾君, 則不忘食之所自。 又將教吾之宗人與吾之爲弟子者 : 孝以事其親 ; 忠以事其君 ; 全恩義以事其師也。[1]

우리는 서문을 통해 崔正菴이 직접 履歷圖誌를 만들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기 위함이라는 창작동기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스승, 임금의 이력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밖에 개인의 회고와 후세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24가지 기사를

1) 邊貢, 『華泉集』, 卷9, 「文集 · 雲衢履歷後序」, 『文淵閣四庫全書』에서 인용, 第1264冊, 8a-9a.

정선하였으며 이를 빌어 부모에 대한 효, 임금에 대한 충성 및 스승에 대한 은혜 등 초상화 본인의 삼륜 모범을 거론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劉春(?, 弟劉台1465-1554)의 「都憲王公履歷圖序」이다. 그는 서에서 : 「 雲陽都憲王公庭簡은 화공에 명하여 아이 때부터 약관에 이르기까지 갑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른 일 등, 모든 겪은 일을 그림으로 그리하고 하였고 그것을 履歷圖라고 하였다. 후세에 남겨 나를 보여주고자 한다. (雲陽都憲王公庭簡命工自成童、至弱冠, 以及登甲科、躋膴仕, 皆各繪其所歷之儀刑, 名曰 : 履歷圖, 以貽諸後人, 間以示予。)」라고 말했다.[2] 그는 화공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인생의 한 과정을 그리도록 부탁했다.

그 밖에 丘濬(1421-1495)의 「宦途履歷圖詩」는 경사스러운 일들을 11圖로 제작했으며 모두가 관직에 종사하는 동안의 이력을 묘사했다. 또한 지역의 유세가가 그를 칭송하는 시를 첨가했다.[3] 王世貞(1526-1590)의 「少保雨川葛翁行歷圖像序」는 葛翁의 「行歷圖」 몇 권에 대해 언급했으며, 葛孫을 빌어 각기 다른 책자 속에서 보이는 초상화 속 인물의 모습 11장을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했다. 평생의 이력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그림으로 배열했다. 왕세정은 그림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붙였다. 그림에는 초상화 속 인물의 유년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습을 그려넣었다. 그림에서 초상화 인물의 머리색이 변하는 과정이 보였고 또한 의복과 허리띠의 재질과 형태가 변한 모습도 보였다. 초상화 인물의 내면의 기질을 드러내려고 힘쓴 그림이라 할 수 있다. [4] 馬雅貞의 연구에 의하면 명대에 이런 종류의 그림에 대해 통일된 명칭이 없었으며, 「履歷圖」, 「宦途履歷圖」, 「巡歷圖」, 「行歷圖」, 「宦蹟圖」 등으로 명명되었다. 그림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개인의 주요한 행적을 그려 넣었다. 혹은 초상화 인물의 중요한 행적을 양으로 나타내는 수를 제목에 삽입하기도 했다. 예로 들면 「詠徐大夫素履十二圖」, 「江陵劉侍御四美冊」 등이다. 시간의 선후에 따라 임직동안 발생한 사건을 그려 넣었다. [5]「履歷圖」는 오래된 이름이며 대체

2) 劉春, 「都憲王公履歷圖序」, 『東川劉文簡公集』(據北京圖書館藏明嘉靖33年(1554)劉起宗刻本影印), 『續修四庫全書』(集部第1332 冊)에 수록, 卷7, 2a-3a.
3) 丘濬, 『重編瓊臺藁』(『文淵閣四庫全書』)卷10, 「集部・宦途履歷圖詩」, 31a-33a.
4) 王世貞, 『弇州四部稿』(『文淵閣四庫全書』)卷69, 「文部・少保雨川葛翁行歷圖像序」, 8a-10b.

로 관원의 업적 혹은 인생의 행적을 중심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청대 道光年間에 『鴻雪因緣圖記』라는 대형 그림 책자가 있었다. 이 책자는 수리 관원인 麟慶의 풍채, 수학과 졸업, 승진과 좌천, 여행 등을 수시로 기록한 그림 책자이며, 潘世恩이 「鴻雪因緣圖記序」에서 「아마도 일생의 경력을 본인이 저술한 작품(蓋自述一生游歷之作也。)」이라고 말했다. 그림 책자는 延年玩丹, 環翠呈詩, 智信宣防, 荊營驗馬, 京兆報捷, 午門釋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 한 장에 사건 하나를 기록했다. 모두 240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6) 다시 명대로 돌아가,『安南來威圖冊』은 福建建寧縣知縣 江一桂가 嘉靖19年(1540)前後에 撫安南 莫登庸가 왕의 자리를 빼앗은 사태를 평정하고 항복을 받아낸 공적을 중심으로 圖冊이며, 江一桂의 사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건녕, 봉양, 태평 등지에서의 공적을 기록했다.[圖1]7) 이 그림 책자는 사건을 시기로 나누어 기록했다. 내용은 單騎奉辭, 言重詛盟, 因壘歌凱, 定平報成, 開壁受降, 太平飮至, 築輝銅柱, 典納方物, 撫綏歸疆 等 24個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의 행적이나 공적을 담고 있다. 명 청 시기에 나온 이 두 권의 그림 책자는 주인공인 麟慶과 江一桂 두 사람의 관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력을 기록하였으며, 초상화 인물의 탄생과 죽음 및 장소 기록, 사건 기록, 행적 기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역사서, 전기 또는 잡기에 속하며, 전기 색채와 기행문 성격을 함유하고 있다. 이력도지의 서술 형식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림과 문장이 동시에 보이는 격식으로 이루어진 책자를 「履歷圖誌」라고 칭하며, 그림(圖)과 기록(誌)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圖는 초상화 인물의 행적과 공적을 그린 그림이며, 誌는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문자 내용이다. 그 기록은 예찬, 제목, 시송, 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

5) 馬雅貞, 「전훈과 관적: 명대 전쟁과 관계된 그림과 관원의 시각문화」, 『明代研究』第17期, 2011, 61-62면.

6) 본인의 논문 「生命圖史와 文本複調 : 晚清 『鴻雪因緣圖記』初探」를 참고, 吳盛青編, 『旅行의 圖像과 문장 : 現代 華語의 환경 속에서 매개 간의 연계』, 上海 : 復旦大學出版社, 2016에 수록, 3-30면.

7) 「明代 『安南來威圖冊』과 관계된 문제」, 『文獻과 進路 : 越南漢學工作坊』, 2016年5月28日, 臺灣 : 嘉義,中正大學中文系、臺灣中文學會合辦에 발표.

관료의 행적을 담은, 현존하는 책자는 명대의『徐顯卿宦蹟圖』를 들 수 있는데, 楊麗麗는 본책자는 기사성이 농후한, 초상화를 실은 책자임을 증명했다. 관적, 성묘, 제사, 유락, 질환 등 관직에 몸 담았던 시기를 중심으로 행적을 기록했다고 했다.[8]〔圖2〕 본 책자는 萬曆시기의 文官인 徐顯卿(1537-1602)이 한림에 임직할 때의 事跡을 기록했다. 모두 30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존하는 청대의『卞永譽畫像』는 24폭의 정장본으로 卞永譽 반평생의 관료 행적을 기록했다.

개인의 관료경력으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목적은 초상화 인물의 행적 기록에 있는 것으로서 釋大汕(1637-1705)의『行跡圖』는 또 다른 형식의 책자라 할 수 있다.『離六堂集』권두에 수록되어 있으며 34폭의 자화상으로 개인의 행적을 기록했으며 인생의 여러 측면을 대규모로 묘사했다. 그림은 모두 34폭이다.〔圖3〕

行腳、負薪、遣魔、讀書、供母、默契、遇異、演洛、觀象、說法、吟哦、遨遊、訪道、作畫吹簫、賣卜、釣魚、夢游、雅集、看雲、秣馬、賣雨、浣花、法起、臥病、出嶺、領眾、酌古、註書、抱琴、論道、製器、北行、長嘯。

그림들은 康熙17-26年(1678-1687)間에 제작된 것이며 자신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상황을 설정한 후 자신의 인생행적을 묘사했다. 그림 한 장에 제목 하나씩 붙였으며 大汕이 강남 문인과 영남 승에게서 제목을 구했다. 大汕은 그림으로 자신의 행적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젊었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유교와 불교가 융합하며 성현과 속인이 서로 일체가 되는 인생도를 자신을 위해 제작했다. 승 大汕의『行跡圖』는 종교성이 강한「成道圖」에 그 기원을 둘 수 있다. 원대 도사 吳全節은 그림이 20여 부분으로 나누어진 긴 족자를 만들어 갖고 있었다. 도를 이루는 여정을 묘사했다. 불교의『法華經 . 普門品』에서 보이는 觀世音菩薩이 서른 두 번 현신한 정신을 모방하여 34폭

8) 楊麗麗,「明代 한 翰林官員의 履歷 : 徐顯卿의「宦跡圖」圖像에 대한 분석」를 참고,『故宮博物院院刊』2005:4, 42-66쪽. 현재는 단지 26쪽만 남아 있다. 絹本,設色,폭62*58.5cm.

으로 자신의 행적을 기록했다.[9]大汕은 일개 승려에 불과하지만 그의『行跡圖』는 도가와 불교가 도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전통방식에서 비롯되었으며 합리적인 형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의하면「履歷圖」는 관료의 행적을 기록한 그림 책자이며, 초상화 속 인물이 자발적으로 혹은 삼자에 의해서 제작되었다. 내용은 주인공의 관직 생활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으로 관직에 들기 전 수학 시기부터 퇴직 후 귀농 생활까지 포함하고 있다. 圖 와 誌를 포함하고 있는「履歷圖誌」는 화가가 초상화 인물의 관료 행적을 그림으로 그렸고, 문인이 그림에 어울리는 내용을 문자로 기록했다. 기록 방식은 예찬, 제기, 시송, 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 조선시대에도 병풍으로 제작한 문인의「平生圖」있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다. 과거에 하버드 연경도서관 선본실에 수장되어 있는 진본을 직접 본적도 있다. 조선시대 문인 韓弼教가 제작한『宿踐諸衙圖』(TK 3490.88 4331),[10]는 한필교가 임직했던 濟用監, 戶曹, 宗廟署, 永柔縣, 載寧郡, 宣惠廳, 宗親府, 工曹(…)等 각지의 관아 그림을 담고 있어서, [圖4]는 한국의 대표적인 履歷圖誌인 것이다.[11]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면 근대 동아시아 문인들은 개인의 행적을 기록하고자 했던 공감대를 엿볼 수 있다.

2) 공자의 이력

명대 중엽에 성행했던 이력도지는 초상화 속 인물은 모두 문인이거나 관료였다. 성도나 보살 현신도에서 기원을 찾는 禪僧 大汕의『行跡圖』와는 성격이 같지는 않지만 유가만이 갖고 있는 계통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다. 필자는 과학기술부와 풀브라이트기금화의 찬조를 받아 하버드 대학에 방문하

9) 필자의 논문「顧盼自雄 . 仰面長嘯 : 淸初 승大汕(1637-1705)『行跡圖』및 그림에 쓴 글에 대한 연구」,『淸華學報』第40卷第4期, 2010年12月, 789-850면.

10) 이하는 하버드 연경도서관 선본실에서 본 것이다. 모두 괄호로 관장 색인 번호를 표시했다.

11) 수년 전에 필자는 韓國高麗大學 鄭雨峰 教授가 준『宿踐諸衙圖』서책을 보았다. 이는 필자가 한국 한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헌이다. 필자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할 때 연경도서관에서 이 책을 다시 보게 되었다. 옛 친구를 본 것 같았으며 이에 鄭教授님에게 감사드린다.

여 일년 간 연구했다. (2018.08.01-2019.07.31)연구기간 동안 하버드 연경도서관에서 다수의 책을 열람할 수 있었다. 하버드 연경도서관은 歐美지역 학자들이 중국전통문화를 연구하는 중심지이다. 중, 한, 일, 월남 등 국가의 출판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영어로 작성된 동남아와 관련된 논문들도 대거 소장하고 있다. 전문서적으로는 100여만 책자, 소장한 선본은 11300부가 있으며, 중국 선본 3800부, 한국 선본 3800부, 일본 선본 3700부를 포함하고 있다. 12) 필자는 방문 기간에 중국어 책자를 관장하는 마소진 주임 덕분에 연경도서관 선본 도서 목록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沈津이 主編한『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中文善本書志』(6冊, 桂林 :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尹忠男, 金成煥이 編著한『哈佛 燕京圖書館 韓國貴重本 解題』(5冊, 首爾 : 景仁文化社, 2004), 岡雅彦, 青木利行이 編集한『ハーバード燕京図書館和書目録』(2冊, 東京 : ゆまに書房, 1994), 鈴木淳、マクヴェイ山田久仁子가 編著한『ハーバード燕京図書館の日本古典籍』(1冊, 東京 : 八木書店, 2008) 등이다. 또한 楊麗瑄과 王繫 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여러 희귀 도문서를 보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참고할 만한 귀한 선본을 접하게 되었다. 필자의 흥미를 끌었다.

우선 필자는 角田九華가 쓴『孔子履歷考』(TJ 1075 2644), 2卷, 2冊)을 찾았다. 이 책은, 嘉永2年(1849)에 浪華書林松根堂이 간행한 책이다. [圖5] 권두에는 文化11年(1814,嘉慶十九年)角田의 自序가 있다. 이것은 후에 인쇄된 것임이 틀림없다. 그전에는 江戶岡田屋嘉七, 京都出雲寺文次郎, 大阪加賀屋善藏等 인쇄본이 있었다. 이 책은 공자의 일생을 고증한 책이며 책명도 직접「孔子履歷」이라고 붙였다. 사실상 이 책보다 약 400년 정도 이른 시기에 문관 張楷가 명 영종 정통 9년(1444)에 쓴「聖蹟圖序」에서「夫子履歷」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분명히「履歷」이라는 이 어휘로 공자의 행위에 대해 간행물을 편찬한 것은 적어도 15세기 중엽 이전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발견은 필자로 하여금 공자의 이력도지와 관계된 간행물에 대해 더욱 연구하게 했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단지

12) 沈津이 主編한『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中文善本書志』(6冊), 桂林 :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에서 발췌하였다.「序」, 5면.

시간의 제한을 받아 본 논문은 독서 필기본에 불과하며, 문헌에 대한 초고에 불과하다. 이에 전문가들의 가르침을 바란다.

3) 孔子의 행적에 관한 편찬과 간행

명 청시기에 공자의 사적에 대한 편찬과 간행은 많이 이루어졌다. 공자통기(孔子通紀), 공자가어(孔子家語), 궐리지(闕里志), 성적도(聖蹟圖) 等이 그 예이다. 본 논문은 하버드 연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자 이력도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선본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沈津教授가 쓴 『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中文善本書志』에서 인용했다.[13] 이하에서 보이는 소제목들은 沈津이 쓴 『書志』의 내용에서 발췌하였다.

(1) 聖門通考

『聖門通考』(T 2261.1 2149)는 모두 12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年譜는 2卷으로 이루어졌다. 모두 六冊이다. 명 包大爟가 쓴 책이다. 萬曆十五年(1587)에 書林淸心堂이 각본(刻本)했다. 『聖門通考』에는 「四明後學 包大爟이 編輯, 종질 包垕이 校正。」이라는 글이 써 있다. 그전에 萬曆八年(1580)에 馮時雨의 序가 있었고, 萬曆五年(1577)에는 包大爟가 序를 달았다. 마지막으로 萬曆九年(1581)에 包垕가 跋을 달았다. 『引』13則, 『凡例』11則(뒷부분은 반 쪽이 잘려나가 있다)이 있으며, 「書林淸心堂梓」라고 새긴 도장이 찍혀 있다. 馮時雨의 序는 다음과 같다.

> 少東包先生, 以比部郎出倅山以東, 憑軾鄒魯, 歷覽洙泗, 覩闕里之遺書, 慨真詮之未即, 嘗一考之而未就。嗣官留曹, 益用肆力, 旁稽遂采, 釐贋訂訛, 閱二十年而書始成, 名曰聖門通考。

13) 明淸시기 孔子의 履歷圖誌에 대한 여러 고찰은 註12에서 가져왔다. 본 논문의 이하에서 보이는 제목은 『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中文善本書志』에서 발췌했다. 괄호로 책 순서, 부 순서, 페이지 순서를 표시했으며, 따로 주를 달지 않는다.

包燿의 序는 다음과 같다.

燿以比部出倅東魯, 思聖賢之鄉, 志獨缺焉。嘗一纂之, 而多脫誤, 既署留曹, 乃博觀家語, 春秋內外傳, 世本, 戰國策, 大小戴記, 韓詩, 說苑, 新序, 僉載等書, 參考皇極經世, 綱目, 外紀, 大事紀及通鑑前編, 折衷經典, 考訂歲月暨群弟子姓行, 表年於上, 敘事於下, 正以論孟春秋, 附先賢論贊, 凡若干卷, 名曰聖門通考。

包垕의 跋은 다음과 같다.

聖門通考十二卷, 余從叔比部少東公所編輯者也。(…)於是綴學素文, 編年考記, 起靈王, 訖戰國, 上下三百餘年。宗孔子, 述群賢, 暨鄒孟諸弟子, 訛者斷其義, 佚者表其微。其事核, 其辭略, 羽翼聖真, 闡揚儒術, 洋洋鄒魯之遺聲, 蓋其詳哉 !

이 책은 聖門弟子들의 성문제자의 문하생들을 기록하고 있다. 목적은 도의 맥락을 밝히고, 성문의 은혜를 넓히고 이에 성현의 근본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卷一은 연보에 대한 고찰(年譜考)이며, 卷二은 공자가계에 대한 고찰(聖系考), 卷三은 공자의 행적에 대한 고찰(聖蹟考), 卷四는 안연의 가계에 대한 고찰(顔系考), 卷五는 안연에 대한 고찰(顔子考), 卷六은 증자의 가계에 대한(曾系考),卷七은 증자에 대한 고찰(曾子考), 卷八은 자사에 대한 고찰(子思子考), 卷九은 맹자의 가계에 대한 고찰(孟系考), 卷十은 맹자에 대한 고찰(孟子考), 卷十一은 십 인의 철인에 대한 고찰(十哲考), 卷十二는 제자들에 대한 고찰(弟子考)이다. 그의 공자의 성스러운 행적(孔子聖蹟)에 대해서는 위로는 년도를 표시하고 아래에는 사건을 서술했으며 전후순서로 기록했다. 경전을 절충하였고, 중론을 모아 시간을 고증했으며 그릇된 부분을 바르게 잡았다. 공자가 십 세이전의 일에 대한 의론은 모두 후에 생겨났으니 본 서는 상세히 기록하여 덧붙였다. (沈津의 『書志』,第2冊,史部,페이지459-460)본 서는 6책 12권으로 이루어진 두터운 서적이며, 「考」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아, 앞에서 인용한 日本 江戶時期에 角田九華가 쓴 『孔子履歷考』와 취지가 상통하는 것 같다.

(2) 闕里志

궐리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춘추 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장소라고 한다. 洙와 泗의 중간에 있다. 공자 시기에는 궐리라는 이름이 없었다. 이름은 『漢書』 卷六七 梅福傳에서 보이며, 후한에 이르러 공자의 고향을 궐리라고 불렀다. 연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明 때에 간행한 『闕里志』(T 1786 7582.12)는 처음에는明 陳鎬가 쓴 十三卷이며, 明 正德元年(1506)에 증보 간행했다. [圖6]『四庫全書總目』는 : 「闕里는 사료의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다. 단지 『孔庭纂要』, 『祖庭廣記』만 있었다. 弘治十七年 甲子(1504)해에, 闕里를 재건하여 孔廟로 만들었다. 李東陽이 명을 받들어 제사를 지냈다. 그때 鎬가 提學副使였으며, 순서로 배열하여 志를 완성했다. (闕里向無志乘, 僅有『孔庭纂要』、『祖庭廣記』諸書。弘治十七年甲子(1504), 重修闕里孔廟成, 李東陽承命致祭。時鎬為提學副使, 因屬之編次成志。)」라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志는 李東陽이 제창했으며, 또한 친히 범례를 정한 것이다. 陳鎬 等이 후에 十三卷으로 증보하여 만들었다. 李東陽(1447-1516)은 字가 賓之이며 號는 西涯이다. 謚는 文正이다. 明朝中葉 때 重臣이며, 文學家 및 서예가이며 茶陵詩派의 핵심인물이었다. 天順甲申 때 進士였으며 正德初에는 관직은 禮部尚書, 文淵閣 大學士에 까지 이르렀으며 內閣首輔를 지냈다. 文壇의 領袖였다. 陳鎬(?-1511)는 會稽 사람이며,成化丁未 때 進士가 되었다. 여러 직책을 임했으며 관직은 右副都御史, 山東提學副使, 湖廣巡撫을 역임했다. 李東陽은 曲阜期間에 巡撫都御史 等의 官員들과 공동으로 『闕里志』를 편찬할 것을 협의했으며, 공묘를 수리하는 거사를 이 책에 수록하기 위함이었다. 提學副使인 陳鎬는 衍聖公孔聞韶가 提供한 大量의 文獻資料를 열람했다. 弘治十八年(1505)에 이르러 편찬은 완성되었고 각본하여 인쇄하였다. 李東陽이 직접 序를 지어 『闕里志』를 편찬한 동기를 밝혔다. 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闕里孔廟成, 東陽奉勅代告, 周覽遐慕, 欲爲一書。巡撫都御史徐公源及衍聖公聞韶, 力贊其議。比歸, 至德州, 巡按御史陸君偁、盧君翊及布政使曹君元等, 合書以請。適聞提學副使陳君鎬, 有事於此, 因舉以屬之。取所定凡例, 稍加潤飾, 且以『孔氏實錄』、『孔庭纂要』、『素王事記世家』補鈔本致之, 以備采擇。陳君乃參閱孔氏所藏『祖庭廣記』, 與凡遺碑斷刻, 諸書所載, 踰年而後成。其法以闕里爲主, 附顏、孟諸弟子之名氏、事行而體統,

尊摹先聖肖貌及地形廟製而圖像, 著述、世家、宗派特爲世表而譜系明, 敘禮樂制度之沿革損益而典式具。若詔誥勅祝之頒布, 章牘、箋表、文移之出納往復, 罔不備載, 而闕疑訂舛, 芟繁剔僞, 惟其所當。凡爲卷十有三, 爲目四十有四, 爲文累若千萬言。

이동양의 서는 본 책이 인용한 문헌과 문물 및 비문 등을 언급하였고, 편찬 체제도 언급하였다. 또한 공자가 평생동안 해온 활동 및 공묘의 제도, 역대 황제가 내린 책봉, 공자 제사와 예악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다. 권첩이 방대하여 완전한 공자 가계사라고 칭할 만하다.

『闕里志』의 판본은 적지 않다. 초판은 위에서 말한 책이다. 明 陳鎬가 쓴 것이며, 모두 十三卷이다. 正德元年(1506)에 판본에 새겨 인쇄되었다. 두 번째는 明 孔弘幹이 쓴 후속작이며, 모두 十五卷이다. 嘉靖三十一年(1552)에 孔承業이 판본을 새겨 인쇄하였다. 세 번째는 明 孔弘幹이 쓴 후속작이다. 모두八卷이며 首一卷, 嘉靖四十三年(1564)에 판본에 새기고 隆慶三年(1569)에 증본이 나왔다. 네 번째는 明 孔貞叢이 편찬한 것이다. 모두 十二卷이며 萬曆三十七年(1609)에 판본에 새기고 인쇄하였다. 다섯 번째는 明 孔胤植이 崇禎 때 보충 수정한 것이며 모두 二十四卷本이다. 孔胤植은 字가 懋甲이며 孔子의 제 65대 손이다. 天啟二年(1622)五月에 衍聖公으로 책봉되었다. 筆者가 본 하버드 연경도서관 선본은 바로 이 책이었다. (T 1786 7582.12)淸나라 孔繼汾이 편집한 『闕里文獻考』卷31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明 弘治년간에 學使 陳鎬는 성현을 추종하는 역대 저서 및 사묘의 고적 및 공자의 행적과 남겨진 글을 모아 기록하여 『闕里志』十三卷을 완성했다. 長沙 李東陽이 凡例를 만들었다. 그후 공자의 자손들도 여러 차례 속간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책에 내용을 더해 二十四卷으로 늘어났으며 이것을 闕里舊志라고 했다. (明弘治間, 學使陳鎬纂述歷代追崇聖賢之典及林廟古蹟, 與夫舊事遺文, 成『闕里志』十三卷,長沙李東陽爲作凡例。其後孔氏子孫, 屢有續輯, 皆因是成書而附益之, 增至二十四卷, 是所謂闕里舊志者也。)」이 책에 실려 있는 孔胤植의 跋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闕里舊志를 펼쳐 보고나서 새로운 것을 더하고 보충하지 않은 것을 보충했다. (余因繙闕里舊志, 附以新典, 補其未補。)」 24권 본은 弘治乙丑(1505)에 나온 李東

陽의 「闕里誌序」, 楊士聰의 「重修闕里誌序」, 孔胤植의 「闕里誌後序」 等을 담고 있다. 24卷의 목차는 대단히 복잡하며 圖像志, 禮樂志, 世家志, 事蹟志, 史記世家, 祀典志, 宗子世紀, 授官恩澤, 人物志, 甲科鄕科歲貢, 林廟志, 山川志, 古蹟志, 恩典志, 弟子志, 歷代誥勅, 明朝諸勅, 撰述志, 明朝碑記, 藝文誌(…)等으로 나누어져 있다. 淸나라 康熙年間에는 宋際, 宋慶長이 『闕里廣志』二十卷을 편찬하였고 淸 康熙十三年(1674)에 판본에 새기고 인쇄했다. 또한 공자의 후예 孔尙任은 자료들을 넓게 수집하여 『闕里新志』를 편찬했으나 애석하게도 널리 유전되지 않았다.[14]

(3) 孔子家語

공자의 글이나 행적에 관한 기록으로는 「孔子家語」가 있다. 연경도서관에는 두 가지 명대 간행본이 있다. 첫 번째는 『孔子家語』(T 1075/2215)이며 明나라 何孟春이 注를 달았다. 永明書院에서 판본에 새기고 인쇄했으며 모두 八卷, 4冊이다. 正德2年(1507)에 何孟春이 序를 달았고, 正德16年(1521)에 林俊이 제목을 달았다. 같은 해에 黃鞏이 跋를 지었다. 何孟春은 嘉靖年間에 大禮議 사건 때 상소하여 싸움을 말렸던 중요 인물이며 후에 책봉을 받아 전임했지만 병을 이유로 귀향하였고 곧 죽었다. 본 책은 선진 양한 책들을 수집 참고하고 공자의 문장이나 행적 등을 종합하여 책으로 만들었다. 또한 책 중에 고대 혼인 상례 제도와 관계된 내용과 鄭玄의 주장과 다른 점을 들어 공격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王肅의 僞作이라고 여겼다. 고서적과 관계된 부분이 담겨있어 고증 자료의 가치를 갖고 있다. 王肅는 三國시기 魏나라 사람이며, 賈逵, 馬融의 학문에 능했다. 양한 경학은 정현이 今古文을 종합하여 집대성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王肅는 정현과 다투었고, 『聖證論』을 지어 정현을 공격했다. 何孟春은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14) 『闕里志』 編纂의 기원과 각종 간행본에 대한 정보는 주로 註12에서 가져왔다. 沈津, 『書志』, 第2冊, 史部, 690-691면. 또한 楊秀娟, 「『闕里志』 : 공자의 가족사」, 『曲阜師範大學校報』第30期(總第892期, 2013年11月).

春謹即他書有明著家語云云, 而今本缺略者以補綴之。今本不少概見, 則不知舊本爲在何篇, 而不敢以入焉, 分四十四篇爲八卷, 他書所記事同語異者箋其下, 而一二愚得附焉, 其不敢以入焉者, 仍別錄之, 並春秋、戰國、秦漢間文字, 載有孔子語者, 錄爲家語外集, 存之私塾, 以竢博雅君子或得肅舊本而是正焉, 是豈獨春之幸哉?

본 책은 元, 亨, 利, 貞 등 四集으로 나누어져 있다. 겉면에는 「宋 王肅가 注를 달고,明 太子太傅의 직을 습봉한, 衍聖公인 孔胤植(天啟二年1622年襲封)이 교정하였고, 何孟春이 注를 보충하였으며, 孔尚達이 대조 정정하였다. (宋王肅纂注, 明太子太傅襲封衍聖公孔胤植(天啟二年1622年襲封)編正, 何孟春補注, 孔尚達參訂)」라는 題를 붙였다. 공자의 생애와 행적을 겨냥해서 만든 기록과 고증의 책이다. (沈津의 『書志』, 第3冊, 子部, 865-866면.)

두 번째는 『孔聖家語圖』(T 1075 2340)이다. 明나라 때 吳嘉謨가 편찬한 것이며, 萬曆 17年(1589)에 자신이 판본에 새겨 인쇄했다. 모두 11卷, 六冊이다. 卷二에는 「武林後學 吳嘉謨 集校」라는 題가 붙어있다. 그전에 王鏊의 序 및 「凡例」 九則이 있었다. 본 책을 「家語圖」라고 말하는 이유는 『家語』의 책명을 따왔고 그림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卷一은 공자의 초상화를 담았다. 나머지 그림은 모두 40폭이 된다.[圖7] 卷2부터는 『家語』의 본문이다. 「凡例」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先聖歷年事蹟, 雜見傳記諸書者, 多牽合附會, 莫可據信。惟『家語』、『史記』及『孔氏世譜』載先聖歷年事蹟頗詳, 今謹據其說, 續以聖蹟圖彙成四十篇, 而以意按之於後, 以便考古者稽焉。

王重民은 國家圖書館藏本에는 본래 嘉謨의 自序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림은 궐리가 전하는 『聖蹟圖』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본 책은 萬曆17年의 自序, 王世貞의 序, 楊士經의 跋을 유실했다. 판본에 새긴 사람은 黃祖信이다. 聖像(공자의 초상)에 「新都사람 程 起龍伯陽甫가 몸을 단정히 하고 기록하고 歙縣 사람 黃祖가 판에 새겼다. (新都程起龍伯陽甫薰沐寫, 歙人黃祖鐫。)」라는 題을 넣었다. 起龍은 『女範編』을 그린 사람이다. 연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복사본에는 「岡田真의 藏書」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沈津의 書志, 第3冊, 子部, 866면)

역사적으로 공자의 행적을 선양하는 책은 많았다. 『論語』는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최초의 책이다. 그 후 한 대에 사마천이 『史記』를 지으면서 공자를 「世家」에 귀속시켰다. 宋, 明이래로 공자의 聖蹟을 집대성한 책들이 날로 많아졌으며 모두가 문과 그림으로 공자를 예찬했다. 글을 위주로 한 것이 『孔子家語』이며 그림을 위주로 한 것이 『聖蹟圖』이다.

⑷ 聖蹟圖

鄭振鐸의 考察에 의하면 孔子의 초상은 漢代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혹은 돌에 새기거나, 벽에 그리기도 했으며, 면포에 수를 놓거나 또는 나무에 조각을 했다는 것이다. 西漢 景帝 때에는 蜀郡太守 文翁은 서당을 증수하면서 석실을 만들었고 거기에 공자의 좌상을 새겨 넣었다. 東漢 桓帝는 공자의 廟를 세워 벽에 공자의 초상을 그렸다. 東漢 때 靈帝는 京城建鴻都門學(학교)에서 화공 劉旦, 楊魯에게 명하여 공자와 칠십 두명의 제자를 그리게 했다. 이 사실들은 모두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山東 嘉祥武梁祠에는 「孔子가 老子와 만나다」라고 새긴 石刻있는데, 바로 최초로 세상에 전해진 공자의 초상이다. 魏晉이후 西晉 太康시기에 益州刺史를 지낸 張收는 益州 學館에 孔子와 七十二弟子를 그렸다. 東晉 때 戴逵, 南朝 때 陸探微, 張僧繇은 공자와 제자를 창작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梁元帝 蕭繹도 공자의 초상을 그렸고 또한 자신이 직접 쓴 「孔子贊詩」를 편찬하기도 했다. 唐代의 畫家인 閻立本, 吳道子, 周昉 ; 南唐의 董源, 衛賢, 王器翰 ; 宋代의 石恪, 高克明, 李公麟, 馬遠, 梁楷 ; 元代의 趙孟頫 및 明代의 吳偉, 吳彬 等은 공자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다. 孔子의 四十七代孫인 孔傳는 그의 저서『東家雜記』(南宋紹興四年, 1134)는 「현재 家廟에 소장된 초상화는 燕居服을 입고 있는, 顔子가 뒤를 따르는 그림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小影이라고 하며 聖像 중에서 가장 진짜 같다(今家廟所藏畫像, 衣燕居服、顔子從行者, 世謂之小影, 於聖像爲最真。)」라고 기록했다. 이 그림은 전하는 바에 의하면 晉나라 때 顧愷之가 그렸다고 한다. 蒙古의 간행본 『祖庭廣記』에도 공자의 초상화가 실려 있다. 近世에 전하는 것은 공자가 玉塵(신선이 먹는 음식)을 들

고 있는 것, 곡목으로 만든 차 탁자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 十哲이 시중드는 것, 두껑을 들고 옥반을 받들고 있는 것이 있다. 또한 唐 吳道子가 그린 것으로 72인 제자를 배경으로 활과 화살을 다루고 권축을 펼치는 그림들이다. 또한 마차를 타고 있고 十哲이 뒤를 따르는 그림이 있다. 이 작품들은 전해오지는 않지만 다행히 공자의 후손들이 여러 작품을 돌에 새겨 놓았다. 이 때문에 孔廟의 聖跡殿에 보존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顧愷之의 「孔子小影」, 吳道子의 「孔子司寇像」과 「行教像」 等이다. 명청 때부터 오늘까지 세상에 전해오는 종이나 견직에 그려진 공자의 초상화가 있는데 冕旒像, 宋高宗贊司寇像, 두 폭의 燕居像, 두 폭의 三聖圖, 觀欹器圖, 杏壇講學圖, 講學圖 等이 천이나 종이에 공자의 초상을 그려 놓은 그림들이다. 현재는 孔府와 山東省 博物館에 보존되어 있다.[15]

위에서 언급한 공자의 초상만 그린 그림과는 달리 「聖跡圖」는 후대 사람이 공자의 사적을 근거로 그린 그림을 고리로 꿰어 연결시킨 책자이며 자료는 『論語』와 『史記』에서 가져왔다. 세상에 전해오는 『聖蹟圖』는 명대의 판본이 많으며 채화, 목각, 석각 등 세 종료가 있다. 채화본의 출현이 가장 빠르며 당대에 이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해오는 작품은 없다. 현존하는 최초의 그림은 원대의 화가 王振鵬이 그린 그림책이다. 그림은 모두 10폭이며 과거에는 項元汴의 天籟閣에 소장되어 있었다. 후에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다. 淸나라 光緖三十四年(1908)에 鄧實이 복사본을 만들었으며 上海 神州國光社의 影印本이 존재한다.[16] 明代의 채색본은 대략 成化, 弘治(1465-1505)기간에 만들어졌다. 모두 36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자의 중요 행적을 골라서 편찬

15) 孔子의 초상에 대한 고찰은 鄭振鐸, 「「聖蹟圖」跋」을 참고했다. 『中國古代版畫叢刊』第一輯,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1988, 390-392면. 또한 參引『孔子聖跡圖』版本考略(一),(二)에서 인용했다. http://www.okxyz.com/gu/14/13913-4047-14.html、http://www.okxyz.com/gu/14/13914-4048-30.html(2021.10.21.); 歷代의 畫像石, 壁畫, 繪畫, 古籍, 年畫 等, 각기 다른 매개물들은 공자의 형상을 위주로 한 창작물이다. 董倩倩・范菲菲, 「성인의 형상 : 도서관이 관장하고 있는 문물에서 본 공자 형상의 변천」, 『鑑賞』108期, 2017.05, 44-51면.

16) 陳東은 상세히 王振鵬의 회화본을 고찰했는데 사실은 明代 萬曆前後의 假托이며 構圖, 序, 贊은 張楷의 『聖蹟圖』를 답습한 것이라고 했다. 陳東의 「張楷 聖跡圖의 몇 가지 문제」,『孔子研究』, 2019年 第2期, 83-93면.

했다. 글과 贊이 실려 있다. 문자 내용은『史記・孔子世家』에서 따왔다. 제목이나 인발(도장의 흔적)이 없다. 작자 및 제작 년도가 미상이며 빠진 부분이 많다. 山東曲阜 孔府에 현존하는 것은 아마도 잔본인 것 같다. 세상에 현존하는 최상의 채색본은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明 正德元年(1506)에 새긴 판본이며 현재 보존하고 있는 孔子의『聖蹟圖』중에서 종이 재질로 된 채색 영인본이다.[圖8][17]

비록 石刻이 있지만 세상에 유전되기에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목각본이 세상에 전해졌다. 최초의 목각본은『山東通志』의 기록에 근거하면 元大德年間에 孔子의 五十三代孫인 孔澤이 새긴『孔聖圖譜』三卷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유실되었다. 鄭振鐸은 북경 고서점에서 正統本인『聖蹟圖』를 구입했는데 가장 오래된 간행본이다. 여러 판본들의 시효라고 할 수 있다.[18] 후에 또 嘉靖刊本을 구입했는데 正統本을 復刻한 것이다. 萬曆 년간에 새긴『孔子家語』몇 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책 앞에 공자의 사적을 그린 삽화를 덧붙여 집어넣었고 내용은『聖蹟圖』와 비슷하다. 당시의 화가 또는 刻手가 창작한 것이며 그전에 있었던 각본을 복각한 것은 아니다.

鄭振鐸의 고증에 의하면 明 正統九年(1444)에 간행된『聖蹟圖』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각본이다. 권두에는 監察御史인 張楷의 序가 있다.

> 右『孔子世家』一通, 漢太史公司馬氏所述,宋朱文公晦庵所纂者也。 文公欲敘聖跡於『魯論』之首, 以『家語』諸書所載紛糅無統, 獨取信於『史記』。然其紀載該博, 中間頗有致疑者。若楚昭王使人聘孔子, 孔子將往陳、蔡,大夫發徒圍之, 而孔子絕糧。按是時陳、蔡臣服於楚。若楚王來聘孔子, 陳、蔡安敢圍之? 凡此之類,不能無惑,故皆刪之。特撮其切

17) 沈津의「『聖蹟圖』版本初探」을 참고했다.『孔子研究』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2003年第1期, 후에 沈津의『書韻悠悠一脈香』에 수록되었다.桂林 : 廣西師大出版社, 2006.

18) 永富青地教授는 日本 島津家久의『聖蹟圖』와 이 책의 원본은 弘治十年에 간행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한 家久本에 있는 無名氏의 跋을 근거로 추측하면 鄭振鐸의『中國古代版畫叢刊(一)』이 수록한 正統九年의 序 간행본은 弘治十年의 간행본이거나 본 책의 복간본이다. 筆者는 鄭振鐸이 수록한 圖版은 體例는 不純하며 또한 贊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贊이 없는 圖版에 何廷瑞이 더해 새긴 것이 틀림없다. 永富青地의「日本江戶時代에 聖蹟圖의 出版과 傳播」,본 논문은 沈乃文이 主編한『版本目錄學研究』第八輯(北京大學出版社,2018)에 수록되어 있다. 315-316면. 筆者는 東京大學 陳捷教授가 준 스캐닝본을 보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일깨워줬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要之事, 兼取語孟所載夫子履歷與諸弟子問答之語, 分註年下, 以便考證。至於書法之間, 則又詳加損益。如孔子在他國皆不書年若干, 惟他國反魯及在魯,則歷歷書之, 以見聖人不忘本國之意也。楷緝是圖, 每事則取『史記』所載,爲之序讚者, 以其詳而可考也。至於卷首總序, 則全錄文公所纂者,以其約而有斷也。噫,二先生于吾夫子過化之蹟所以盡心紀載者至矣。愚生小子,安敢妄擬於其間哉? 然念夙稟懵愚, 淑聖教於千載之下, 得以居廣居、遵正路, 不爲異端他岐之惑, 苟不知報, 豺獺弗若也。故敢忘其膚淺, 妄陳一得之愚, 固知螢爝補太陽, 誠不度德而量力。然精衛填海水, 亦誠懇之所不能已也。時正統甲子秋七月望日, 四明張楷式之盥手謹書于西臺公署。[19]

본 책은 세상에 유전되는 가장 오래된 『聖蹟圖』의 木刻本이며, 張楷는 朱熹가 편찬한 『史記・孔子世家』에 의거하고, 『論語』、『孟子』 등 자료를 넓게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張楷는 司馬遷과 朱熹의 취지에 관심을 가졌고, 모두 29가지 공자의 사적을 모아 그림으로 완성하였다. 또한 각 그림에 예찬하는 시를 첨가했다.

弘治十年丁巳(1497)에 衡州知府인 何廷瑞가 새로 새긴 『聖蹟圖』에 실린 跋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右聖蹟圖, 自禱尼山至漢高過魯儲祀, 通二十九事。蓋前都憲四明張公式之爲御史時, 取晦菴先生所纂『史記世家』及『家語』、『孔叢子』諸書所載夫子出處之大節而爲之也。寅長汝南何公廷瑞守衛時, 偶得刻本。公暇偕予輩玩其圖, 考其實, 誦其贊詞, 宛然如身生其時, 親履其地, 而聆乎木鐸之餘音也。猗與休哉! 但惜其傳之不廣, 且歷歲既久, 中間人物字畫不無磨滅。乃命畫工仿佛而一新之。其圖首序事及贊詞, 一仍其舊。又嘗推類考之他書, 有可紀而未及紀者九事, 相與覈實, 並增入之, 通爲一帙。方鋟梓而公捐館矣。(…)於是合同寅監邵長壽高君杲、貴谿徐君鳳、四明施君應麟、節推金華李君悌, 各出己俸, 助成公志, 將以廣其傳也。(…)新圖皆無贊詞, 不惟不能作, 而亦不敢作, 尚有以俟夫吾黨之善於形容聖人者。時弘治丁巳季春月朔日, 吉府重刊。

何廷瑞는 9가지 사적을 더해 38종의 그림으로 만들어 새로 각인했다. 새로 더한 것은 그림과 글을 더했지만 예찬시는 첨거하지 않았다. [20] 그후 嘉靖二

19) 鄭振鐸이 편찬한 『聖蹟圖』 참고. (正統九年刊本)卷前, 同註15, 頁374.

20) 何廷瑞의 弘治增刻本에 관해서 永富青地는 日本 島津家久의 『聖蹟圖』와 원본은 弘治十年의 간행본이라고 고증했다. 이상의 跋文은 永富青地의 「聖蹟圖在日本江戶時代的出版與傳播」에서 발췌했다. 註

十七年(1548)에 瀋藩 朱胤栘의 간행본이 나타났고 隆慶六年(1572)의 간행본 및 萬曆刻本, 藍印本, 崇禎刻本(…)等 파생본이 나타났다. 張楷가 제작한 『聖蹟圖』는 후세에 나타난 각종 판본의 모본이며 가장 넓게 유전되었다. (沈津『書志』,第2冊,史部,497쪽)각 판본은 수량, 품질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

하버드 연경도서관 선본실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大明萬曆孔聖夫子周遊列國全圖』(T 1786.2 1346)[圖9]는 一冊一卷으로 되어있으며, 萬曆년간에 판본에 새겨 인쇄되었다.半頁,서책 책장의 사주(四周)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선은 사주쌍변(四周雙邊)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흰색이고 경첩장(經摺裝) 형식이다. 版框의 높이는 28.8cm이며 넓이는 25cm이다. 앞 부분에는 朱熹가 요점을 간추려 기록한 『史記·孔子世家』 및 整飭沂州兵備道 前廣東道監察御史인 邵以仁의「聖殿圖說」가 있다. 끝에는 末有萬曆二十年(1592) 山東按察司副使 奉勅督理淸軍 驛傳 鹽法前吏兵工三科 左右給事中 巡視京營大倉 侍經筵官 張應登이라는 後序가 있다.

연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大明萬曆孔聖夫子周遊列國全圖』는 明代에 민간인이 만든 것이다. 構圖, 技法 등은 明代 萬曆에서 崇禎에 이르기까지 南京, 杭州等地의 서방(書坊)에서 인쇄한 희곡이나 소설의 정교함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萬曆十九年에 간행한 『聖蹟圖』과 관련된 서적을 살펴보면, 연경도서관은 청대의 墨拓本(TP1063)을 소장하고 있다. 「孔子行教畫贊」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며 모두 120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은 단지 23폭만 남아있다. 또한 37쪽에 달하는 崇禎本 『聖蹟圖』(T1786.2 1346b)도 소장하고 있으며[圖10], 金鑲玉裝으로 되어 있고,「謙齋藏書」, 「無畏菴」, 「江都薄氏鑒藏書畫記」라고 새긴 도장이 찍혀 있다. 또한 張楷修, 邵以仁이 내용을 보충한 『聖蹟圖』는 청 대의 간행본(T 1786.2 1346d)이 있으며 책에는 독자가 방점을 찍거나 주해를 단 흔적이 있다. 그리고 「江都薄氏鑒藏書畫記」, 「守拙廬藏書記」라고 새긴 도장이 찍혀 있다.圖11](沈津『書志』, 第2冊, 史部, 496-498면.)

이상은 공자의 행적에 대한 편찬과 간행물이다. 그림과 관계된 세 가지 간

18과 같다. 316면. 이와 관련된 토론은 註15를 참고, 『孔子聖跡圖』版本 고찰(一),(二) 및 아래 註 孟久麗의 書 194면에서 보인다.

행본이 있는데, 그 하나가『闕里志』이다. 책에 대해서 李東陽이 序에서 언급했다. 그는「성인의 초상과 그의 묘를 흠오하고 존중하여 그림책을 만들었다.(尊摹先聖肖貌及地形廟製而圖像)」라고 말했다. 卷一「圖像志」에는 崇祀像, 行教像, 司寇像, 凭几像, 乘輅像, 魯國圖, 聖廟圖, 闕里新城圖, 尼山圖, 防山圖, 孔林圖(…)等이 있다. [圖12]卷二「禮樂志」에는 位次圖, 禮器圖, 禮器說, 陳設圖, 樂器圖, 樂器說, 樂舞圖, 奏樂位次圖, 歌章(…)等이 있다.[圖13], 모두 그림과 문장이 병존한다. 明代 弘治本 이후 각종 판본의『闕里志』는 역대 공자의 초상을 답습했다. 또 하나는「孔子家語」,鄭振鐸의 고증을 거쳐,明 萬曆에 간행된『孔子家語』는 여러 판본을 갖고 있는데, 권두마다 당시의 화가, 각수들이 창작한, 공자의 사적에 대한 삽화가 실려 있다. 上海古籍出版社 影印본『孔聖家語圖·跋』에 의하면,본 책은 明 吳嘉謨가 萬曆十七年(1589)에 교정을 본 후 간행한 것이며, 모두 11卷이다. 뒤에 보이는 十卷은『孔子家語』의 本文이다. 卷一은 공자가 탄생한 후 세상을 떠나기 전 까지의 행적을 그림으로 묘사했으며 모두 40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吳嘉謨의 스승 楊士經이 전수한 曲阜『聖蹟圖』를 초고로 하였으나 새롭게 창작된 부분도 있다. 그림과 자신의 의견을 기록한 문장이 병존한다. 또 하나는「闕里誌」와「孔子家語」 두 책자와 관련되어 있는, 큰 구도로 제작된「聖蹟圖」이다. 이는 孔子의 이력도지(履歷圖誌) 중에서 大宗이라 할 수 있다.

4) 유가의 서술적 그림과 성현의 사적에 관한 두 가지 계통[21)]

明代에 황제의 시강을 담당했던 焦竑은 황제의 교육을 위해『養正圖解』을 편찬했다. 그의 序에서 :「아마도 책을 읽고 뜻을 밝히는 것은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이다. 그림으로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虛로 이해하며 허는 어슴푸레하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리키는 바가 있을 필요가 없다. 事는

21) 본문은 孔子의 履歷圖誌에 대한 여러 관점 및 영감은 孟久麗(Julia K. Murray)著,何前譯『道德鏡鑒 : 中國의 서술적 圖畫와 儒家의 意識形態』(Mirror of Morality: Chinese Narrative Illustration and Confucian Ideology)(北京 : 三聯書店,2014)에서 가져왔다. 도움이 많았기에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實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러므로 實은 보는 자가 쉽게 이해하는 것이니 그것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조석으로 읽고 외우며 보고 느껴 대비하는 것이다.(蓋講讀止于析理, 圖說兼以徵事。理之用虛, 虛, 故隱約言之, 而不必有所指 ; 事之指實, 實, 故覽之者易, 竟以象之, 朝誦夕披, 而觀省備焉也。)」라고 말했다. 경서 중에서 기사성이 농후한 회화는 사건 발생의 특수한 상황을 묘사했으며 경전의 권위적인 해독을 역사의 기억 속에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시각적인 그림은 역사를 재현하는 유력한 매개체가 되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서사성이 농후한 圖畫는 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독자의 관심을 끈다고 여겼는데, 송대에 문인화가 흥기한 이후에 더욱 그러했다. 학자 孟久麗는 유가의 가치관과 서사적인 圖畫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는데, 유가는 상식적으로 여기는 문장과 언어의 전통이외에 시각을 강조한 전통이 있었으며, 회화로 특정 사건을 묘사하거나 도덕적 훈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권고와 수호의 전통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2)孔子의 「聖蹟圖」는 의심할 여지없이 극히 중요한 전형적인 예이다.

孔子의 「聖蹟圖」는 두 가지 판본이 있으며, 그 하나는,明대 御史張楷는 朱熹의 의견을받아 들였으며 『孔子家語』는 지나치게 번잡하다고 여겼다. 『史記』의 내용이 적당하다고 여겨서, 주희가 고증하여 요약하여 다시 쓴 『史記·孔子世家』를 『聖蹟圖』의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제작된 『聖蹟圖』는 비교적 간략하며 도판부분은 10폭으로 줄었고 많아도 30폭을 넘지 않았다. 또 하나는 司馬遷의 『史記·孔子世家』 및 『論語』를 참고한 것으로 각 사이에 『孔子家語』와 기타 경전에서 보이는 관련 기사를 첨가했다. 회화부분은 보통 백여 폭 남짓했으며 공자 행적에 대해 전면적으로 묘사한 복잡하지만 완정한 작품이다.

(1) 版本系統

明太祖는 蒙古族으로부터 통치권을 돌려 받은 후 한족의 정통을 회복하고자했다. 그래서 그는 유가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공

22) 상주를 참고, 孟久麗의 책, 190면.

자야 말로 유가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명 중기에 이르자 조정은 문란했고 더욱이 환관의 참정으로 인해 엘리트 계층은 정세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가의 가치와 질서에 충실한 치국방안을 찾고자 했다. 正統九年(1444)에 張楷(1398-1460)는 최초로 명대의 간결판인 『聖蹟圖』를 제작했으며, 그의 제작 동기는 마침 시대의 사조에 부응했다. 孟久麗의 考察에 의하면 , 宦官 王振이 國子監祭酒인 李時勉을 체포한 사건이 조야를 떠들썩하게 했던 때였으며 孔子聖蹟圖의 出現은 이 시기의 산물이었다. 국자감에 자리잡고 있던 文廟는 일년에 두 번 제사를 지내는데 공자는 유가의 전형적인 모범이라고 여겨져서 배로 숭상되었다. 그의 평생 경력과 교육은 수신치국의 숭고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오경을 통한 과거제도의 제정은 공자를 따르겠다는 방침임에 틀림없었다. 『聖蹟圖』를 위탁제작한 張楷는 監察御史였다. 그의 직책은 관료들의 품행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학자 관료들은 공자의 정신과 연결된 경의문장(經義文章)에 대해 익숙했으며, 벼슬길이 순조롭지 않았던 공자는 정적의 제약을 받거나 황제와 뜻이 안 맞아 벼슬길이 좌절한 문인 집단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공자의 행적에 붓을 드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으며 공자에 대한 묘사는 정통성이 짙은 주제였으며, 관련이 있는 그림 제작에 찬조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의지였다. 도화를 통해 당시의 정세에 대한 거부와 이상적인 정국을 구축하고자 하는 욕망을 전달했다. 張楷는 朱熹가 요약한 『史記·孔子世家』를 인용하였고 그 중에서 29則을 선정했다. 공자의 경력 중에서 덜 중요하거나 신비성이 농후한 행적은 생략했다. 그리고나서 화공에게 그림을 부탁하고 그림에 「贊」을 덧붙였다. 이렇게 제작된 『聖蹟圖』는 관료들을 고무시키는 데에 충분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는 척도를 제공함에 충분했다. 예찬과 평가의 의미가 짙은 孔子의 「履歷圖誌」는 시각화 방식으로 최고의 모범을 구축했으며 이에 張楷의 『聖蹟圖』는 끊임없이 복제되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이 되었다.[23]

---

23) 상주21 참고, 孟久麗의 책, 190-191면. 正統九年에 張楷가 편찬한 『聖蹟圖』 연구, 許瑜翎 『明代孔子「聖蹟圖」研究 : 현존하는 正統九年本 『聖蹟圖』를 중심으로』,臺灣師範大學美術系碩士論文, 2009年.

(2) 版本系統

明代에 張楷이 제작한 29幅의 『聖蹟圖』는 朝政을 위해 유가정신을 구축했다면, 112幅짜리 『聖蹟圖』의 제작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闕里志』의 편찬은 화재(祝融) 후에 闕里가 건조되어 孔廟로 완성된 것과 관계가 있다. 萬曆年間에 제작된 『聖蹟圖』도 그러하다. 연경도서관에 소장된 『大明萬曆孔聖夫子周遊列國全圖』 권두에 있는 邵以仁의 「圖說」은 :

> 辛卯(按 : 萬曆十九年, 1591)冬, 奉簡命, 備兵東魯, 乃登杏壇, 涉洙泗, 遍觀宗廟之美, 願學之心, 駸駸然倍往昔。今聖圖殿之建也, 無亦感發後人之意乎 ! 是舉也, 始於侍御何公出光, 成於縣尹孔君弘復。工役別有記者, 不具述。

위와 같이 말했다. 『(乾隆)曲阜縣志』卷49『古蹟』 : 「『聖蹟圖』는 十二副이 있으며 明 萬曆二十年(1592)에 御史 何出光이 畫工 章草에게 명하여 舊圖를 더해 石에 새기라고 했다. 按 : 何出光은 字가 兆文이다. 河南 扶溝人이다. 萬曆11年에 進士가 되었다. 曲沃知縣과 監察御史을 역임했다. 孔弘復는 孔子의 後裔이다. 字는 以誠이다. 萬曆元年에 山東巡撫請 孔弘復는 세습한 관직으로 고을을 다스렸는데, 시험을 통해 曲阜知縣으로 뽑혔다. 임직한 지 23년이 되어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며 후에 加都轉鹽運同知銜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聖蹟圖』百十有二副, 明萬曆二十年(1592)御史何出光命畫工章草增舊圖刻於石。按 : 何出光, 字兆文。河南扶溝人。萬曆11年進士。授曲沃知縣, 拜監察御史。孔弘復, 爲孔子後裔, 字以誠。萬曆元年山東巡撫請仍以世職管縣事, 乃考選弘復爲曲阜知縣。其在任二十三年, 甚得民聲, 後加都轉鹽運同知銜致仕。」」에 의하면 『(乾隆)曲阜縣志』卷91은 전해져 왔다는 것이다. 據「聖跡殿記」이 말하는 : 「闕里에 원래 약간의 성적도가 있었는데 도판들은 각기 다른 방에 산재해 있었다.(故有聖跡圖若干幅, 在棗梨, (…)散在各廡。)」이 말에 근거하면, 萬曆十九年(1591)에 何出光은 孔廟에 孔子의 木刻圖가 있으나 각 곁채에 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어 목각을 석각으로 바꾸는 것을 제의했다. 다음 해에 按察副使 張應登이 또 「克復傳顔」, 「孝經傳曾」 등의 그림을 더하여 돌에 새겼다. 그래서 「聖蹟圖」는 一百十二圖로

늘어났다. 석각본인『聖蹟圖』는 曲阜縣 生員인 毛鳳羽가 대조 교정을 보았으며, 淮陽의 畫工 楊芝가 그림을 그렸다. 吳郡章이 돌에 새겼고 萬曆二十年十二月에 완성되었다. 후에 何出光이 비용 사천관(四千緡)을 조달하여 孔廟寢殿 뒤에 聖圖殿을 건축하여 보관했다. 석본의 내용은 처음에는 공자 초상(안자가 수행하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으로는 尼山致禱, 麒麟玉書, 鈞天降聖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번째에서 아흔다섯 번째까지 그림은 孔子의 立學, 立教, 爲宦, 周遊列國(열국 순례), 著述 等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아흔여섯 번째부터 백 번째까지는 三墳植楷, 弟子守墓, 哀公立廟및 漢高祖와 宋真宗의 제사도(祭祀圖)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반대쪽에는 문자 해석이 보인다. 그림의 제작은 司馬遷의『史記。孔子世家』에 근거를 두었다.(沈津『書志』, 第2冊, 史部, 496-497쪽)

5) 明代의 孔廟와 연관된 聖蹟圖와 문장의 발전

(1) 佛寺의 道觀과 유사한 孔廟의 구조[24)]

弘治十八年(1505)에 편찬된『闕里志』및 萬曆二十年(1592)에 돌에 새긴『聖蹟圖』112幅 모두 曲阜의 孔廟 건축과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조정 관료와 공자의 후예들이 협력 찬조하여 완성한 것이다. 1505年 李東陽의「闕里志序」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문에서 말하기를 :

> 闕里孔廟成, 東陽奉勅代告, 周覽遐慕, 欲爲一書。巡撫都御史徐公源及衍聖公聞韶, 力贊其議。比歸, 至德州, 巡按御史陸君偁、盧君翊及布政使曹君元等, 合書以請。適聞提學副使陳君鎬, 有事於此, 因舉以屬之。

---

24) 明代 以前에 각지에는 孔廟가 세워졌다. 宋代 期間에 孔廟에는 聖蹟圖 石刻본이 있었다. 安建峰, 張建軍의「伯方文庙「孔子圣迹图」考」를 참고.『文物世界』,2016年第1期, 31-34면. 이 논문은 北宋 年間에 晉城令에 임직했던 程顥이 儒學教育을 추진하였고 社學이 크게 일어났으며. 그 지역에 伯方文廟가 세워 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지의 廟에 있는 孔子의「聖蹟圖」를 고찰했다. 聖蹟圖가 대량으로 간행된 것은 명대 이후였다. 본 단락의 문장은 孟久麗으로부터 힌트를 얻었다. 상주21 참고, 孟久麗의 책, 190-198면.

위와 같이 말했다. 『闕里志』의 편찬은 화재 후에 闕里를 개축하여 孔廟를 완성한 것과 몇몇 대표적인 관료들이 합의 상주하여 제작한 것에 기인한다. 방대한 『闕里志』는 완벽한 공자 집안의 족보가 되었으며 공자의 비범한 생애를 재현한 석판 『聖蹟圖』는 공묘에 신축된 聖蹟殿 중앙에 설치되었고, 양 옆에는 축하사가 적혀 있다. 朝廷은 敘述性이 짙은 圖畫의 형식을 통해 공자를 찬양하였으며 유가의 가치관을 선양하였고 공자 후예들의 명망을 높였다.

中軸 건축물인 孔廟는 大成殿에서 孔子의 聖像을 받들고 있다. 내전(內殿) 양측 복도에는 사배십철(四配十哲)의 聖像이 진열되어 있다.[25] 聖蹟殿은 孔廟의 中軸線 末端에 세워져 있다.圖14]聖蹟殿의 중앙홀에 있는 석각은 「聖蹟圖」는 최초로 孔廟에서 전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孟久麗는 15世紀 孔廟祠堂의 건축구조와 물건 배치는 불교, 도교와 민간사당과 공통점이 많다고 여겼다. 부처 또는 옥황상제를 모셔 두는 홀은 절의 중심축 말단에 세웠다는 것이다. 향을 봉양하는 신도는 성상에게 절을 하며 예를 갖추고나서 다시 돌아나와 이곳으로 와서 관람을 하며 마음에 다시 간직하는 것이다.

(2) 세 종교의 聖蹟과 孔子形象의 신성화

元代에는 세 종교가 성행했다. 『新編連相搜神廣記』는 책머리에 孔子, 老子, 석가모니를 三尊으로 나란히 놓았으며 그후 세 종교의 크고 작은 神祗를 그려냈다. 불교와 도교이외에 儒教의 서적도 원대에 유행했다. 공자는 삼존의 하나가 되었다. 『祖庭廣記』와 『素王事記』는 孔子의 이력을 쓴 문헌이다. 佛教는 『釋氏源流』가 있었고, 道教는 『老子七十二變化圖』가 있었으며, 유교는 후에 『孔子聖蹟圖』를 내놓았다. 佛道儒 三教의 聖蹟에 대한 숭상을 엿볼 수 있으며 그림에 시각적 교육의 의미를 담고자 했던 흔적을 볼 수 있다.

敦煌石窟은 일찍이 부처의 일생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림 작품이며, 후에

25) 四配는 공자의 문하생인 復聖顔回, 宗聖曾參, 述聖孔伋, 亞聖孟軻를 말하며, 十哲은 『論語』「先進篇」十大弟子를 말한다.「진, 채에서 나를 따르던 자는 모두 문하에 있지 않다. (我於陳,蔡者, 皆不及門也。)德行에는 : 顔回, 閔損, 冉伯牛, 仲弓. 言語에는 : 宰予, 子貢, 政事에는 : 冉求, 子路. 학문에는 : 子游, 子夏.」

종교 예술의 전형적인 기준이 되었다. 明代 張楷가 『聖蹟圖』(正統九年,1444)을 제작하기 전에 부처의 일생을 묘사한 『釋氏源流』를 1425年에 出版했다.[圖15] 이는 永樂皇帝가 南京大報恩寺를 건축하기 위한 편찬이었다. 본 책자는 문자를 배합하여 석가모니 탄생과 평생 사역을 묘사하였으며 동시에 불교가 동쪽으로 전파된 역사와 관계된 사적을 묘사했다. 208幅에 달하는 圖畫 作品은 15世紀에 널리 전파되었다. 또한 수시로 복간되기도 했다. 半世紀 후에 明 조정은 成化22年(1486)에 다시 정교하게 작품을 제작하였고, 구도는 佛教 사당의 벽화에 자극을 주었다. 正統九年(1444)에 張楷가 간행한 29幅의 圖畫는,방대한 『釋氏源流』와 비교해서 완벽하지 못했다. 半世紀 후,何珣廷瑞는 衡州(沛南衡陽)에서 知府에 임직하고 있을 때 본지의 공묘와 주희 때문에 유명해진 石鼓書院을 세로 세웠다. 그는 弘治十年(1497)에 張楷本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張本의 『聖蹟圖』에서 9幅의 圖畫를 더 늘렸다. 그 중에는 공자의 모친이 수태하는 것과 공자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麟吐玉書, 鈞天降聖, 五老二龍 等이다.[圖16] 이 이야기들은 전국시기에 만들어졌으며 공자 후예들의 간행물을 거치면서 널리 유전되었다. 何珣刻本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그림을 보충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孔子의 출생을 기린이 옥서를 토하는 것과 대비시킨 도화는 싯다르타 태자의 어머니가 흰 코끼리를 꿈에서 본 후 잉태하여 싯다르타를 낳았다는 도화와 아주 비슷하다. 何珣는 『釋氏源流』의 영향을 받아 부처의 이야기에 대한 표현 기법을 빌려 공자의 형상을 신성화하는 데에 사용했다. [26]何珣의 刻本은 신비한 이야기로 공자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불교, 도교와 민간종교의 신과 접목시켰던 것이다. 木刻본은 何珣이 이직하고 나서 기타 관료들이 자비를 들여 완성했다. 何珣이 增補한 『聖跡圖』는 16、17世紀에 여러 차례 제작되었으며 그 중 두 번은 皇家에 의해 제작되었다.[27]

元代에 공자가 三尊으로 추앙되어, 불교와 도교의 사상과 융합되어 元代에

---

26) 상주21 참고, 孟久麗의 책, 192-194면 또한 凌玉萱의 「建構神聖者傳奇 : 『釋氏源流』에서 『聖蹟圖』까지의 전기 및 회임도 발전 과정」, 『議藝份子』第九期(2007.05), 15-42면.

27) 註15참고. 『孔子聖跡圖』의 版本 고찰(一),(二).

교주의 의미가 짙었던 공자상은 明中期 正統九年(1444)에 이르러, 조정의 요구에 응하고자 理學家인 朱熹의 사상을 인용하여 『聖蹟圖』를 제작한 張楷에 의해 先師의 形象으로 전향되었다. 그러나 半世紀 후 弘治十年(1497)에 何珣『聖蹟圖』의 增刻本이 나타나면서 공자의 출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설(說)을 공고히 다졌으며, 더 나아가 공자를 신격화하여, 불교와 도교의 시각 문화와 새로운 관계를 확립했다.

(3) 공자 형상의 형성 및 구조

한 세기가 지난 후 萬曆十九-二十年(1591-1592)에 何出光은 孔廟聖蹟의 木刻圖가 각기 다른 곁채에 산재되어 있는 것에 애석하여 木刻을 石刻으로 바꾸기를 제창했다. 「聖蹟圖」는 何珣이 새로 증보한 부분을 포함시켜 百十二圖로 확대했다. 그리고 孔廟寢殿 뒤에 聖圖殿을 세워 보존하였다. 112幅의 石刻으로 제작된 孔子의 履歷圖는 孔聖의 형상을 보여주었으며 구조는 다음 이하를 포함하고 있다.

1. 핵심형상 : 統治者, 賢者,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 孔子의 도덕성을 표방했다.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유세했던 책사의 형상, 배우기를 좋아한 학자의 행적, 안목이 넓고, 깊고 넓은 지식, 귀천을 따지지 않았던 품성, 이 모든 것이 공자의 형상을 성스러운 先師로 만들었다.

2.신성화 양상 : 元代에 삼대 종교의 교주의 하나로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범인의 능력을 초월한 인물로 만들어졌다.

3. 조정이 주관한 제전(祭奠) : 孔子가 죽은 후에 역대 왕조는 그의 대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漢高祖가 孔廟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서 宋真宗 大中祥符 元年에 제를 지낸 것이 마지막이었다. [圖17] 이는 공자 가묘 제사에 대한 존중과 허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112幅의 「聖蹟圖」에 있어서, 그림 밖에서 따라다니던 문자는 그림(圖畫) 속의 공백으로 옮겨졌고 원래 고문이었던 문장은 쉽게 화면의 내용을 이해할 수 문장으로 고쳐졌다. 張楷의 예찬시는 사라졌고, 모든 내용에는 네 자로 된 표제가 붙어 다녀, 독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사건을 어려움 없이 연

상할 수 있었다. 28)

明代 최초의 『聖蹟圖』(1444)는 주로 공자의 인문 소양을 나타냈으나 何珣은 神靈의 색채를 가미했다. 明代 文官들은 백성들에 대한 불교와 도교의 교화 기능을 본 받아 유교를 보편화 했다. 孔廟와 관련된 「聖蹟圖」의 여러 각본은 아마도 공자의 행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신격화되는 발전 맥락에서 출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嘉靖九年(1530)에 공자의 제례 제도가 바뀐 후부터 曲阜孔廟에 조각상을 설치했으며, 그 밖의 지역의 공묘는 나무로 만든 비위만 세워 두었다. 「聖蹟圖」는 공자의 형상을 시각화한 중요한 고전형식이다.29)

(4) 복사본

「聖蹟圖」의 각종 판본은 시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생겨났다. 각각 다른 목표와 독자에 따라 도판과 문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고 사용자 사이에서 유전되었다. Gerard Genette는 원본과 상대되는 명칭은 복사본이며 복사본은 서적과 독자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작품의 내용을 다른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일단 독자가 바뀌면 배경이 바뀌고 핵심 내용도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다. 매개체가 달라지면 독자층 및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30)「聖蹟圖」는 처음에는 관료들에게 근신의 의미로 증여되었다. 발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그림 형식, 목각, 석각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했다. 木刻本이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 도덕적 소양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고, 복제와 보존이 용이한 인쇄술은 복제와 유통의 편리함을 제공했다. 刻本의 전파에 따라 다양한 복사본이 나타났으며 생산과 유통 체계에 영향을 미쳤다.31) 필자는 복사본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聖蹟圖」의 발전 궤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正統九年(1444)

28) 註21 참고, 孟久麗의 책, 192-194면.
29) 註21 참고, 孟久麗의 책, 191-196면.
30) 「副文本」에 대한 觀點은 註21에서 따옴,孟久麗의 책, 165-166면.
31) 註21 참고, 孟久麗의 책, 169면.

에 張楷는 朝廷官員들을 위해 공자의 인문 소질을 핵심으로 한 29幅의 그림책을 제작했다. 半世紀 후, 弘治十年(1497)에 何珣은 地方州縣의 향민을 위해 공자를 신의 범주에 넣어 38幅의 도화책을 만들었다. 다시 한 세기가 지나 萬曆二十年(1592)에 何出光은『史記 . 孔子世家』,『孔子家語』等 옛 고전으로 돌아가 曲阜孔廟를 건축하기 위해 내용을 확대하여 112幅의 책자를 만들어 공자를 신격화했다.「聖蹟圖」는 유가의 지식체계를 갖춘 人文義理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孔廟건축과 연결되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불교와 도교와의 융합으로 인해 성인을 숭배하는 종교 색채를 띄게 되었고 이 때문에 孔子의 履歷圖誌는 기이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2. 한국의 孔子 이력 문헌

宋代에 理學이 大盛하여, 孔子의 形象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공자의 형상이 조선반도에 전입하게 된 확실한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늦어도 유학이 동쪽으로 전해지던 시기인 고려시대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 西元1289年에 ,高麗王朝의 학자 安珦은 왕세자 忠宣王을 따라 원나라에 왔다. 그는 직접『朱子全書』를 베끼면서, 子孝臣忠, 以禮治家, 以信待人, 修己誠敬 등의 유가사상을 인정하였다. 고려는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마침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런 사상은 安珦에게는 한 줄기 서광처럼 보였다. 이때부터 安珦은 수차례 조선과 고려를 왕래하면서 원나라의 학풍을 견학하고 악기, 경서와 사서 등을 구입했다. 그는 또한 박사를 파견하여 공자와 72인 현자의 화상(畫像)을 그려오라고 했다. 朝鮮時代의 聖蹟圖는 대부분이 燕行使臣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며 본토의 풍격을 지니고 있다. 16-17世紀에 한 관료가 明 正統年間에 張楷가 제작한 간결판인『聖蹟圖』를 조선으로 갖고 들어 와서 개인의 가보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후 何廷瑞版, 吳嘉謨版, 何出光版의『聖蹟圖』가 들어와서 조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32)공자의 교리는 도덕

32) 韓國의 學者들이 孔子形象과 理學의 관계성으로 聖蹟圖를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진영자,「남송에서 명대까지 공자 형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성현도』와『성적도』의 분석을 중심으로」를 참고.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韓國의 聖蹟圖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曺庭六의「韓中 孔子

과 사회의 기준이며 聖人 스스로가 기대했던 행위 규범이었다. 또한 교육과 대중 생활의 지표였다. 조선시대의 「聖蹟圖」는 훌륭한 교본이었고, 양반귀족과 일반대중은 이것으로 성인을 알게 되고 지시를 습득하고 지혜를 얻게 되었다. 즉 그림에 나타난 공자의 형상에서 교리를 깨닫게 되었다. 33)

필자는 근래에 지인을 통해서 진귀한 문헌을 손에 넣게 되었다. 필자는 동아시아 한문화 도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어서 과거에 여러 편의 논문을 쓴 적이 있다. 필자는 미국 하버드 대학 방문 기간에 연경도서관 선본실에서 수십종의 공자 이력문헌을 열람하여 「哈하버드 연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韓國의 孔子履歷文獻에 대한 分類 일람표」와 「中國、日本、越南 등의 孔子履歷文獻에 대한 견해」([附表一]、[附表二]참고)등을 작성했다. 필자는 한국이 편찬한 14종의 孔子履歷文獻을 수집하였는데[圖18] 삽화가 없고 문자서술이 위주인 『孔子通記』, 『孔子編年』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종은 모두 그림이 있다. 34)조선왕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14種의 孔子履歷文獻을 필자는 책의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孔子編年紀事：『孔子通記』, 『孔子編年』, 『孔子實紀』, 『新刊素王事紀』, 『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附：新刊素王事紀)』(有6卷、3卷兩種版本)等 모두 6종류가 있다.

孔子闕里誌：『東國闕里誌』, 『魯城闕里誌』, 『魯城闕里祠新安誌』, 『先聖闕里圖』, 『闕里誌』等 모두 5종류가 있다.

孔子聖蹟圖：『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 『續修聖蹟圖後學錄』(兩本),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圖』等 모두3종류가 있다.

본 논문은 위의 책에 대해 초보적인 고찰을 함에 있어서 各書의 序, 跋, 目錄 및 圖版을 참고하였다. 논문의 편폭때문에 序, 跋의 원문이나 전체 목록은 인용하지 않았다. 모두 일률적으로 논문 끝부분 부록에 붙여 놓았다. 이하

聖蹟圖 硏究」를 참고.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1.

33) 趙善美의 「孔子聖蹟圖考」참고. 『美術資料』第60號,, 國立中央博物館,1998.

34) 筆者는 식견이 많지 않아 전면적으로 韓國이 편찬한 聖蹟圖를 모두 언급할 수 없으나 韓國學者들도 이 연구에 대해 성과가 아주 많다. 예를 들면 박광헌의 「『孔夫子聖蹟圖』의 책자와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78,한국서지학회,2019; 필자와 논문과 같이 참고하면 도움이 많을 것이다. 「聖蹟圖」와 관계된 연구는 서성, 「『공자성적도』의 제작 방향과 시각 표현 연구를 참고, 『中國學論叢』第64號, 高麗大學校中國學硏究所, 1998.

문장은 책의 성격과 편찬시기에 따라 나누어서 토론을 하였다.

1) 孔子의 編年紀事

필자가 본 책은『孔子通記』,『孔子編年』,『孔子實紀』,『新刊素王事紀』,『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附 : 新刊素王事紀)』等이며 다음에 하나씩 언급하겠다.

(1)『孔子通記』(TK 1075 3600)

모두 8卷으로 이루어졌고 乾과 坤 두 책으로 나누어져 있다. 卷一 첫 페이지에는「廣東 提學副使 上虞 사람 潘府 교정, 동생 建陽縣 典史 潘正이 봉록을 헌납하여 간행(廣東提學副使上虞潘府校著、弟建陽縣典史潘正捐俸刊行)」라는 두 줄의 문장이 써 있다. 卷 앞 부분에는 劉瑞, 謝鐸의 序가 보인다. 유서의 서문 끝에는「弘治十四年 辛酉(按1501)해, 秋, 八月上旬, 吉翰林院國史 檢討徵仕郎 後學 西蜀 사람 劉瑞 삼가 서를 씀(弘治十四年辛酉(按1501)秋八月上旬吉翰林院國史檢討徵仕郎後學西蜀劉瑞謹序)」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편찬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 본 서는 前紀1卷, 正紀3卷, 後紀3卷 등 모두 8卷이다. 공자의 일생 및 언행, 말의 출처 등을 실은 기사문이며, 위로 올라가 정통을 전수하는 것, 당시의 제자 및 후세에 같이 배향된 유생들을 언급했으며 또한 시호를 받았던 과정도 언급했다. 공자의 역사 기록이 중심인 통사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謝鐸의「讀孔子通紀序」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凡八卷, 前紀一卷推原其道統世裔之正 ; 正紀三卷, 敘述其出處言行之詳 ; 後紀四卷, 先之以歷代褒封祀典, 次則及其當時弟子與夫後世從祀之賢, 而終則以其宗子世襲者附焉。上自六經, 下及子史, 凡有關於孔子者, 參考互訂, 皆特書而備書之。

두 문장의 序 뒤에「孔子通紀凡例」8條가 있으며, 다음으로 潘府가 弘治癸亥(按1503)에 쓴「孔子通紀總辭」가 있다. 全書 卷8이며 맨 마지막에 潘府의 한탄이 보인다. :「闕里를 두루 돌아다님에 어느덧 팔 년이구나 내 삶은 어찌 쉽게 가는지 이에 한탄하도다. (闕里之遊,忽忽八載, 而感予生之易老也。)」次以弘治

甲子(按1504)仲夏에 羅僑가 의 문장이 있다.

> 孔子通紀一書, 蓋南山潘先生提學東廣按部至新會出以示僑者也。僑得之不敢自愛, 遂捐俸鋟梓以廣其傳云。

序, 跋과 지면의 문자를 통해, 본서는 명대의 문인 潘府(1454-1526)가 편저한 것이며 또한 建陽縣典史 潘正과 羅僑 등이 경비를 공동으로 모금하여 목각본을 만들었다는 것이며 이는 明孝宗 弘治初年에 만들어진 원래의 목각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日本筑波大學圖書館의 소장본 이외에 다른 소장본은 보지 못했다. 연경도서관이 소장한 이 책의 표지나 장첩 형식은 조선판본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책 안 쪽 페이지에서 두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전서(全書)의 끝 페이지에는 「天啟五年(1625)十月日長城縣開刊」이라는 글이 한 행을 차지하고 있다. 때는 朝鮮 仁祖 3年(1625)이며 혹은 『孔子通紀』이 동쪽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후, 원래의 각본이 인쇄 간행되어 백여 년이 지난 후, 조선왕조는 원래의 각본을 인쇄하여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권두 제일편에 劉瑞의 장편 서문 뒤, 다음 행에 문체가 현저히 다른 기록문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中原闕里誌十三冊, 刊印於皇明弘治年間, 是爲舊誌。東國之闕里誌一冊, 實正廟遺志, 而本孫設施者是爲新誌, 合十四冊印出。闕里祠在華城文獻公瑞麟舊址, 而正廟創建, 略仿魯城闕里祠。系譜自昌原伯紹爲始。

문장의 내용은 『孔子通紀』와는 무관하다. 아마도 『東國闕里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문은 제목과 서로 맞지 않지만 주의를 끌 만한 정보가 들어 있다. 우선 이 책은 조선시대에 복간된 적이 있다는 것이며, 조선시대에 편찬된 『闕里誌』을 위한 서막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언급하겠다.

(2) 『孔子編年』(TK1422 323)

序에서 「紹興八年(1138), 三月壬子績溪胡舜陟序」라고 서술하고 있다. 모두 5卷, 1冊으로 만들어 졌다. 그림은 실려 있지 않다. 기년체 孔子의 역사이며,卷一은 탄생에서 43세까지 ; 卷二는 44세부터 55세까지 ; 卷三은 56세부터 67세까지 ; 卷四는 68세부터 69세까지 ; 卷五는 70세부터 73세 사망까지의 기록이다. 卷一 첫 페이지에는 : 「宋 績溪사람 胡仔元任이 편찬,裔孫 湛이 복간(宋績溪胡仔元任撰, 裔孫湛重刊)」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끝 페이지에는 「嘉慶二十三年,戊寅(1818)十月, 朔, 裔孫 培翬이 글을 달고, 후손 日光이 보충 기록하고 紹燡이 감수(嘉慶二十三年戊寅(1818)十月朔裔孫培翬謹識、裔孫日光繕錄, 紹燡覆對)」,「裔孫 澍사 교정(裔孫澍校字)」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편찬자는 胡元任이며 苕溪公이며, 爲胡氏가 績溪로 옮긴 후의 八世祖이며 南宋 紹興 때 先三山公即 胡舜陟의 명을 받아 『孔子編年』5卷을 편찬했다. 四庫提要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 권두에는 紹興八年에 胡元任의 아버지 舜陟가 序를 지었다는 글이 있고, 본서는 『論語』, 『春秋三傳』, 『禮記』, 『家語』, 『史記』, 『世家』의 기록을 참고하여 공자의 언행을 기록했으며 공자의 나이로 분류한 기년체로 되어있다. 年譜라고 하지 않고 編年이라고 한 것은 성인을 존중하고자 하는 뜻 때문이다. 宋 以後에 공자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날로 많아졌고,난잡함도 날로 심해졌다. 胡仔元任이 말한 바가 더욱 옛 것에 가깝다. 수백 년 후 후손 湛이 淸 嘉慶年間에 복간했다.

『孔子編年』는 중국책이다. 필자가 연경도서관에서 본 것은 『孔子編年』과『朱子年譜』, 『安子年譜』세 책을 합본한 것(TK 1422 323)으로, 권두에는 孔令貽의 「合刊序」가 있다. 말하기를 :

> (…)世局奇變, 異說競作, 東國諸儒懼聖教之將墜, 建道統祠於硯山, 奉先聖像, 配以朱子, 而從祠以安子, 合刻孔子編年、朱子年譜、安子年譜三書, 藏之祠中, 以爲國人矜式, 問序於余。(…)今此三譜, 列先聖昔賢平生行事以示國人, 正如天之四時行、百物生, 爲不言之教。東方學者, 誠能奉爲規矱, 亦步亦趨, 吾知先正典型, 必能永保不愆, 不爲末世波流之所汩, 則諸君子之功不在安子下矣。

끝 페이지에는 「孔子二千四百六十八年十月, 孔子七十六代孫, 衍聖公을 세습한

孔令貽가 序를 씀(孔子二千四百六十八年十月孔子七十六代孫襲封衍聖公孔令貽序)」라고 적혀 있다. 이 해는 日本大正天皇6年乙卯(1917)년이며 출판 년도임에 틀림없다. 세 권의 책을 합본한 책자 끝 페이지에는 「孔子編年, 宋子年譜, 安子年譜, 乙卯秋에 합해서 간행했으며 판본은 晋州硯山道統祠에 소장(孔子編年、宋子年譜、安子年譜,乙卯秋合刊藏版于晋州硯山道統祠)」라는 문장이 써 있다.

安子는 東國의 學者 安裕이며, 高麗高宗30年癸卯(1243)해에 順興府竹溪上坪里村鶴橋傍第에서 태어나 忠烈王32年丙午(1306)해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高麗王朝와 元은 관계가 밀접했다. 忠烈王이 젊었을 때 원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었으며, 원 세조 忽必烈의 딸은 일본 원정을 위해 충렬왕의 왕비가 되었으며 高麗에 征東行省을 설치하였고 忠烈王을 左丞相에 임명했다. 忠烈王은 원나라에 뜻을 기꺼이 따랐다. 忽必烈는 중국을 통치하면서 朱子儒學을 관학으로 삼았고 과거제도를 세웠다. 高麗學者 安裕는 忠烈王을 따라 큰 도시(大都)에 갔었으며, 忠烈王은『朱子全書』을 손에 넣었고, 安裕는 귀국 후, 주자의 理學을 제창했다. 安裕의 문하생 白頤는 후에 忠烈王을 따라 北京에 갔었고 박학다식한 유학자들에게 주자의 이학을 물었다. 유가경전을 대량으로 갖고 귀국한 후 주자 이학의 열풍을 일으켰다. 안유는 고려 유학의 정종으로 추대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유를 공자나 주자와 같은 위치에 두었다. 年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先生生而倡明斯學, 大闡儒風, 一洗三韓之陋, 蔚爲東方道學之祖, 子孫蕃衍貴顯, 久而不衰云。先生諱裕, 後改珦, 避我朝顯陵諱, 以初諱稱號晦軒。

(3)『孔子實紀』(TK 1075 1138)

1冊4卷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현대적으로 조판된 인쇄물이다. 안쪽 페이지에는「原州 元泳義 性求纂輯、南陽 洪鎭裕而遠校閱、德水張憲元 明校訂」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孔子編年』과『孔子實紀』는 일제강점기 때의 산물이다. 전자는 편년체로 이루어져 있고, 대체적으로 공자의 일생 사적을 열거했다. 晉州 硯山道統祠가 간행본을 소장하고 있다. 4年 후 大正10年(1921)에 元泳義가『孔

子實紀』를 편찬했으며 京城 靑邱儒學會本部에서 인쇄 발간했다. 권두에는 공자의 초상화 한 폭이 실려 있다. 明治政府가 공자의 사적을 복간하여 유학을 진흥하려고 했던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4) 『新刊素王事紀』(TK 1075 4312)

全書 끝 페이지에는 「甲子秋七月下澣泰仁田以采朴致維謹梓」라는 문장이 찍혀 있다. 이것은 朝鮮王朝 純祖 甲子(1804)해에 田以采, 朴致維가 편집 인쇄한 것이며 朝鮮活字印本이다.[圖19] 序나 跋이 없으나 全書에 대한 目錄이 있다. 圖版 뒤에는 「역대 추모에 대한 행위(歷代追崇事始)」부터 孔子의 생전과 사후의 숭사제의(崇祀祭儀) 및 세습 봉작 등 여러 가지 사건을 기재했다. 目錄 다음 페이지에는 「附(錄)」의 목차가 있으며 주로 「제도와 제사 절차(會典祀儀)」에 관한 것이며, 齋戒, 省牲, 陳設, 正壇, 四配位, 十哲位, 東廡, 西廡 等 의식에 있어서의 자리 배치(儀節配位)에 대한 설명이다. 권두는 모두가 그림 판이며 순서에 따라 「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 正壇陳設圖, 四配陳設, 十哲陳設, 兩廡陳設로 배열했다. [圖20] 다음에는 先聖歷聘紀年之圖(表), 孔子世系之圖(表), 歷代封祀爵號圖(表)가 있으며 목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서는 공자를 無冕王으로 보고 그의 紀年, 世系, 追崇, 廟宇, 祠祭 等 제도와 가계를 기록했으며. 『孔子通紀』와 『闕里誌』의 저술 취지를 종합하여 圖表를 그려 제작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독자들이 열람하기에 편하도록 했다.

圖版은 「魯司寇像」을 그렸는데, 작은 글자로 된 註가 있다. : 玉紅色, 綠簪, 黃纓, 紫褐裘는 분명 공자의 초상에 색을 입히는 규범임에 틀림없다. 이밖에 문장 첫 페이지에는 공자의 초상에 대한 재미있는 주해가 달렸는데 뜻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고서를 인용했다.

> 祖庭廣記曰 : 先聖生有異質, 凡四十九表, 反首, 注面, 月角, 日準, 河目上下眶平而長, 海口, 斗唇, 昌顔, 均頤, 輔喉, 駢齒, 龍形, 龜脊, 虎掌, 胼脅, 參膺, 圩頂, 山臍, 林背, 翼臂, 注頭, 阜脥, 堤眉。地足谷竅, 雷聲澤腹, 面如蒙俱, 手垂過膝, 眉有一十二彩, 目六十四理, 立如鳳峙, 坐如龍蹲, 手握天文, 足履度字, 望之如仆, 就之如升, 脩上趨下, 末僂後耳視若營四海(按 : 第六段引文對此句註曰 : 註長上而促下, 末僂微曲

也。後耳耳近後也。視若營四海則憂世之容可掬), 耳垂珠庭, 胷有文曰 : 制作定世符。身長九尺六寸, 腰大十圍。

본 문단 후에 계속해서 다섯 단락의 문자를 따로 인용했다. 문장 말단에 「『祖庭廣記』에 보인다」라는 總註를 달았다. 위 여섯 단락의 문장은 모두 공자의 외모와 후예가 소장한 공자의 초상화에 대한 기록이며 이후에 나온 것은 편폭이 길고 완전하다.

『新刊素王事紀』「附錄」은 주로 明의 제도와 제사 절차(會典祀儀)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은 글자로 쓴 주에 의거하면 편찬자는 廣東羊城 陳際泰(1567-1641, 字는 大士, 號는 方城이다)가 주석한 『孔子家語』를 인용 근거로 삼았다. 聖朝가 거행한 의식을 열거하였고 제사 및 자리배치(配位) 등에 대한 사건을 감하거나 더해서 만들어졌으며, 의식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문자로 설명 또는 자리배치에 대한 그림을 실었다.

(5) 『孔聖家語』(附 : 新刊素王事紀)(TK 1075 0011.1)

연경도서관은 明 때 간행한 『孔子家語』를 소장하고 있다. 何孟春이 注를 달았고, 永明書院의 간행본이다. 본서는 공자의 행적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것에 대한 기록과 고증을 한 책이다. 韓國의 『孔聖家語』는 6卷2冊으로 이루어져 있고, 母本은 시기적으로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다. 目錄 페이지에는 「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라는 문장이 있으며, 다음 행에는 「猷堂王廣謀景猷」라는 문장이 있다.[圖21] 본서는 元代 王廣謨가 『孔子家語』에 대해 축자 해석을 가했다. 본서는 元仁宗 延祐3年(1316)에 간행되었고 명에 이르기까지 다른 간행본이 있었다. 그후 동으로 전해져 조선으로 왔다. 全本은 「相魯」, 「始誅」, 「王言解」, 「大婚解」(…)等 卷의 순서에 따랐고, 문구에 주와 해석을 집어넣었다. 격자선이 없으며, 그림도 보이지 않는다. 坤冊 후반 단락에는 원래 각본에서 보이는 王廣謨의 장편의 跋 한 편이 들어가 있다.

『孔聖家語』 下冊에는 부록인 『新刊素王事紀』가 있다. 판형(版型)은 앞의 책과 다소 다르고, 격자선을 나누지 않았다. 目錄이 끝나는 부분에 「泰定甲子秋

蒼巖書院刊行」라는 큰 글자로 쓰여진 문장이 있다. 元泰定甲子年(1324)은『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원래 각본이 나온 연대이며,『新刊素王事紀』보다 약 五百年 빠르다. 全書는 앞의 책과 비교해서「拜謁蒞政」에서 끝마친다. 앞 책의「大明會典祀儀」이하와「附錄」부분은 수록하지 않았다. 편폭은 훨씬 적다. 하버드 연경도서관에는 3卷3冊本(TK 1075 0011)도 소장하고 있는데 내용은 같다. 책을 나눈 것과 제본은 다르다. 세 번째 冊은 素王事紀, 皇朝通制孔子廟祀, 大明會典祀儀, 後序, 我朝文廟享祀(…)等을 포함하고 있다.

2) 孔子의 闕里誌

『孔子通紀』편에서 劉瑞의 序 뒤에 내용과 동떨어진 문장이 있음을 언급했다. 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中原闕里誌十三冊, 刊印於皇明弘治年間, 是爲舊誌。東國之闕里誌一冊, 實正廟遺志, 而本孫設施者是爲新誌, 合十四冊印出。闕里祠在華城文獻公瑞麟舊址, 而正廟創建, 略仿魯城闕里祠。系譜自昌原伯紹爲始。

필자는 연경도서관 선본실에서『東國闕里誌』,『魯城闕里誌』,『魯城闕里祠新安誌』,『先聖闕里圖』,『闕里誌』等을 찾아 열람했다. 이 책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1)『東國闕里誌』(TK1422/1161)

孔明烈이 편찬했으며, 2卷1冊으로 나누어져 있고 附錄이 있다. 朝鮮憲宗6年己亥(1839)해에 제작되었다. 견면 공백에는「隨軒先生 惠存 藤塚鄰 敬呈」라는 글귀가 있다. 이 책은 일본 유명한 골동품 소장가 藤塚鄰이 소장하고 있다가 후에 하버드 연경도서관 선본실로 흘러 들어갔다. 그전에 趙寅永의「東國闕里誌序」가 있었고, [圖22] 序文 끝에「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 趙寅永이 편찬 ;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恭贊官春秋館修撰官知製教, 宋祥來가 글을 씀(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趙寅永撰 ; 通

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恭賛官春秋館修撰官知製教宋祥來書)」라는 문장이 들어 있다. 조인영의 서는 편찬동기를 설명했는데, 첫 장에 그 자신이 明 弘治年間에 陳鎬가 편찬한 『闕里志』를 숭상하여서 따로 『東國闕里誌』를 편찬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위로 공자 이후, 元 때 翰林學士인 孔紹가 처음 東國에 거주한 때까지 소급하여, 63대손 文獻公 孔瑞麟이 강학을 하던 곳을 공자의 闕里이며 공자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聖人의 사당으로 표한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東國을 東周와 연관시켜, 멀리 箕子가 朝鮮東夷지역에 책봉된 때까지 소급하여, 聖人이 東에 거주하며, 周道를 東方에서 일으켰다는 논리를 강화하였다. 趙寅永의 序는 『東國闕里誌』는 瑞麟文獻公의 후손 孔明烈이 편찬했다고 언급했다. 序는 : 「처음에는 舊誌의 범례를 모방하였다. 먼저 聖像, 廟制, 祀享의 의식을 실었고 다음으로는 國史, 野乘 등을 실었다. 공자와 관계된 책을 두루 수집하여 책으로 만들었다.(起倣舊誌之發凡, 首之以聖像、廟制、祀享之式, 次以國史、野乘, 凡爲孔氏典憲者, 旁搜博採, 編成一帙)」라고 말했다. 趙寅永의 序는 『闕里誌』는 五經六藝가 아니며, 聖人의 책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는 : 「廟堂, 禮器, 儀文의 끝이며 列朝의 恩澤으로서,후손들이 승계한 계파로서 영원히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다. 이는 가족사이지 성인의 책이 아니다.(以廟堂禮器儀文之末, 與列朝之恩澤, 後承之派系, 謂可輝映於百世, 則此家史也, 非聖人書也。)」라고 했다.

明代에 편찬된 『闕里志』는 역사가 길고 내용이 많아 經部에 들지 못하고 史部에 분류되었다, 본서는 聖人孔子의 가정사일 뿐 아니라 또한 유학발전의 源流史이며, 制度史이다. 그리고 『東國闕里誌』는 공자 후예와 居東했던 유생 후예를 기록한 발전사에 착안하여 그 뒤를 따라 제작되었다. 편찬자와 시간은 두 편의 발문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闕里誌後序」 뒤에 「崇禎紀元後四己亥後學唐城洪直弼謹撰」라는 글귀가 있으며, 또 다른 장문의 跋文이 있는데, 「春秋獲麟後兩千三百二十年己亥秋,夫子七十五世孫東國闕里祠有司明烈拜手謹識」라고 쓰여 있다. 「崇禎紀元後四己亥」와 「春秋獲麟後兩千三百二十年己亥」는 朝鮮 憲宗6年己亥(1839)해이다. 跋文의 내용에서 本書는 孔子後裔 孔明烈이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明烈의 발문은 편찬 과정을 설명했다. 즉 : 「舊新二誌을 모아, 한 권

으로 통일하였고, 경비를 조달했다. 처음에는 丙申(1836)冬에 시작하여, 龍仁鄕舍에서 간행했다. 丁酉(1837)에 嶠南으로 옮기고 戊戌(1838)에 또 京城으로 옮겼다. 아마도 시간과 정력을 다 쏟은 결과일 것이다.(乃輯舊新二誌, 合成一統, 而鳩財付梓, 始自丙申(1836)冬, 粉刊於龍仁鄕舍, 丁酉(1837)移于嶠南, 戊戌(1838)又移設於京城, 蓋緣事浩力綿之致也。)」라고 했으며 후에 己亥(1839)해에 판본을 만들고 인쇄했다.

『東國闕里誌』는 朝鮮의 희귀본이다. 책의 서문과 발문 세 편의 문장은 본서의 편찬동기, 要旨, 過程, 體例, 蒐採, 人力 등을 설명해 주고 있다. 본서는 明代의 『闕里志』를 계승한 것이며, 東國史에 대한 보충인 것이다. 세 편의 서와 발은 趙寅永의 「東國闕里誌序」, 洪直弼의「闕里誌後序」, 孔明烈의 「後識」이며,이것들에 『東國闕里誌』의 全書目錄를 더하면 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림(圖版)은 先聖行像, 華城闕里祠奉安像, 華城闕里祠制圖, 孔昌原伯墓圖 등을 포함하고 있다. [圖23] [附錄]은 新羅王子獻聖像事蹟, 金文安公獻國學圖事蹟, 安文成公奉聖像事蹟, 魯城闕里祠創建事蹟(…)等을 포함하고 있다. 그 뒤에 또한 아홉 가지 규칙을 설명한 「體例」가 있으며 본서의 과정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원문은 [附錄]을 참고)

필자는 『孔子通紀』편에서 권두에서 보이는 「내용이 동떨어진」 글을 언급했다.

> 中原闕里誌十三冊, 刊印於皇明弘治年間, 是爲舊誌。東國之闕里誌一冊, 實正廟遺志, 而本孫設施者是爲新誌, 合十四冊印出。闕里祠在華城文獻公瑞麟舊址, 而正廟創建, 略仿魯城闕里祠。系譜自昌原伯紹爲始。

대조를 통해 원래는 본서의 「體例」 1, 3, 6 항의 글을 베껴와 조합하여 만든 것임을 알았다. 이는 두 책자의 계승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2) 『魯城闕里誌』(TK 1422 1149)

1冊이며, 上下로 나누어져 있다. 끝 페이지에 「己未冬闕里刊」라는 큰 글자

가 적혀 있으며, 朝鮮 哲宗10年(1859)에 간행되었다. 序가 없으며 跋 두 편이 있다. 하나는 宋來熙의 「書魯城闕里誌後」이며 문장 끝에 「崇禎紀元後四己未」라고 연도를 기록했다. 이 때는 朝鮮 哲宗10年(1859)이다. 송래희는 편찬자 孔明烈의 편찬 동기를 밝혔으며 弘治年間에 『闕里志』는 더욱 완비되었다. 本書는 東國의 공자 사당 두 곳을 기록했으며 : 「魯城闕里」는 肅宗43年丙申(1716)해에 창건되었고 ; 「華城闕里」는 正祖17年壬子(1792)해에 창건되었다. 모두 弘治17年(1504)에 완공된 曲阜孔廟를 계승한 것이다.[35] 더욱이 明나라 멸망 200여 년 동안 「神州가 멸망하고 青邱 지역만이 피냄새를 면했다. (神州陸沈, 青邱一域, 獨免腥穢)」라고 하는데 東國은 공자의 정신을 받들었고, 더욱 빛을 발했으니 어찌 공자가 예언한 「도가 행하지 못하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련다(道不行乘桴浮於海)」말과 같지 않은가? 이미 東國에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宋觀洙의 「敬書魯城闕里誌後」이며, 문장 끝에 「崇禎後四己未(1859)臘月(12)上澣(上旬)德殷宋觀洙謹識」라고 써 있다. 이 문장은 宋來熙의 말투와 비슷한 것이외에 흥미진진하게 공자 사당 두 곳이 창건되는 과정 및 동국의 공자 후예와 본 왕조 유학자들은 어떻게 책을 써야 유학의 도를 숭상하고 지키며 공자가 동국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지를 설명했다. 본 序의 특징은 朱熹를 후계자로 보아 『魯城闕里祠新安誌』를 위해 張本을 제작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문장에서 보인다)

『魯城闕里誌』의 全書 內容은 目錄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권두의 그림(圖版)은 목록 앞에서 即目錄前幾條所示, 曲阜闕里圖, 魯城闕里圖, 華城闕里圖三幅, 中國與東國之闕里圖 등을 포함하고 있다.[圖24] 다음으로 「聖像魯司寇時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이며 그 다음은 「朱文公像」이다. 朱熹를 列入『魯城闕里誌』 속에 집어 넣었으며 다음 책을 위해 서막을 열었다. 本書 맨 마지막에 「刊誌有司錄」라는 글이 있는데 편찬 위원의 직함과 성명이다. 예를 들면 都有司 李鶴

35) 曲阜孔廟는 孔子를 제사 지내는 本廟이다. 元､明 시기에 재건하기를 수십 차례에 이르렀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축은 明 孝宗 弘治12年(1499) 때이다. 孔廟가 벼락으로 화재가 났다. 보수 수리는 오 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弘治17年에 마쳤다. 『闕里誌』는 다음 해에 편찬되었다. 朝鮮時代에 孔子履歷文獻는 대부분 본 책을 추종한다.

運, 掌貨 : 金在龍이며 또한 校正, 司書, 監印, 齋任 等 職務 하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이다.

(3)『魯城闕里祠新安誌』(TK 1422 1149.2)

1冊이며 上下로 나누어져 있다. 昭和11年(1936)에 복각하여 발행했다. 序가 없으며 跋은 두 편 있다. 첫 번째는 林準相의 「新安誌跋」이다. 문 끝에 「崇禎元後四庚申(哲宗,1860)菊月(9月)上澣(上旬)通訓大夫行魯城縣監林準相謹跋」라고 적혀 있으며, 때는 淸朝 咸豊年間이다. 문장은 본서는 공자이후 대유학자 주희의 가계, 전승, 제자, 및 중국과 동국의 사당 형식 및 예의에 대한 기록이며 널리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여 완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朴炳文의 「新安誌跋」이며 문장이 대단히 길다. 全書는 真像으로 시작되며 이어서 東國에 사묘가 건설된 내용과 聖朝教授 및 先賢의 事蹟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첫머리에서 설명하고 있다. 崇禎紀元后四庚申(哲宗,1860)秋에 魯城闕里祠에서 편집 간행되었다. 다음으로는 正祖時期에 咸昌縣新安書堂은 원래 동시에 孔,朱二夫子의 초상을 섬겼는데, 正祖16年 辛亥(1791)해에 孔夫子는 闕里祠 영전으로 옮겨졌고, 朱夫子만 書堂에 남겨졌다. 후에 주자는 魯城闕里祠로 옮겨져, 다른 성현들의 영정과 함께 섬겨졌다. 본서는 주자는 공자의 학문을 계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東國人은 孔子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자를 중시한다고 했다. 朱子의 『新安誌』는 闕里祠에서 간행되었는데 단지 新安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闕里도 중시했기 때문이다. 孔子는 周나라 말기에 태어났다. 春秋를 썼으며, 尊攘에 대해 엄격했음으로 이에 천하 만세의 경법을 가르쳤다. 朱子는 宋末에 태어났으며, 孔子之道가 다시금 세상에서 큰 빛을 얻도록 하였기에 주자의 지위를 공자와 나란히 두었다. 이 문장은 『魯城闕里誌』에 있는 宋觀洙의 後跋과 같음으로 아마도 朴炳文의 「新安誌跋」는 宋觀洙「敬書魯城關里誌後」를 인용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본서는 유학자들은 자손들은 史誌를 계속 편찬하려고 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哲宗10年 己未(1859)해에 앞뒤로 『闕里誌』와 『新安誌』를 발간했다. 당시 규

모는 백여 첩을 넘지 않았다. 朴炳文은 闕里祠에서 都有司로 임직했기 때문에 간행한지 10年 후, 高宗5年 己巳(1869)에 두 책을 복간했으며 高宗10年 癸酉(1873)해에 끝마쳤다. 책이 성행하자 유학계는 영광에 물들었다. 正祖辛亥(1791)년에 孔子, 朱子는 新安書堂에서 闕里로 옮겨졌고, 高宗癸酉(1873)해에 두 책의 복간이 끝났으니 족히 「七十有餘年」이 지난 것이다. 作者 朴炳文은 奉安의 沿革과 略歷을 상세히 설명했다. 문 끝에는 「闕逢(甲)奄茂(戊)仲夏(6月)下澣(下旬)後學務安朴炳文跋」라는 문장이 있으며, 高宗 甲戌年(1874) 때의 일이다.

東國은 孔子의 闕里를 언급하면서 왜 동시에 주자를 논하는가? 사실 중국에 文公闕里가 있으며, 朱熹와 孔子의 關係는 밀접하다. 北宋 寧宗慶元元年(1195)에 外戚 韓侂胄는 결당하여 丞相 趙汝愚를 무너트렸다. 朱熹와 그의 당파 사람들은 趙汝愚의 朋黨에 의해 비난을 받았고, 朝廷은 道學과 朱熹 等 창도자들을 「僞學逆黨」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퇴출하여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게 했다. 역사는 이를 「慶元黨禁」이라고 했다. 朱熹는 만년에 사망의 그림자에 처해있으면서 「오늘도 머리가 평소처럼 목에 붙어 있다(某今頭常如黏在頸上。)」라는 말을 자주 했다. 慶元6年(1200) 3月 初9日(4月23日)午時에 朱熹는 建陽 考亭滄州 精舍에서 병으로 죽었다. 향년 69歲였다. 9年 後에 朱熹는 존중을 받기 시작했으며 嘉定2年(1209)에 황제는 「文」이라는 시호를 그에게 내렸고 후세에 이 때문에 朱文公이라 불렀다. 寶慶3年(1227)正月己巳 때에 宋理宗은 조서를 하달하며 : 「짐이 주희가 集註한 大學, 論語, 孟子, 中庸 등을 살펴보니 성현의 오묘한 도를 발휘하고 있으며, 治理의 도가 있음을 알겠다, 짐은 강학에 뜻을 모아 힘쓰며 법도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주희 태사를 信國公에 책봉한다.(朕觀朱熹集註大學、論語、孟子、中庸, 發揮聖賢蘊奧, 有補治道。朕勵志講學, 緬懷典刑, 可特贈熹太師, 追封信國公。)」라고 말했다. 후에 徽國公으로 바꾸어 책봉했으며 孔子廟에 종사(從祀)되었다. 明朝 때는 先儒朱子라고 불리웠고, 崇禎15年(1642)에 황제는 조서를 내려 七十二인 제자 아래 漢唐 때의 유학자들 위에 두었으며, 大賢朱子라고 불렀다. 淸 康熙51年(1712)에 詔升大成殿에서 配享의 자리는 孔門十哲 다음에 있었다. 徽州 婺源縣城에는 文公廟(文公闕里)를 지어 朱熹에게 제사했다. 徽州 篁墩村(今安徽黃山市)에 程朱三夫子祠와 程朱闕里

坊을 지었다. 闕里는 魯의 曲阜 땅이며, 春秋時 孔子가 머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石闕 두 개가 있어서 이 이름을 얻게 되었다. 후에 나타난 誌는 이 지명으로 공자를 묘사했으며 明 弘治 때의 闕里誌는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책명이다. 후대에 주자를 지칭할 때 先儒大賢인 朱熹가 머물며 학생을 가르치던 장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朱子闕里라고 불렀다.36)

『魯城闕里祠新安誌』는 공자에게 제사 지낼 때 같이 배향 받는 주자를 논하고 있다. 후세에는 주자를 추앙하기 위해서 史誌를 편찬하게 되었다는 동기와 연혁 및 약력을 논하고 있으며, 朴炳文은 「新安誌跋」에 상세히 서술했다. 본서는 주자의 가족사이며 上下冊의 目錄으로부터 전문의 개요를 알 수 있다.(뒤에서 상세히 언급함)。권두에는 朱文公의 畫像圖 한 폭이 있으며 池光翰의 像와 跋이 따르고 있어, 그림이 공들여 제작된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은 가족 사당에 소장되어 있으며, 문공이 61세 때 그려진 초상화이다.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고 화공은 그의 초상화를 권두에 둔 것은 존경의 뜻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문공의 초상화 뒤에는 「考亭紀」가 있다. 그 뒤로 설명을 덧붙인 圖版 몇 폭이 있으며,첫 번째는 「晦菴陽基圖」이다. 註에서 말하기를 : 「韋齋先生은 이곳의 자연을 좋아하여 이곳에 거처하고자 했으나 결과가 없어서, 문공은 선지를 받들어 이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韋齋先生愛此山水, 恒欲卜居未果,文公奉先志居遷居此地。)」라고 했다. 다음은 「文公塋墓之圖」인데, 註에서 말하기를 : 「先君의 무덤은 建陽縣 嘉禾里唐石의 수풀이 우거진 계곡에 있으며龍居라는 이름을 붙였다. 後塘의 九頓峰 아래에는 바람이 불면 나대 모양을 하고 있다. 宋 慶元 六年十一月壬申에 蔡元定(주자의 학생)은 先君을 이장하였는데, 처음에는 이곳을 보지 못했다. 밤에 꿈에서 신선을 만났는데 龍居後塘을 알려주었으며, 이곳에 가보니 과연 後塘이었다. 오늘날 七世孫金禹在被가 거주하며 지키고 있다. 婺源奉祠, 八世孫 湛이 글을 썼다.(先君塋墓在建陽縣嘉禾里唐石之大林谷地名龍居, 後塘九頓峰下, 風吹羅帶形。宋慶元六年十一月壬申, 蔡元定(按朱之學生)遷葬先君, 初未遇此地, 時夜夢神人, 報云龍居後塘, 既得此地, 果後

36) 朱子闕里과 관계된 역사는 維基百科 「朱熹」편 참고. https://zh.wikipedia.org/(…)E7%86%B9 (2021.10.20)

塘也。今七世孫金禹在被居住看守, 婺源奉祠, 八世孫湛謹識。)」라고 했다. 그 다음은 「文節公塋墓圖」이며 註는 말하기를 :「墓는 綾州牧 東北五里 連珠山 아래에 있으며, 地名은 懷德洞이라고 했다. 高麗忠烈王, 十三年, 丁亥해에 公은 壁上三韓三重大匡知都僉議府事로서 나이를 핑계로 은퇴하기를 요구했다. 이 해 十月, 壬子에 죽어 이곳에서 장사를 지냈다.(墓在綾州牧東北五里連珠山下, 地名懷德洞, 高麗忠烈王十三年丁亥, 公以壁上三韓三重大匡知都僉議府事引年乞退, 是歲十月壬子卒葬於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道學統宗之圖」이며 가계도표이다.

『魯城闕里祠新安誌』는 일제 강점기 昭和11年(1936)에 제작된 복간본이다. 책 끝에 「重刊有司錄」라는 말이 적혀 있으며 첫 행에는 「都有司 前參奉 朴炳文 仝金斗植」라는 글이 있다. 그 다음 행에는 「總務 前參奉 朱燦馨 校正 李麟鎔」라는 글, 또 다음 행에는 「總裁 前參奉 孔在周 仝權洪圭」라고 적혀 있으며, 계속 이와 같은 형식의 문장이 나타나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 같다. 겉 표지 밑에는 판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圖25]

(4)『先聖闕里圖』(TK 1787 1660.1)

序와 跋이 없으며 全書는 모두 34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페이지는 聖像에 대한 설명이며, 나머지 지면은 모두 그림이다. 全書의 편차는 아래와 같다. :

> 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聖像(按 : 句解)、先聖行教小影顔子從行、凭几像、乘輅圖、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魯國圖、防山、顔母山尼山相對、尼山顔母山相對、孔林圖、宋闕里廟制、金闕里廟制、國朝闕里廟制、新廟圖一、圖二、圖三、禮器圖、樂器圖、舞佾圖。

첫 페이지 첫 줄은 「聖蹟圖」라는 표제이며, 아래 쪽에 작은 글자로 「皇明闕里志圖本」라고 적혀 있다. 편찬자는 聖人의 가족사를 설명한 「闕里圖」와 「聖蹟圖」를 연결하였다. 「聖蹟圖」라고 칭하는 圖像은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 공자의 성상과 제자들이 대동한 그림(孔子聖像與弟子陪侍像) ; [圖26] 둘, 魯國圖, 防山, 顔母山, 尼山, 孔林 等의 地圖 ; [圖27]셋, 배향 배위에 관한

宋, 金, 明의 闕里廟制에 관한 新廟三圖 ; 넷,예약 제도에 속하는 禮器圖, 樂器圖, 舞佾圖[圖28]. 이 그림들은 明代 張鎬의 『闕里志』圖版에서 온 것이며, 明代 張楷가 편찬한 『聖蹟圖』와는 무관하다.

다음으로 「聖像」은 「魯司寇像」을 선택하였다. 작은 글자로 된 註는 「紅玉, 綠簪, 黃纓,紫褐裘」라고 써 있는데 聖像에 색을 입히는 표준 규범인 것이다. 첫 페이지 「聖像」에 대한 주해로 돌아오면 인용구「先聖은 살아 특별한 용모를 갖고 있었는데 키는九尺六寸이며 허리는 十圍만큼 크다.(先聖生有異質長九尺六寸腰大十圍)」라는 문장이 있는데 작은 글자로 된 註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出祖庭廣記。又云先聖凡十九表, 反首, 洼面, 月角, 日準, 手握天文, 足履度字, 或作王字, 坐如龍蹲, 立如鳳峙, 望之如仆, 就之如升, 耳垂珠庭。龜脊, 龍形, 虎掌, 胼脅, 參膺, 河目, 海口, 山臍, 林背, 翼臂, 斗唇, 注頭, 隆鼻, 阜脥, 堤眉。地足谷竅, 雷聲澤腹, 昌顔, 均頤, 輔喉, 駢齒。眉有一十二采, 目有二十四理。其頂似唐堯, 其顙似虞舜, 其項類皐陶, 其肩類子產。自腰以下, 不及禹者三寸, 胸有文曰 : 制作定世符。今家廟所藏畫像, 衣燕居服, 顔子從行者, 於聖像最真。

전체 문장은 孔子의 모습에 대한 글과 주해이다. [圖29]취지는 앞 『新刊素王事紀』에서 보이는 聖像에 대한 주해와 서로 비슷하다. 비교를 통해 『新刊素王事紀』에서 보이는 성상에 대한 長篇의 해설과 본서에서 보이는 성상에 대한 짧은 해석은 상세함과 간결함에 있어서 다름으로 두 문장은 계승 관계가 없는 것 같다.

『先聖闕里圖』는 朝鮮 哲宗10年 己未(1859)해에 原刻이 만들어졌고 光武9年(1905)에 복간되었다. 高宗은 朝鮮王朝 末期에 現代化를 추진했는데, 연호를 바꾸어 光武(1897)라고 하여, 光武改革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조선에서 유학을 중시하는 풍조는 光武現代化改革에 의해 수그러들지는 않은 것 같다. 聖人典籍을 복간하는 사업은 향리의 하부계층에서 여전히 추진되고 있었음을 본서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된「京鄕約所重刊」,「光武九年四月 日」라고 쓴 글을 보면 알 수 있으며 또한 관료의 명부를 봐도 알 수 있다.

約 長 : 前承旨 鄭寅燮
前都事 鄭殷采
前議官 鄭在錫
前監役 尹震求

(5) 『闕里誌』(TK 1788 7270)

3卷3冊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문이 보인다. 서문 끝에는 「闕逢(甲)困敦(子)陽月(11月)辛巳(18日)月城, 崔鉉弼이 삼가 서를 씀(闕逢(甲)困敦(子)陽月(11月)辛巳(18日)月城崔鉉弼謹序)」라는 글이 있다. 뒤에는 跋 두 편이 있으며, 하나는 「泗水齋記」이며 끝에 「闕逢困敦乾(4月)之上浣(上旬)月城, 崔鉉弼謹記」라는 문장이 있다. 또 하나는 「識」인데 끝 부분에 「夫子七十四世孫, 鎣杓이 글을 씀(夫子七十四世孫鎣杓謹識)」라는 글이 적혀 있다. 세 편의 序와 跋의 內容에서 本書는 大正13年甲子(1924)해에 李燮宰이 편찬 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東國이 편찬한 『闕里誌』의 내용이 가장 완벽하다. [圖29]비록 일제강점기에 인쇄되었으나 자료 수집에 있어서 근거가 확실하여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우선 「闕里誌序」는 崔鉉弼이 大正13年甲子(1924)해에 지은 것이다. 첫 페이지에 『闕里誌』는 皇明弘治17年甲子(1504)해에 陳鎬가 명을 받들어 다음 해에 편찬했음을 설명했다. 半世紀 후에, 朝鮮 宣宗時期(1567-1608)에 中國使節이 一本 十冊을 갖고 들어왔고, 「공자의 六十四世孫 文獻公 瑞麟의 후손에게 하사하라고 명했으며(命賜夫子六十四世孫文獻公瑞麟之胄孫)」, 東國에 유전되기 시작했다. 孔子의 思想과 言行을 기록한 책은 여러가지 있으나 闕里誌는 가족사의 원류를 다른 책보다 더 상세히 싣고 있다. 『闕里誌』는 李燮宰에 의해 광명을 맞이 하였고, 東國의 事蹟을 첨가하여 세상에 전해졌다. 그러나 단지 誌만을 편찬하여, 간행본은 널리 퍼지지 않았다. 공자의 七十四世孫인 孔鎣杓이 중국에 들어가 曲阜와 합쳤다. 聖像을 받들어 돌아가 靑嶺里之道統山 아래, 泗水 위에 묘를 세우기를 청했으며 士林들이 모두 동의를 했고 이 때문에 영향은 널리 미치게 되었다.

본서의 출현은 皇明儒學의 후손들이 맥을 이어 東國에 전하여 도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소는 曲阜闕里가 아니더라도 명실상부한 闕里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本書는 명대에 편찬한 『闕里志』에서 자료를 가져왔고 거기에 東國의 紀事를 집어 넣었다. 내용이 번잡한데 三卷의 目錄에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卷一은 聖像, 地理, 廟制와 禮樂制度 等 의 그림(圖版)을 포함하고 있다. 卷二는 孔子姓氏, 世系, 年譜, 封諡, 墓宇, 杏壇 및 弟子列傳 등을 다루고 있다. 卷三은 獻像, 學政, 廟祠, 祀祝 等의 법제 또는 사적을 담고 있으며 거기에 東國孔氏本誌 및 봉록의 은택을 더하였다. 第三冊 후반부는 孔明烈의 東國闕里誌로 연결되었다.

目錄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闕里誌卷一 圖像」이며, 첫 페이지에 「聖像」에 대한 인용문 「先聖生有異質長九尺六寸腰大十圍」과 작은 글자로 된 註文이 있는데, 공자의 외형에 대한 주석이다. 내용은 『先聖闕里圖』와 완전히 일치하며, 版型도 같다. 그러나 글자체가 다소 다르다. 두 책자는 동일한 판본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圖30] 「聖像」다음의 圖版에 대해서 말하면, 目錄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며 아래는 실제 도판에 따라 열거한 것이다.

先聖行教小影(顔子從行)、凭几像、乘輅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朱文公像、魯國圖、防山、顔母山(尼山相對)、尼山(顔母山相對)、孔林圖、宋闕里廟制、金闕里廟制、明朝闕里廟制、新廟圖一-圖三、李朝魯城闕里廟制、華城闕里廟制、影殿圖、禮器圖、樂器圖、舞佾圖。

이 圖版들은 『先聖闕里圖』와 일치하며, 「聖蹟圖」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朱文公像」에 있는데, 「朱文公像」을 聖像의 뒤에, 地圖의 앞에 두었다는 것이다. 『闕里誌』는 朱文公에 대한 내용을 첨가했으며 이는 東國의 性理學大儒를 존경하는 것이며 주자가 성인공자의 후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圖31]

本朝英廟辛亥, 因聖教奉來咸昌縣新安書堂所奉聖像及宋朝五賢畫像于魯城闕里祠。時

嶺伯洪檍以聖像移奉之後, 朱子遺像獨留書堂, 事體未安之意, 啓聞傳敎內城闕里祠, 取其名義。則意雖不符於朱子, 然其在師弟之義, 一體移奉可也爲敎。以祠宇之狹隘, 未即升配, 權安于櫝中, 後純廟乙丑, 廣其祠宇而配享焉。

英祖9年 辛亥(1731)해에, 新安書堂에서 모신 孔子聖像과 宋朝의 五賢畫像을 魯城闕里祠로 옮겼다. 함께 섬겨졌던 주자의 초상화는 서당에 남겨졌다. 그 당시 洪檍公은 闕里祠로 모셔 섬겨야 한다고 제의했다. 70年 후 純宗6年 乙丑(1805)해에 魯城闕里祠를 증축하여 주자를 孔子와 배향하였다. 「朱文公像」에 대한 설명은 朴炳文이 高宗甲戌(1874)해에 편찬한 「新安誌跋」와 서로 같다. 이는 李燮宰이 取用『魯城闕里祠新安誌』에서 보이는 朱熹가 魯城闕里에 배향되는 과정을 발췌하여 東國闕里誌에 수록, 또한 「朱文公像」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공자의 가계에 속하게 되었다.

書 끝에는 跋이 있어서 편찬동기 및 개요를 엿볼 수 있다. 第一跋은 崔鉉弼이 지은 「泗上齋記」인데 崔鉉弼은 前序와 後跋을 써서, 완전하게『闕里誌』의 編撰動機를 설명했으며 또한 孔紹는 고려왕조 때 노국 공주가 공민왕과 혼인하여 고려에 갈 때 따라왔던 공자의 후손이며, 후에 돌아가지 않아 고려의 공자 제 일대 후손이 된 것과 그후 후손이 번성했다는 일, 그리고 공자 후예가 曲阜에 가서 공묘를 참배했으며 夫子의 초상화와 孔廟의 靈蓍百莖 증여 받았고, 동국으로 돌아가 묘를 세워 위패를 모신 과정들을 서술했다. 崔鉉弼은 孔鎣杓의 부탁을 받아 글을 썼다고 말했다. 孔鎣杓는 孔子의 七十四世孫이며, 朝鮮高宗5年(1868)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昭和8年(1933)에 죽었다. 두 번째 跋은 孔鎣杓 「識」이다. 앞의 사건에 대해 요약하고 보충했다. 大正13年甲子(1924)해에 쓰여진 崔鉉弼의 序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 연경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善本인 공자 이력 문헌, 후대에 복간된 것들은 계산에 넣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李燮宰이 편찬한『闕里誌』는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闕里誌」이며, 다섯 종류의 선본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明 弘治 때 陳鎬가 편찬한『闕里志』의 정수을 따왔으며, 앞 네 가지 책의 체례를 모방하였고 東國의 史實을 첨가했으며, 또한 朱文公像을 집어넣

어 闕里誌에 대한 해석범위를 확대하였다. 孔子闕里誌를 集大成한 한국의 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孔子의 聖蹟圖

필자는 燕京圖書館善本室에서 세 종류의 서적을 열람했으며, 아래에 이 책들에 대해 언급하겠다.

(1)『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TK 1787 1660.31)

本書 권두에는 金正穆의 序가 있으며 , 序 끝에는 「甲子(1924)重刊」라는 네 자가 적혀 있다. 序文은 편찬동기에 대해 분명히 설명했다. 聖人을 흠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경전을 존중함이 君師를 대함과 같다. 그러나 성인의 사적, 품성의 특징,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모습, 출타 시의 儀軌에 대해서는 막연하여 알지 못하니, 본서를 편찬하겠다는 동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자의 그림들을 보면 마치 성인의 집에 들어간 것 같고 성인의 방에 들어간 것과 같다. 또한 70인 제자와 더불어 물러나고 들어가는 것 같고, 좌우를 선회하며, 지팡이를 잡거나, 차 탁 앞에 앉는 것과 같다. 먼저 道統源流를 서술했고 끝에는 東儒淵源를 덧붙여 책을 완성했다. 全書에는 두 개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하나는 「孔子聖蹟圖」이며 또 다른 하나는 「聖學淵源儒林錄」이다. 권두에는 「序」와 「道統源流圖」가 있고 그 뒤로는 「聖蹟圖」가 있다. 圖版는 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先聖行教小影(顔子從行)、凭几像、乘輅像、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魯國圖、尼山(顔母山相對)、新廟圖一、圖二、圖三、禮器圖、樂器圖、舞佾圖。

「道統源流圖」를 게시한 후, 서명인 「聖蹟圖」에서 보이는 작은 글자로 쓰인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母本은 明代聖蹟圖가 아니고, 「皇明闕里誌圖本」이다. 몇 가지 聖像 뒤에는 地圖類의 「魯國圖」, 「尼山圖」가 있으며 또한 孔廟의 조감도인 세 가지 「新廟」圖 및 예악제도에 속하는 「禮器圖」, 「樂器圖」, 「舞佾圖」가

있다.[圖29] 孔子의 초상들에 대해서 말하자면,「聖像」의 뒤에 있는 「魯司寇像」에는 (佩紅玉綠簪黃纓穿紫褐裘)라는 주가 달렸는데, 공자 초상화에 색을 입히는 기준으로 보인다. 또한 첫 페이지의 「聖像」에는 「先聖生有異質長九尺六寸腰大十圍」라는 글과 小字의 註解가 있다. 本書의 첫 부분은 「孔子聖蹟圖」內容이며 앞에서 언급한 『先聖闕里圖』와 완전히 같다. 이는 『先聖闕里圖』를 母本으로 했기 때문이다.

本書의 두 번째 부분은 「聖學淵源儒林錄」이며, 내용은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東方聖學源流圖, 文廟大成殿從享圖, 啟聖祠, 釋奠饌品, 東方儒林淵源錄, 補遺 등이다.

필자는 「東方聖學源流圖」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檀君에서 시작해서, 彭虞를 거쳐 箕子에까지 이르며, 그 밑으로 薛聰, 崔致遠, 金良鑑, 崔沖, 安裕(…)이하는 支派를 나누었으며, 뒤로는 李穡, 金宗直, 李滉, 李珥, 宋時烈, 權尙夏, 吳熙常, 洪直弼, 宋秉濬, 田愚 等 東國大儒들이 있다. 그 뒤로는 「東方儒林淵源錄」이며, 유학자에 대해 소개하는 小傳樣式이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薛　聰 : 字聰智新羅神文王時人以方言解九經又製吏文高麗顯宗時封弘儒侯從祀文廟
> 崔致遠 : 字海天號孤雲沙梁部人十二歲入唐登制科二十八東還無意進取放迹山水林泉隱于伽倻山不知所終高麗顯宗時封文昌侯從祀文廟

두 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上欄은 姓名을 ; 下欄은 字號와 책봉 시호를 간단히 소개했다. 薛聰에서 시작해서 宋秉濬, 田愚에서 끝난다.「東方儒林淵源錄」과 앞에서 인용한「東方聖學源流圖」는 동원 인원이 같으며 모두 108 명이다. 뒤로는 또 「補遺」가 있으며 소개서는 비교적 짧다. 「補遺」는 黃喜에서 시작하여 洪履祥, 朴趾源, 丁若鏞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宋啟軒에서 끝난다. 모두 94명이다. 책의 뒤 표지 안쪽은 판권에 관한 기록이며, 현대적인 출판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圖32]

(2)『續修聖蹟圖後學錄』(TK 1787 1660.2)

두 권의 책이 같은 색인 번호를 갖고 있으며, 第一本은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의 복간본이다. 모두 鄭殷采, 金正穆가 편찬한 것이다. 序文은 모두 金正穆이 大正6年(1917)에 쓴 것이며 두 서문은 다소 틀린 부분이 있다. 본서의 페이지에는 격자선이 없는데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에는 격자선이 있어, 『續修聖蹟圖後學錄』의 확대 본임에 틀림없으며, 大正13年 甲子(1924)해에 복간되었다. 序 뒤에는 「道統源流圖」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 및 聖像에 대한 註解가 있다. 이하는 圖版이며 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先聖行教小影(顔子從行)、凭几像、乘輅像、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魯國圖、防山、顔母山(尼山相對)、尼山(顔母山相對)、孔林圖、宋闕里廟制、金闕里廟制、國朝闕里廟制、新廟圖一、圖二、圖三、禮器圖、樂器圖、舞佾圖。

圖版은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와 비교해서 많이 존재한다. 본서의 두 번째 부분은 「東方聖學源流圖」과 같다. 「東方儒林淵源錄」은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와 비교해서 동원 인원 많다. 모두 123명이다. 「補遺」는 똑같이 94명이다. 「東方聖學源流圖」는 내용이 상세하고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는 내용이 간단하다.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는 「甲子重刊」이니, 분명 나중에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간행된 것이 더욱 상세하니 복간된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는 부분적인 삭제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續修聖蹟圖後學錄』의 第二本은 序가 없으며, 「道統源流圖」도 없다. 첫 페이지는 「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 및 聖像에 대한 註解」이며 뒤로는 단지「先聖行教小影顔子從行」, 「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 등 세 폭의 圖版만 있다. 이외에 전문은 「後學錄」의 淸冊이며,첫 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모든 페이지에는 좌우 공란이 있으며 모든 공란에는 적게는 다섯 명, 많으면 열 명에 대한 기록들을 적어 두었으며 모두 천 명쯤 된다. 鄭殷采부터 시작해서, 朴基英, 趙敬植, 張赫, 卞容圭,(…)柳文熙, 柳光熙, 李德基 등이 출현하고, 徐丙周에서 끝을 맺는다.

필자의 주의를 끄는 것은 두 권의 書名은 모두 明代에 편찬한 공자의 행적

도 「聖蹟圖」에서 왔다는 것이다. 이 세 권의 책을 살펴보면 앞 두 종류는 비록 여러 종류의 공자와 제자들의 초상화를 실었고, 地圖, 공묘건축 및 예악제도 등 물건의 그림을 실었지만, 그러나 공자의 평생 행적을 보여주는 「聖蹟圖」를 계승한 것은 아니다. 이 세 권은 명확한 취지가 있었으며, 그것은 聖學의 淵源 및 儒林後學에 대한 전기적인 기록이다.

(3) 『孔夫子聖蹟圖 續修五倫行實圖』(TK 1787 1660.32)

이 책은 가장 늦게 나온 책이다. 大正15年(1926)에 鄭成默이 편찬했으며 현대적인 출판물이다. 단지 聖像圖 한 폭만 실었다. 서명에서 보이는 「聖蹟圖」가 없으며, 「五倫行實圖」도 없다. 全書는 얇은 一冊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 아홉 명의 忠賢의 성명과 일생, 그리고 현숙한 여성 열 두명의 이름과 일생만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명실이 상부하지 않은 이유는 題文에 있어서 장가의 갓을 이가가 쓴 것인지 혹은 잘못하여 빠트린 것인지 고찰이 필요하다. 본서는 일제강점기에 京城先聖廟事務所가 편찬한 것이다. 방대한 조직인 「京城先聖廟」 編輯委員會는 都約長(創立約長), 約長, 編輯部長, 事務約長, 有司 等 인원은 164 명에 달한다. 책 뒤 표지 안 쪽은 판권에 대한 내용이며,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圖33]

4. 韓國 孔子 履歷圖誌의 特色

1) 「闕里誌」를 중심으로

위의 고찰을 통해 한국의 孔子履歷圖誌는 대체적으로 中國의 刊本을 초고로 삼아 권수가 많은 명대 간행본의 정수를 뽑아내어 간결한 간행본으로 제작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孔子通紀』, 『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 等이다. 陳鎬의 『闕里志』에 李東陽은 서를 달며 : 「『孔氏實錄』, 『孔庭纂要』, 『素王事記世家』로 초본을 보충하여 만들었다(以『孔氏實錄』、『孔庭纂要』、『素王事記世家』補鈔本致之, 以備采擇。)」라고 말하며 『素王事記世家』를 언급했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이 책이 보이지 않는데 朝鮮時代에 편찬된 『新刊素王事紀』는 중국의 것을 초고로

삼았는지 혹은 한국이 스스로 편찬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新刊」이라는 두 글자는 그 책의 문헌적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 하나는 中國의 素材를 東國의 事蹟에 추가한 것도 있다. 『東國闕里誌』, 『魯城闕里誌』,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은 韓國이 편찬한 孔子履歷文獻을 「編年紀事」,「闕里誌」, 「聖蹟圖」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토론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이 책들은 사실 明 弘治十八年(1505)에 陳鎬가 편찬한 十三卷짜리 『闕里志』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간행본들은 모두 이 책으로 소급되고 또는 작은 글자로 쓴 주 : 「皇明闕里志圖本」라는 글자에서도 陳鎬의 책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 陳鎬가 편찬한 『闕里志』는 孔子의 고향, 법도 및 그의 평생 事蹟을 전문적으로 기록한 綜合史志이다. 後世에는 차례로 증보본이 나왔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아마도 화재 후의 曲阜孔廟를 재건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曲阜孔廟는 공자에게 제를 드리는 本廟이며, 공자의 고향인 山東曲阜城에 위치하고 있다. 또는 「闕里至聖廟」라고 칭하는데, 魯 哀公17年(478B.C.)에 지어졌으며 증수와 확장을 거쳤다. 2400 여년이 중국에서 淵源이 가장 오래되고 역사가 가장 긴 건축물이며 국내외 수많은 孔廟의 先河이다. 나란히 인접한 孔府, 城北孔林을 합쳐서 「三孔」이라 부른다. 元, 明 때 孔廟는 수십 차례 개축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明 孝宗 弘治12年(1499)에 이루어진 개축이다. 당시 孔廟는 벼락을 맞아 大成殿等 120餘 기둥 건축물은 재가 되었다. 개축은 모두 5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弘治17年(1504)에 끝이 났다. 『闕里志』는 다음 해(1505)에 완성되었다.[37]이 책은 마치 신성한 규범의 이정표 같았다. 李燮宰이 편찬한 『闕里誌』에서 알 수 있는데, 明 弘治年間에 陳鎬가 명을 받들어 편찬한 것이다. 半世紀 후에 朝鮮 宣宗時期(1567-1608)에 中國 使節단이 一本十冊을 갖고 들어 왔으며,「夫子六十四世孫 文獻公 瑞麟의 후예에게 하사하도록 했다.(命賜夫子六十四世孫文獻公瑞麟之胄孫)」 東國에 유전되기 시작했다. 朝鮮時代에 編纂한 孔子履歷文獻은 대부분 이 책을 추종했다.

37) 曲阜孔廟는 維基百科를 참고. https://zh.wikipedia.org/wiki/(…)E5%AD%94%E5%BA%99(2021.10.20)

하버드 연경 도서관에는 14種의 孔子履歷文獻을 소장하고 있는데 「闕里誌」는 다섯 종류가 있다. 궐리지라는 이름으로 쓰인 책은 『東國闕里誌』, 『魯城闕里誌』, 『魯城闕里祠新安誌』, 『先聖闕里圖』, 『闕里誌』 등이다. 그 중에서 朝鮮의 稀珍文本인 『東國闕里誌』가 대표적이다. 序와 跋은 본서의 編撰動機, 要旨, 過程, 體例, 蒐採, 人力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책은 明代 陳鎬의 『闕里志』를 계승하였고, 또한 東國의 역사적 사실을 보충했다. 本書는 舊新二誌를 합쳐 하나로 통일 시켰다. 모금을 거쳐 간행을 하는 데까지는 3年이 걸렸다. 두 편의 서문은 짙은 정통의식을 갖고 있다. 「闕里誌後序」는 명대의 년호로 해를 기록했다. 즉 : 「崇禎紀元後四己亥」. 또 다른 발문은 春秋로 해를 기록했다. 즉 : 「春秋獲麟後兩千三百二十年己亥」. 서와 발의 문장은 朝鮮 憲宗6年 己亥(1839)해에 東國에 거주하는 공자의 후손 孔明烈이 쓴 것인데 春秋와 明의 王室正統을 잇겠다는 의식이 선명하다. 가장 늦게 완성된 李燮宰의 『闕里誌』는 弘治 때의 『闕里志』의 정수를 취하였고, 그전 책들의 體例를 모방하였으며, 東國史實을 삽입하였고, 또 朱文公의 초상을 덧붙여 闕里誌의 範圍를 확대했다. 한국 孔子闕里誌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2) 「闕里圖」와 「聖蹟圖」의 중첩

「闕里誌」는 韓國에서 孔子履歷文獻의 核心이어서, 그림(圖版)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魯城闕里誌』를 예로 들면, 권두의 圖版에는 中國의 「曲阜闕里圖」와 東國의 「魯城闕里圖」및 「華城闕里圖」 등 두 종류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聖像魯司寇時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이 있고, 그 다음에는 「朱文公像」이 있다. 本書는 문지기록을 중심으로 하였고 圖版은 단지「闕里圖」와 「聖像」 두 가지를 선택했다. 『先聖闕里圖』는 모두가 圖版이며 첫 페이지 첫 줄은 「聖蹟圖」라고 쓴 표제이다. 아래 쪽에는 작은 글자로 된 註가 있으며 「皇明闕里志圖本」라고 적혀 있다. 편차는 다음과 같다.

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聖像、先聖行教小影(顔子從行)、凭几像、乘輅圖、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魯國圖、防山、顔母山(尼山相對)、尼山(顔母山相對)、孔林

圖、宋闕里廟制、金闕里廟制、國朝闕里廟制、新廟圖一、圖二、圖三、禮器圖、樂器圖、舞佾圖。

도상들은 다음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 공자의 성상과 제자들이 대동한 그림(孔子聖像與弟子陪侍像) ; [圖26]둘, 魯國圖, 防山, 顔母山, 尼山, 孔林 等의 地圖 ; [圖27]셋, 배향 배위에 관한 宋, 金, 明의 闕里廟制에 관한 新廟三圖 ; 넷,예악 제도에 속하는 禮器圖, 樂器圖, 舞佾圖[圖28]. 등이다.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先聖闕里圖』의 圖版은 모두 陳鎬 『闕里志』의「圖像志」와 「禮樂志」에서 따온 사실이다. 「圖像志」는 崇祀像, 行教像, 司寇像, 凭几像, 乘輅像, 魯國圖, 聖廟圖, 闕里新城圖, 尼山圖, 防山圖, 孔林圖(…)等을 포함하고 있다. 「禮樂志」는 位次圖, 禮器圖, 禮器說, 陳設圖, 樂器圖, 樂器說, 樂舞圖, 奏樂位次圖, 歌章(…)等을 포함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先聖闕里圖』의 편찬자는 聖人의 가족사를 편찬한 「闕里圖」와 孔子의 행위를 서술한 「聖蹟圖」를 연결시켜 책 안에 「聖蹟圖」라는 표제를 달았다.

명 청시기에 孔子의 「聖蹟圖」는 張楷를 대표로 하는, 그림이 29幅에 달하는 版本系統과 孔聖全傳을 중심으로 한, 그림이 112幅에 달하는 版本系統이 있었다. 明 萬曆年間에 吳嘉謨 편찬한 『孔聖家語圖』는 『孔子家語』의 文字內容을 집록한 것이외에 入四十幅의 「聖蹟圖」를 새겨 넣었다. 이는 명 청시기에 공자의 평생도에 대한 편찬에 고도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先聖闕里誌』의 안 쪽은 「聖蹟圖」라는 이름으로 붙어있지만 사실 明代 張楷가 편찬한 『聖蹟圖』와 그 뒤에 나타난 후속 작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皇明闕里誌圖本」에 대해 설명하자면 「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라는 글자와 그려 새긴 圖版이 韓國의 「聖蹟圖」와 관련된 여러 서적에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韓國의 「孔子聖蹟圖」의 母本인 것 같으며 「聖蹟圖」는 「闕里誌圖本」에서 왔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筆者는 하버드 연경도서관에서 본 韓國의 孔子履歷圖인 「闕里圖」, 「聖蹟圖」 또는 「孔子家語」 등은 明代에 「闕里誌」와 「孔子家語」 두 책을 융합하여 편찬한 「聖蹟圖」와는 무관하다. 筆者는 연경도서관이 소장한 日本의 聖蹟圖, 예로 들

면 『孔子家語圖解』, 『孔子行狀圖解』는 모두 張楷의 『聖蹟圖』와 계승관계를 갖고 있다. 「聖蹟圖」는 日本 江戶時代의 출판물이다. 그때는 출판과 전파가 성행했던 때이다. (아래에서 상세히 논하겠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韓國은 일본처럼 中國 明代의 도판을 계승한 『聖蹟圖』가 있는가 없는가이다. 燕京圖書館의 소장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책이 없는 것이지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3) 「聖像」에 대한 관심

세 종류의 韓國판 孔子履歷文獻에 자주 보이는 孔子聖像에 대한 묘사는 대체적으로 明대의 간행본『闕里志』의「圖像志」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先聖行教小影顔子從行, 凭几像, 乘輅圖 等이다. 특히 吳道子가 그린 「魯司寇像」을 「聖像」으로 삼아 전해지고 있으며, 小字로 된 註가 있다. 주에는 「紅玉綠簪黃纓穿紫褐裘」라고 쓰여진 글 있는데 이 글을 서로 베껴 새겨 넣었다. 이것이 각 판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聖像에 착색하는 기준인 것이다.[圖34] 다음으로 「聖像」에 대한 해석 페이지로 가면 인용구 : 「先聖生有異質長九尺六寸腰大十圍」라는 글이 있다. 이하는 장편의 주내용이다.

> 出祖庭廣記。又云先聖凡(按 : 漏四)十九表, 反首, 洼面, 月角, 日準, 手握天文, 足履度字, 或作王字, 坐如龍蹲, 立如鳳峙, 望之如仆, 就之如升, 耳垂珠庭。龜脊, 龍形, 虎掌, 胼脅, 參膺, 河目, 海口, 山臍, 林背, 翼臂, 斗唇, 注頭, 隆鼻, 阜脥, 堤眉。地足谷竅, 雷聲澤腹, 昌顔, 均頤, 輔喉, 駢齒。眉有一十二采, 目有二十四理。其頂似唐堯, 其顙似虞舜, 其項類皐陶, 其肩類子產。自腰以下, 不及禹者三寸, 胸有文曰 : 制作定世符。今家廟所藏畫像, 衣燕居服, 顔子從行者, 於聖像最真。

앞에서 『東家雜記』에서 보이는 「오늘날 공자 家廟에서 소장하는 畫像은 공자가 평상복을 입고 안자가 수행하고 있는 그림이며 세인들은 그것을 小影이라 부른다. 聖像 중에서 가장 사실적이다.(今家廟所藏畫像, 衣燕居服、顔子從行者, 世謂之小影, 於聖像爲最真)」라는 글을 인용했다. 이로부터 中韓 인쇄본의 문자계승 관계를 알 수 있다. 孔子 모습에 대한 인용구 및 해석은, 취지에 있

어서『新刊素王事紀』와 서로 같다. 대조해 보면「聖蹟圖」의 聖像에 대한 해설은「身長九尺六寸腰大十圍」라고 하여 한 페이지 간결판이다.『新刊素王事紀』의 聖像에 대한 해설은 두 페이지에 달한다. 文字의 구조와 핵심은 간결함과 복잡함에서는 다른 면이 있지만 둘 다 공자의 후예가 편찬한『祖庭廣記』 등의 서적에서 온 것이며 후에『闕里志』에 의해 수록되었다. 이에 李東陽은 序에서「陳君은 孔氏가 소장한『祖庭廣記』를 읽었으며 더불어 비석에 새긴 글 및 책들이 기록한 내용을 열람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서 완성되었다.(陳君乃參閱孔氏所藏『祖庭廣記』與凡遺碑斷刻諸書所載, 踰年而後成。)」라고 했다. 위에서 논한 간결판의 해설은「聖蹟圖」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근세에 한국은 성인의 형상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38)

4) 其他特色

韓國의 孔子履歷文獻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특색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몇 가지 특색이 눈에 띈다. 귀납하면 다음과 같다.

(1) 東國으로 연결된 正統意識

예를 들면『魯城闕里誌』跋에서 보이는「나의 동국에는 夫子祠가 두 군데 있다. 건축을 고찰하면 魯城은 肅廟丙申에 華城은 正廟壬子에 세워졌으며, 聖朝에 道를 지키고 성인의 뜻을 기림에 극히 융성했다.(我東有兩處夫子祠, 而考其創建, 魯城則在於肅廟丙申, 華城則在於正廟壬子, 列聖朝衛道慕聖之意, 極爲隆摯)」문장에서 정통의식을 볼 수 있다. 東國으로 연결된 正統은 孔子가 일찍이 예언을 했다. 이는 마치 하늘이 부여한 사명 같다.「오늘날 神州는 망하여, 靑邱만이 피냄새를 면하였다. 그래서 공자의 浮海之嘆이 있었으니 아마도 이미 오래 전에 이를 예견한 것인가? 지금 古闕里誌를 모방하여, 본 誌를 완성하여 역사

38) 近世에 한국은 孔子「聖蹟圖」의 형상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졌다. 여기에 대해 한국학자들의 논문이 많이 있다. 曺庭六,「경상대도서관 소장 蔡龍臣의「至聖先師孔子像」연구」『南冥學硏究』66, 경상국립대 경남문화연구원, 2020; 曺庭六,「萬世師表의 表象「孔子行敎像」의 연원과 展開 과정」,『동악미술사학』19, 동악미술사학회, 2016; 송희경,「공자 유학의 형상화: 기기도(欹器圖) 연구」(孔子儒學的形象化 :「欹器圖」硏究),『동양고전연구』62, 동양고전학회, 2016.

의 사실을 갖추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하나 東魯의 위대한 사상을 알 수 있으니 어찌 행운이 아니겠는가?(矧今神州陸沈, 青邱一域, 獨免腥穢, 則夫子浮海之嘆, 殆啟就此肹蠁之前知矣歟？今欲倣古闕里誌, 而更成此誌, 以備事實, 則逖處遐僻, 不獲躬見者, 亦皆知有東魯之偉觀也, 殊非細幸？)」공자 이후에 明이 멸하고 淸이 중국을 통치하자 「신주가 무너지자(神州陸沈)」이에 東國이 傳承하는 漢儒 계파에 의지하였다. 이런 정통을 이었다는 意識은 은연중에 孔子의 履歷文獻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朝鮮時期의 東國· 魯城闕里誌에서 日帝強占期의 儒學淵源錄에 이르기까지 儒學 계파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2)朱子의 전입

韓國이 편찬한 「闕里誌」시리즈는 朱子와 孔子를 연결시켜 性理學은 儒學의 道統을 계승하였다는 논리를 공고히 다졌다. 예로 『東國闕里誌』권두에 「朱文公像」한 폭을 집어넣었다. 序에서 「옛날에 金元이 중화를 혼란케 하여 宋은 남쪽으로 천거하였다. 특별히 孔玠를 賜田承祭에 봉하였다. 이에 紫陽 사람 朱子는 聖道를 제창하였고 미개한 지역을 문이 흥성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조정의 군신은 聖人이 傳授하는 心法을 굳게 믿었으니 같은 진리이다.(昔金元亂華, 宋室南遷, 特封孔玠賜田承祭, 因之紫陽朱子, 倡明聖道, 化閩越爲鄒魯。我朝君臣上下篤信聖人傳授心法者, 同一義諦。)」라고 했으며, 『魯城闕里祠新安誌』 序는 「朱子는 繼孔子를 계승한 자이다. 朱子를 중시하는 것은 孔子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朱子繼孔子者也, 重朱子所以重孔子也。)」라고 했다. 또 다른 序는 :「夫子는 周末에 태어나 春秋를 지었고 尊攘에 엄격했으며, 이로써 萬世의 大經大法을 가르쳤다. 朱子는 宋末에 태어나 夫子의 道가 세상에 빛나게 했으니 어찌 공자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夫子生於周末, 作春秋､嚴尊攘, 以詔天下萬世大經大法, 而朱子生於宋末, 使夫子之道大明於世者, 亦豈非後孔子一人耶？)」라고 했다. 朱子와 孔子를 儒學 계파의 연계로 삼아 朱子의 거주지를 闕里라고 했다. 朱子를 孔子와 더불어 배향했으며 공자를 모방하여 朱子의 가족사를 만들었다. 이는 韓國의 孔子履歷文獻에서 보이는 뚜렷한 특색이다.

⑶日帝強占期 편찬 의미

韓國은 日帝強占期에도 많은 편찬이 있었다. 대부분이 이전의 간행본을 복간한 것이었다. 년대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先聖闕里圖』(哲宗10年己未1859原刊, 光武9年1905重刊),『孔子編年』(大正6年乙卯秋1917),『續修聖蹟圖後學錄』(大正6年1917序),『孔子實紀』(大正10年1921刊),『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大正13年甲子1924重刊),『闕里誌』(大正13年1924重刊),『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圖』(大正15年1926刊)(…)等이다. 朝鮮王朝 末期 高宗은 現代化를 추진하였는데 그 운동을 光武改革이라고 했다. 연호를 光武(1897)로 바꾸었다. 여러 종류의 간행본은 晉州硯山道統祠가 소장한 판본으로 간행되었으며 京城先聖廟事務所, 京城靑邱儒學會本部 等, 각기 다른 조직의 관료들이 복간 사업을 추진했다.

『聖蹟圖』는 朝鮮末期에 출판이 끊어진 시기가 있었다. 이는 대원군이 서원을 폐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873年에 大院君이 실권한지 오래지 않아 聖蹟圖는 대량으로 간행되어 朝鮮王朝에서의 부흥을 맞이하였다. 日帝強占期에 大量으로 聖蹟圖를 제작한 것은 아마도 유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유학을 종교로 승화하고자 한 분위기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교과서로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서 聖蹟圖를 제작했다. 이는 1904年에 孔在憲이 정교한 목판 聖蹟圖를 만들었고 동시에 한국 풍격이 농후한 鄭殷采의 聖蹟圖를 각각 25幅을 제작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39]日帝強占期에는 道統의 機構를 만들어 인력과 자금을 조달하여 聖人의 事蹟을 다시 정리하여 편찬하고 간행하였다. 이는 조선이 유학을 중시하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광무 현대화 개혁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유교 서적의 복간은 거의 향리 기저층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연구할 가치가 많다.

5. 儒家의 知識型態에 대한 해석

39) 이 논점은 註32에서 인용, 曺庭六,「韓中 孔子聖蹟圖 硏究」, 東國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2021.

筆者는 위에서 韓國의 孔子履歷文獻에 대해서 초보적인 고찰을 했다. 시간의 제한을 받아 전면적이고 상세한 연구를 하지 못했는데 내일을 기약해야겠다. 일본에 대해서 말하면, 江戶 때부터 明治 初期까지 여러 종류의 孔子履歷文獻과 간행본이 나타났다. 간행된 시간에 따라 열거하면『孔聖全書』(TJ 1075 3444),『新刻鄒魯故事』(TJ 1042 2160),『孔子家語』(TJ 1075 1130.1),『孔子家語』(TJ 1075 1152.4),『標箋孔子家語』(TJ 1075 1130.2),『孔子行狀圖解』(TJ 1075 1122),『孔子家語豕虎註』(TJ 1075 1130.7),『孔子事跡圖解』(TJ 1075 1256),『孔子集語』(TJ 1075 1120),『孔子一代記(又名大聖傳)』(TJ 1075 1721),『孔子履歷考』(TJ 1075 2644) 等이다. 日本學者 永富青地는 「『聖蹟図』在日本的伝播情況以及研究現状与課題」, 「江戶期における『聖蹟図』の出版について」, 「聖蹟圖在日本江戶時代的出版與傳播」 등을 저술했으며 또한 계몽적인 총론을 썼다.

江戶時代를 꿰뚫어보면 文之, 羅山, 山東京傳 들 초일류 지식계층 및 嘉休(住友政友), 嵩山房(小林新兵衛) 등 서점들은 모두 서민층 대상으로 전개된 유교 보급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에서 다양하게 출판된『聖蹟圖』는 의심할 여지없이 상징성이 짙은 존재이다.(貫穿江戶時代整個時期, 文之、羅山、山東京傳等超一流知識階層以及嘉休(住友政友)、嵩山房(小林新兵衛)這些富有特色的書肆都積極參與了面嚮庶民階層的儒教普及活動。在日本刊刻多種多樣的『聖蹟圖』無疑是其中最具象徵性的存在。)

作者는 江戶時期의 「聖蹟圖」의 출판과 전파에 대해 연구했는데, 필자에게 많은 연구 자료를 제공했다.[40]筆者는 앞으로 그의 연구 기초 위에 더 나아가 中, 韓, 日, 越의 『聖蹟圖』와 관련된 간행본을 비교 연구를 할 것이다.

筆者는 장기간 文人의 畫像과 문장을 고찰했다. 畫蹟에서 간행본으로 확대해 나갔고, 單幅에서 시리즈로 개척해 나갔고, 文人의 개인자료에서 履歷圖誌로 확대했다. 宦蹟圖와 履歷畫를 고찰하는 過程에서 筆者는 儒, 釋, 道는 모두 「聖蹟圖」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아마도 明 中葉이후 文士의 履歷圖形式과

40) 永富青地, 「日本江戶時代 聖蹟圖의 出版관 傳播」, 同註18, 311-338면.

문장이 나타난 원인인 것 같다. 경서에서 발췌하여 공자의 행적을 기록한 「履歷圖誌」는 『闕里志』, 『孔聖家語圖』와 『聖蹟圖』등을 포함한다. 倫理教化와 經義分析 및 傳記적인 행적에 대해 기록한, 각각 다른 원류를 갖고 있는 孔子履歷圖誌에 圖錄인 시각적 형식과 특유의 규범적 사유를 부여하여 聖人形象을 새로 세웠다. 비록 官界의 刑儀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상에 대한 물질적인 번잡함을 피하지 않았고, 지존의 공자를 聖과 俗의 사이를 넘나드는 성인으로 받들어 새로운 시선과 교훈성이 강한 유가의 지식 세계를 만들었다. 동아시아 각국에는 孔子履歷圖誌가 있다. 朝鮮時代 『東國闕里誌』, 『魯國闕里誌』, 『新刊素王事紀』, 『先聖闕里圖』등이 있으며 ; 江戶時期 『孔子家語圖解』, 『孔子行狀圖解』 등이 있고 ; 越南의 黎阮二朝『闕里合纂』이 있다. 이 서적들을 서로 참조하면 「聖蹟」을 核心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한문화권의 다른 경향이 공동으로 구축한 도상을 관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筆者는 앞으로 孔子 「履歷圖誌」를 明淸의 圖文書의 脈絡에 두며, 聖人과 經典의 구조로 이루어진 「儒家의 知識型態」에 초점을 두어 어떻게 규범을 만들었고,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으며, 경전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나아가 近世 동아시아 각국이 視覺化 수단을 통해 孔子 「履歷圖誌」 등 聖人의 가족사와 制度文獻이 언급한 함의에 대해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재정비하고 어떻게 유전되었는지를 연구하여 동아시아 유가의 지식양식을 이해하고 近世文化의 변화라는 명제에 답하고자 한다.

明清孔子履歷圖誌與韓國相關文獻考論*
—以哈佛燕京圖書館藏善本為中心—

毛文芳**

摘要

各國不乏孔子聖蹟圖之流傳，本文以哈佛燕京圖書館善本室所藏明清及朝鮮時代孔子履歷文獻為中心進行考論。全文分成兩大部份，第一部份探討明清時期幾種孔子履歷圖誌形成儒家敘述性圖畫與聖蹟典範的兩種系統，考察其既連結孔廟並賦予孔子形象聖神化的文本發展歷程。第二部份分由編年紀事、闕里誌與聖蹟圖三種系統探討14種朝鮮時代的孔子履歷文獻，以及包含著：以「闕里誌」為核心、接續正統、關注聖像與朱子置入等特色。本文透過中、韓二國孔子履歷文獻的梳理，可資觀察以「聖蹟」為核心所輻射東亞漢文化圈之異趨共構圖像，深入比較中韓兩國如何形塑典範、詮釋歷史與經典闡析，視其為聚焦於聖人與經典組構而成的「儒家知識型態」，進而尋繹東亞各國透過視覺化途徑如何形成儒家型態的知識樣式，對近世文化轉型之命題作出回應。

關鍵詞：明清 履歷圖誌 孔子 聖蹟圖 朝鮮時代 哈佛燕京圖書館.

---

* 本文承蒙高麗大學鄭雨峰教授慷慨指點迷津，並獲匿名審查教授惠賜修改意見，悉據以修訂完竣。期間還得到高麗大學魯耀翰老師不吝協助查閱研究資料，拙文皆因而受惠，謹此一併申謝。本文為臺灣科技部專題研究計畫部份研究成果（計畫編號：MOST 108-2410-H-194-057-MY3）。

** 臺灣，國立中正大學中文系教授兼東亞漢籍與儒學研究中心副主任。

壹、明清孔子的履歷圖誌

一、引論：文士的履歷圖誌

筆者長期關注明清豐富多樣的畫像文本，有一種類型特別值得注意。明代中葉，文士官員有為數不少的履歷圖，試舉幾個例子以觀，如明邊貢〈雲衢履歷圖後序〉曰：

> 雲衢履歷圖者，掌太常寺禮部尚書正菴崔公之所自為也。……幸通仕籍，事四朝，今且老矣。每念吾身所以生之、成之、食之者，恐其耄而遂忘之也。爰自童子以至于今衰，其事之可紀者二十四條，圖且名之，而疏其事於下。其圖屬乎親者六；屬乎師者一；屬乎君者十有七，他不與焉。吾將朝於斯，夕於斯。觀乎吾親，則不忘身之生；觀乎吾師，則不忘身之成；觀乎吾君，則不忘食之所自。又將教吾之宗人與吾之為弟子者：孝以事其親；忠以事其君；全恩義以事其師也。[1]

該文揭示崔正菴自為履歷圖誌以回顧一生的創製動機，包含親師君的履歷內容，以及個人緬憶與後人怵惕的教誨目的，精擷人生24則圖像紀事，藉以標舉像主為孝親、忠君與全恩義於師的三倫典範。與此相類者，另如劉春〈都憲王公履歷圖序〉：「雲陽都憲王公庭簡命工自成童、至弱冠，以及登甲科、躋膴仕，皆各繪其所歷之儀刑，名曰：履歷圖，以貽諸後人，間以示予。」[2]囑畫工將其人生晉陞之儀刑一一繪出。

另如丘濬〈宦途履歷圖詩〉，好事者繪製11圖，均限定宦途履蹟，各為命名，獲得縉紳先生賦詩以榮之。[3]王世貞〈少保雨川葛翁行歷圖像序〉，述及葛翁〈行歷圖〉若干冊，藉葛孫一一細指不同冊頁中之像主場景11種，按時序為其生平經歷編排繪圖。王世貞細繹圖面，既觀像主之自幼以漸迄於老之眾貌，以及像主自綠而逐次皤白的髮色，又觀像主不同質料款形色之服戴，最終強化其瑩純內質，賦予崇高推讚。[4]據學者馬雅貞研究指出，明代對這類圖繪並無統一名稱，或稱〈履歷圖〉、〈宦途履歷圖〉、〈巡歷圖〉、〈行歷圖〉、〈宦蹟圖〉等，相關圖繪依照個人生涯的時序，選擇重要事件描畫為圖，或以像主事蹟數目為題者，如〈詠徐大夫素履十二圖〉、〈江陵劉侍御四美冊〉，以時間先後描畫官員生平

1) 邊貢，《華泉集》，卷9，〈文集・雲衢履歷後序〉，引自《文淵閣四庫全書》，第1264冊，頁8a-9a。
2) 劉春，〈都憲王公履歷圖序〉，《東川劉文簡公集》，收入《續修四庫全書》，集部，第1332 冊，卷7，頁2a-3a。
3) 丘濬《重編瓊臺藁》（《文淵閣四庫全書》）卷10，〈集部・宦途履歷圖詩〉，頁31a-33a。
4) 王世貞《弇州四部稿》（《文淵閣四庫全書》）卷69，〈文部・少保雨川葛翁行歷圖像序〉，頁8a-10b。

事件。[5]「履歷圖」為一舊名，大抵以標舉像主宦蹟或人生行跡為描摹重心的圖繪。

清代道光年間有一部大型圖文冊籍《鴻雪因緣圖記》，乃水利官員麟慶采風、修廢、舉墜、遊歷之隨時紀錄，一如潘世恩〈鴻雪因緣圖記序〉所言：「蓋自述一生游歷之作也。」包括：延年玩丹、環翠呈詩、智信宣防、荊營驗馬、京兆報捷、午門釋褐……等，一圖一記，凡240單元。[6]回溯明代，亦有一部《安南來威圖冊》，係以福建建寧縣知縣江一桂參與嘉靖19年（1540）前後平撫安南莫登庸篡位諭其受降一事的功勳為核心的圖冊，表述江一桂事歷，並溯及其於建寧、鳳陽、太平等處之宦績。［圖1］[7]該圖冊依時序予以步驟化，包括：單騎奉辭、言重詛盟、因壘歌凱、定平報成、開壁受降、太平飲至、築輝銅柱、典納方物、撫綏歸疆等24個圖文單元，紀其行歷與榮蹟。明清這兩部圖冊分別紀錄主角人物麟慶與江一桂以宦轍為主的履歷行跡，聚焦於像主始末，記地、記事、記行蹤，列入「史部．傳記類．雜錄之屬」，含有傳記色彩與遊歷成份，書寫傳統其來有自。

如上述這兩部畫像文本體式即可謂為「履歷圖誌」，包含兩個成份——圖 / 誌。圖：生平宦歷履跡的圖像；誌：為此類圖像所製寫的各種文字紀錄，包括像贊、題記、詩詠、序跋等。現存畫蹟標榜宦歷者，再如明代《徐顯卿宦蹟圖》，學者楊麗麗考察其為一套多幅具有紀事性質的肖像畫，包含宦蹟、省親、家慶、祭祖、行樂、遊樂、患疾等以仕宦為核心的經歷。[8]〔圖2〕這是一個典例，描繪萬曆文官徐顯卿（1537-1602）任職翰林的官涯事跡，共計30開。而清代現藏畫蹟《卞永譽畫像》，則以24幅精美冊頁展現像主卞永譽前半生的仕宦歷程。

若不標舉個人為宦經歷，意圖再現像主生平榮顯行跡者，釋大汕（1637-1705）《行跡圖》就是另一種典型。刊刻於《離六堂集》卷首，以34幅自畫像紀錄個人行止，大規模展現人生多重面向，圖共34幅：〔圖3〕

---

5) 參見馬雅貞：〈戰勳與宦蹟：明代戰爭相關圖像與官員視覺文化〉，《明代研究》第17期（2011年12月），頁61-62。

6) 參見拙著〈生命圖史與文本複調：晚清《鴻雪因緣圖記》初探〉，收入吳盛青編：《旅行的圖像與文本：現代華語語境中的媒介互動》（上海：復旦大學出版社，2016年6月），頁3-30。

7) 參見拙著〈明代《安南來威圖冊》之相涉問題〉，發表於『文獻與進路：越南漢學工作坊』（2016年5月28日，臺灣：嘉義，中正大學中文系、臺灣中文學會合辦）。

8) 參見楊麗麗：〈一位明代翰林官員的工作履歷：徐顯卿〈宦跡圖〉圖像簡析〉，《故宮博物院院刊》2005:4，頁42-66。現僅存26開，絹本，設色，每開62*58.5cm。

行腳、負薪、遣魔、讀書、供母、默契、遇異、演洛、觀象、說法、吟哦、遨遊、訪道、作畫、吹簫、賣卜、釣魚、夢游、雅集、看雲、秣馬、賣雨、浣花、法起、臥病、出嶺、領眾、酌古、註書、抱琴、論道、製器、北行、長嘯。

34幅圖約作於康熙17～26年（1678-1687）間，以自己為像主，透過不同的情境設計，勾描個人豐富的行跡。各圖均有一篇題辭，一圖一題，乃大汕分別向江南文士與嶺南僧友索題。大汕以圖像補苴半生履程，為自己建構一部自少至老、儒釋相融、聖俗一體的人生圖史。釋大汕《行跡圖》可能源承於宗教範疇的「成道圖」，元代道士吳全節便擁有一套多達20餘段圖面的畫像長卷，描繪其成道歷程，亦效習佛教《法華經．普門品》觀世音菩薩卅二現身意的精神，以34幅畫像展現一生行跡。[9]大汕是一介禪僧，其《行跡圖》取源於道、釋成道現身傳統，自屬合理。

由以上文獻載記與現存畫蹟可大致明瞭「履歷圖」是仕宦經歷的紀實畫，或由像主個人自發，或由好事者創製，多圍繞著像主的宦涯設繪，通常包含為宦前之受學經歷及退職後之歸田生涯。由此類圖像延伸而成含圖 / 誌兩個成份的「履歷圖誌」，由畫家繪製像主生平宦歷履跡的畫像，由文人為圖像製寫各種文字紀錄，包括像贊、題記、詩詠、序跋等。筆者有幸，略悉韓國朝鮮時代有以畫屏繪製的文士「平生圖」，又曾親睹現藏於哈佛燕京圖書館善本室珍本：朝鮮時代文士韓弼教編繪之《宿踐諸衙圖》（TK 3490.88 433 1），[10]包括韓氏任職之濟用監、戶曹、宗廟署、永柔縣、載寧郡、宣惠廳、宗親府、工曹……等處衙署之圖，［圖4］是韓國極具代表性精美之履歷圖誌，[11]由此或可略窺近代東亞文士存錄個人平生履跡的共性。

二、夫子履歷

明代中期盛行之履歷圖誌，像主悉為文人或官員，與禪僧釋大汕《行跡圖》取源於成道

9) 參見拙著〈顧盼自雄．仰面長嘯：清初釋大汕（1637-1705）《行跡圖》及其題辭探論〉，《清華學報》第40卷第4期（2010年12月），頁789-850。

10) 以下凡遇哈佛燕京圖書館藏善本，皆以括弧標示其館藏索書號。

11) 數年前，筆者很榮幸獲得韓國高麗大學知友鄭雨峰教授惠贈《宿踐諸衙圖》畫冊，是筆者研究韓國漢學的稀珍文獻。筆者之後訪問哈佛大學，在燕京圖書館與這份海內孤本一見如故，特此感謝鄭教授。

圖或菩薩現身圖不大相同，是否另有儒家圖繪系統可供取資呢？筆者有幸獲得科技部與傅爾布萊特基金會獎助前往哈佛大學東亞系訪問研究一年（2018.08.01~2019.07.31），得於哈佛燕京圖書館飽覽群書。哈佛燕京圖書館為歐美地區研究中國傳統文化的重鎮，收藏中、日、韓、越出版物，以及用英文撰寫有關東亞研究的論文、專書等約100餘萬冊。所藏善本約11300部，包括中國善本3800部、日本善本3700部、韓國善本3800部。[12]筆者訪問期間，承蒙中文部馬小鶴主任賜知幾種燕圖善本書目，包括：沈津主編《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中文善本書志》（6冊，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11）；尹忠男、金成煥編著《哈佛　燕京圖書館　韓國貴重本　　解題》（5冊，首爾：景仁文化社，2004）；岡雅彥、青木利行編集《ハーバード燕京図書館和書目録》（2冊，東京：ゆまに書房，1994）；鈴木淳、マクヴェイ山田久仁子編著《ハーバード燕京図書館の日本古典籍》（1冊，東京：八木書店，2008）。又獲楊麗瑄和王繫兩位專業館員襄助，循線蒐得多種稀珍圖文書，以及東傳日、韓具有參照意義的珍貴善本，引發筆者興趣。

首先，筆者發現一部角田九華撰《孔子履歷考》（TJ　1075　2644），2卷，2冊，為嘉永2年（1849）浪華書林松根堂梓行，［圖5］卷首有文化11年（1814，嘉慶十九年）角田自序。此本應係後印，前有江戶岡田屋嘉七、京都出雲寺文次郎、大阪加賀屋善藏等印本。該書為一部孔子生平考據之書，書名直接冠以：「孔子履歷」。事實上，早於此書約400年前，文官張楷曾於明英宗正統九年（1444）的〈聖蹟圖序〉言及：「夫子履歷」。顯然地，以「履歷」這個概念詞彙對孔子行誼進行編纂刊刻，至少不遲於15世紀中葉。這個驚喜發現讓筆者想進一步探究孔子履歷圖誌之相關編刊，遂藉在哈佛大學研究之便，就近蒐閱考察，唯受限於時間，拙文實為讀書筆記及文獻初考備要而已，亟盼就教於方家。

三、孔子行誼之編纂與刊刻

明清時期對於孔子行誼有諸多編纂與刊刻，包括：孔子通紀、孔子家語、闕里志、聖蹟

12)　引自沈津主編《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中文善本書志》（6冊）（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11）〈序〉，頁5。

圖等類型著作，拙文以哈佛燕京圖書館藏孔子履歷圖誌為討論中心，關於多種善本細致繁複的考察，拜賜於沈津教授所著：《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中文善本書志》，[13]以下按類摘取沈津《書志》相關內容而展開討論。

(一) 聖門通考

《聖門通考》(T 2261.1 2149) 12卷、年譜2卷，六冊。明包大爝撰。萬曆十五年(1587)書林清心堂刻本。題「四明後學包大爝編輯，從姪包垕校正。」前有萬曆八年(1580)馮時雨序，萬曆五年(1577)包大爝序。末有萬曆九年(1581)包垕跋。《引》13則，《凡例》11則(後割去半頁)，有鈐印：「書林清心堂梓」。馮時雨序：

> 少東包先生，以比部郎出倅山以東，憑軾鄒魯，歷覽洙泗，覩闕里之遺書，慨真詮之未即，嘗一考之而未就。嗣官留曹，益用肆力，旁稽逖采，釐贋訂訛，閱二十年而書始成，名曰聖門通考。
>
> 包爝序云：
>
> 爝以比部出倅東魯，思聖賢之鄉，志獨缺焉。嘗一纂之，而多脫誤，既署留曹，乃博觀家語，春秋內外傳，世本，戰國策，大小戴記，韓詩，說苑，新序，僉載等書，參考皇極經世，綱目，外紀，大事紀及通鑑前編，折衷經典，考訂歲月暨群弟子姓行，表年於上，敘事於下，正以論孟春秋，附先賢論贊，凡若干卷，名曰聖門通考。
>
> 包垕跋曰：
>
> 聖門通考十二卷，余從叔比部少東公所編輯者也。……於是綴學素文，編年考記，起靈王，訖戰國，上下三百餘年。宗孔子，述群賢，暨鄒孟諸弟子，訛者斷其義，佚者表其微。其事核，其辭略，羽翼聖真，闡揚儒術，洋洋鄒魯之遺聲，蓋其詳哉！

此書記聖門群弟子之門人，取道脈流傳，廣聖門遺澤，以不忘聖賢源本。卷一年譜考，卷二聖系考，卷三聖蹟考，卷四顏系考，卷五顏子考，卷六曾系考，卷七曾子考，卷八子思子考，卷九孟系考，卷十孟子考，卷十一為十哲考，卷十二弟子考。其孔子聖蹟上表年，下序事，先後次第俱折衷經典，彙集眾論，考訂歲月，釐正舛錯。孔子十歲以前事，議論皆在後時，其書並有細書附記之。(沈津《書志》，第2冊，史部，頁

13) 多種明清孔子履歷圖誌的繁複考察，摘引自同註12，沈津主編《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中文善本書志》。拙文以下凡摘引自該書者，為免瑣碎，逕以括弧標示其冊次、部次、頁次，不另出註。

459-460）這部洋洋六冊十二卷厚籍，悉著眼於「考」，蓋與前引日本江戶時期角田九華撰《孔子履歷考》之著作旨趣相同。

（二）闕里志

闕里，相傳為春秋時孔子授徒之所，在洙泗之間。孔子時無闕里之名，其名始見於《漢書》卷六七梅福傳，至後漢始盛稱孔子故里為闕里。燕京圖書館所藏為今存明刊《闕里志》（T 1786 7582.12），最早有明陳鎬撰，十三卷，明正德元年（1506）增修刻本。[圖6]《四庫全書總目》稱：「闕里向無志乘，僅有《孔庭纂要》、《祖庭廣記》諸書。弘治十七年甲子（1504），重修闕里孔廟成，李東陽承命致祭。時鎬為提學副使，因屬之編次成志。」此志為李東陽於該年首倡，並親定凡例，由陳鎬等修成十三卷。李東陽（1447-1516），字賓之，號西涯，謚文正，明朝中葉重臣，文學家，書法家，茶陵詩派的核心人物。天順甲申進士，正德初累官至禮部尚書、文淵閣大學士，為內閣首輔，文壇領袖。陳鎬（?-1511），會稽人，成化丁未進士，歷職多種，官至右副都御史、山東提學副使、巡撫湖廣。李東陽在曲阜期間，與巡撫都御史等官員共同議定撰修一部《闕里志》，以便將這次大修孔廟的壯舉記入此書。提學副使陳鎬參閱了衍聖公孔聞韶提供的大量文獻資料，至弘治十八年（1505）編撰完竣，刻版印刷，李東陽親自作序，清楚交待《闕里志》的編撰動機，序云：

> 闕里孔廟成，東陽奉勅代告，周覽遐慕，欲為一書。巡撫都御史徐公源及衍聖公聞韶，力贊其議。比歸，至德州，巡按御史陸君偁、盧君翊及布政使曹君元等，合書以請。適聞提學副使陳君鎬，有事於此，因舉以屬之。取所定凡例，稍加潤飾，且以《孔氏實錄》、《孔庭纂要》、《素王事記世家》補鈔本致之，以備采擇。陳君乃參閱孔氏所藏《祖庭廣記》，與凡遺碑斷刻，諸書所載，踰年而後成。其法以闕里為主，附顏、孟諸弟子之名氏、事行而體統，尊摹先聖肖貌及地形廟製而圖像，著述、世家、宗派特為世表而譜系明，敘禮樂制度之沿革損益而典式具。若詔誥勅祝之頒布，章牘、箋表、文移之出納往復，罔不備載，而闕疑訂舛，芟繁剔僞，惟其所當。凡為卷十有三，為目四十有四，為文累若千萬言。

楊文提及該書所援引之文獻與文物碑誌、編撰體式與豐富內容，詳述孔子一生的活動、闕里廟制、歷代皇帝封賜、祭孔禮樂等內容，卷帙浩大，可謂為一部完整的孔氏家族史。

《闕里志》版本不少，首版即為上書，明陳鎬撰，十三卷，正德元年（1506）刻本。第二、明孔弘幹續，十五卷，嘉靖三十一年（1552）孔承業刻本。第三、明孔弘幹續，八卷首一卷，嘉靖四十三年（1564）刻、隆慶三年（1569）增修本。第四、明孔貞叢撰，十二卷，萬曆三十七年（1609）刻本。第五、為明孔胤植於崇禎中補訂，二十四卷本。孔胤植，字懋甲，孔子第六十五代孫，天啟二年（1622）五月襲封衍聖公。筆者所見哈佛燕京館藏善本即此本（T 1786 7582.12），據清孔繼汾纂輯《闕里文獻考》卷31載：「明弘治間，學使陳鎬纂述歷代追崇聖賢之典及林廟古蹟，與夫舊事遺文，成《闕里志》十三卷，長沙李東陽為作凡例。其後孔氏子孫，屢有續輯，皆因是成書而附益之，增至二十四卷，是所謂闕里舊志者也。」此本有孔胤植跋云：「余因繙闕里舊志，附以新典，補其未補。」包括弘治乙丑（1505）李東陽〈闕里誌序〉、楊士聰〈重修闕里誌序〉、孔胤植〈闕里誌後序〉等。24卷目次繁密，分別為圖像志、禮樂志、世家志、事蹟志、史記世家、祀典志、宗子世紀、授官恩澤、人物志、甲科鄉科歲貢、林廟志、山川志、古蹟志、恩典志、弟子志、歷代誥勅、明朝諸勅、撰述志、明朝碑記、藝文誌……等。清康熙年間有宋際、宋慶長撰《闕里廣志》二十卷，為清康熙十三年（1674）刻本。又有孔氏後裔孔尚任經廣搜博采，另撰《闕里新志》，惜流傳不廣。[14]

(三) 孔子家語

關於孔子遺文軼事之編撰，尚有一類為「孔子家語」。燕京圖書館藏有明刊本兩種。第一種為《孔子家語》（T 1075/2215），明何孟春注，永明書院刻本，八卷，4冊。有正德2年（1507）何孟春序，正德16年（1521）林俊題辭、同年黃鞏跋。何孟春是嘉靖年間大禮議時上疏力爭勸止的重要人物，奪俸調職，引疾歸，卒逝。本書雜採先秦兩漢諸書所載有關孔子遺文軼事，綜合成編，並借諸書中有關古代婚喪祭禘制度與鄭玄所論不同處而攻之。後人疑為王肅僞作，唯保存一些古本書籍之相關記載，可供校勘考證。王肅為三國魏人，善賈逵、馬融之學，兩漢經學至鄭玄合今古文而集大成，肅欲與之爭勝，曾撰《聖證論》以攻鄭氏。何孟春自序曰：

14) 《闕里志》編纂源起及多種刊本訊息，主要參引自同註12，沈津《書志》，第2冊，史部，頁690-691。另亦參見楊秀娟：〈《闕里志》：一部孔氏家族史〉，《曲阜師範大學校報》第30期（總第892期，2013年11月）。

春謹即他書有明著家語云云，而今本缺略者以補綴之。今本不少概見，則不知舊本為在何篇，而不敢以入焉，分四十四篇為八卷，他書所記事同語異者箋其下，而一二愚得附焉，其不敢以入焉者，仍別錄之，並春秋、戰國、秦漢間文字，載有孔子語者，錄為家語外集，存之私塾，以竢博雅君子或得肅舊本而是正焉，是豈獨春之幸哉？

此書分元亨利貞四集。封面題「宋王肅纂注，明太子太傅襲封衍聖公孔胤植（天啟二年1622年襲封）編正，何孟春補注，孔尚達參訂」。是一部針對孔子生平行誼兼採錄及考證之書。(沈津《書志》，第3冊，子部，頁865-866)

第二種為《孔聖家語圖》(T 1075 2340)，明吳嘉謨輯，萬曆17年（1589）自刻本，11卷，六冊。卷二題「武林後學吳嘉謨集校」。前有王鏊序及「凡例」九則。是書曰「家語圖」者，乃從《家語》舊名而增其圖，卷一以孔聖像為首，次圖像四十幅。[圖7] 自卷2起，乃為《家語》本文。「凡例」曰：

先聖歷年事蹟，雜見傳記諸書者，多牽合附會，莫可據信。惟《家語》、《史記》及《孔氏世譜》載先聖歷年事蹟頗詳，今謹據其說，續以聖蹟圖彙成四十篇，而以意按之於後，以便考古者稽焉。

王重民指出國家圖書館藏本有嘉謨自序，云圖依闕里所傳《聖蹟圖》輯成。是本佚萬曆17年自序、王世貞序、萬曆17年楊士經跋。刻工為黃祖、信。先聖像題「新都程起龍伯陽甫薰沐寫，歙人黃祖鑴。」起龍即為繪《女範編》者。燕京館藏一複本有「岡田真之藏書」印。(沈津書志，第3冊，子部，頁866)

歷代多有宣揚孔子行跡之書，《論語》為孔子記言行事之濫觴，其後漢司馬遷撰《史記》，以孔子入「世家」。宋、明以來，集孔子聖跡之書日多，有為文附圖以表聖跡者，以文為主者如《孔子家語》，以圖為主者如《聖蹟圖》。

(四) 聖蹟圖

據鄭振鐸考察，孔子畫像漢代即已有之，或刻石，或圖壁，或繪帛，或鐫木。西漢景帝時，蜀郡太守文翁修學宮，作石室，刻孔子坐像。東漢桓帝建夫子廟，孔子像繪壁。東漢靈帝於京城建鴻都門學，命畫工劉旦、楊魯畫孔子及七十二門人像，凡此皆為文獻載

錄。山東嘉祥武梁祠有「孔子見老子」石刻，則為最早傳世的孔子繪像。魏晉以降，西晉太康，益州刺史張收在益州學館畫孔子及七十二弟子；東晉戴逵，南朝陸探微、張僧繇都曾以孔子及弟子為創作題材；梁元帝蕭繹也曾畫孔子像，並自撰親書「孔子贊詩」。唐代畫家閻立本、吳道子、周昉；南唐的董源、衛賢、王器翰；宋代的石恪、高克明、李公麟、馬遠、梁楷；元代趙孟頫以及明代的吳偉、吳彬等，皆有以孔子為題材的畫作。據孔子四十七代孫孔傳於其著《東家雜記》（南宋紹興四年，1134）記載：「今家廟所藏畫像，衣燕居服、顏子從行者，世謂之小影，於聖像為最真。」此畫傳為晉顧愷之所繪。蒙古刊本《祖庭廣記》也有孔子像。近世所傳，乃以先聖執玉塵，據曲几而坐，或侍以十哲，而又持蓋、捧玉磬者。又有傳為唐吳道子所畫，列以七十二子，而有操弓矢，披卷軸者。又有乘車、十哲從行圖。儘管這些畫作並沒有流傳下來，所幸孔子後裔將其中不少作品的原本摹刻在石上，因而仍得以保存於孔廟聖跡殿內，如：顧愷之所作的「孔子小影」，吳道子「孔子司寇像」、「行教像」等。至於明清迄今傳世之紙、絹本孔子畫像，包括：冕旒像、宋高宗贊司寇像、燕居像兩幅、三聖圖兩幅、觀欹器圖、杏壇講學圖、講學圖等，現皆完好保存於孔府和山東省博物館內。[15]

不同於前述單幅孔子畫像，「聖跡圖」為後人依據孔子事蹟所繪之連環畫，材料多取自《論語》、《史記》二書。傳世的《聖蹟圖》明代版本甚多，有彩繪、木刻、石刻三種。彩繪本出現最早，據說唐朝已有，但未見傳世。現存最早之繪本為元代畫家王振鵬所繪，圖共十幅，舊藏項元汴天籟閣。後流落到日本，清光緒三十四年（1908）由鄧實影印，有上海神州國光社影印本。[16]明代彩繪本約創作於成化、弘治間（1465-1505），共三十六幅圖，選擇孔子重要行跡，有文有贊。引錄文字為《史記・孔子世家》，無題無款，作者及繪製年代不詳，此彩繪本遺漏許多，山東曲阜孔府現存者可能係殘本。據著錄存世最佳亦最早的彩繪本，為北京大學圖書館藏明正德元年（1506）刻本，為目前保存孔子《聖蹟圖》最早的紙質彩印本。[圖8] [17]

---

15) 孔子像考，參引自鄭振鐸〈「聖蹟圖」跋〉，《中國古代版畫叢刊》第一輯（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頁390-392。又參引《孔子聖跡圖》版本考略（一）、（二）http://www.okxyz.com/gu/14/13913-4047-14.html、http://www.okxyz.com/gu/14/13914-4048-30.html（2021.10.21）。歷代由畫像石、壁畫、繪畫、古籍、年畫等不同媒介均有以孔子形象為主題的創作，參見董倩倩、范菲菲〈圣人之像：从馆藏文物看孔子形象变迁〉，《鑑賞》108期（2017.05），頁44-51。

16) 陳東詳考王振鵬繪本，以其實為明代萬曆前後之假托，其構圖、序、贊均襲自張楷《聖蹟圖》，詳參陳東〈張楷聖跡圖的幾個問題〉，《孔子研究》，2019年第2期，p.83-93。

雖有石刻，唯不便流傳，故又有各種木刻本傳世。最早的刻本據《山東通志》記載，有元大德年間孔子五十三代孫孔澤所刻《孔聖圖譜》三卷，惜此本已佚，無由考查。鄭振鐸曾於北京古書店購得一部正統本《聖蹟圖》，應係存世最早的刊本，為諸本之祖。[18]後又購得一部嘉靖刊本，是翻刻正統本而來。至於萬曆間刊刻的幾部《孔子家語》，卷前附有繪寫孔子一生事蹟的插圖，其內容則與《聖蹟圖》相類，是由當時畫師、刻工自行創作，並非翻刻舊本。

根據鄭振鐸考訂，明正統九年（1444）刊刻的《聖蹟圖》是今見最早的木刻本，卷首有監察御史張楷序曰：

> 右《孔子世家》一通，漢太史公司馬氏所述，宋朱文公晦庵所纂者也。文公欲敘聖跡於《魯論》之首，以《家語》諸書所載紛糅無統，獨取信於《史記》。然其紀載該博，中間頗有致疑者。若楚昭王使人聘孔子，孔子將往陳、蔡，大夫發徒圍之，而孔子絕糧。按是時陳、蔡臣服於楚。若楚王來聘孔子，陳、蔡安敢圍之？凡此之類，不能無惑，故皆刪之。特撮其切要之事，兼取語孟所載夫子履歷與諸弟子問答之語，分註年下，以便考證。至於書法之間，則又詳加損益。如孔子在他國皆不書年若干，惟他國反魯及在魯，則歷歷書之，以見聖人不忘本國之意也。楷緝是圖，每事則取《史記》所載，為之序讚者，以其詳而可考也。至於卷首總序，則全錄文公所纂者，以其約而有斷也。噫，二先生于吾夫子過化之蹟所以盡心紀載者至矣。愚生小子，安敢妄擬於其間哉？然念夙稟懵愚，淑聖教於千載之下，得以居廣居、遵正路，不為異端他岐之惑，苟不知報，豺獺弗若也。故敢忘其膚淺，妄陳一得之愚，固知螢爝補太陽，誠不度德而量力。然精衛填海水，亦誠懇之所不能已也。時正統甲子秋七月望日，四明張楷式之盥手謹書于西臺公署。[19]

此為傳世最早的《聖蹟圖》木刻本，乃張楷依據朱熹節纂《史記・孔子世家》，旁采《論語》、《孟子》等書輯成，張楷貫注司馬遷與朱熹的意旨，共取二十九事繪成圖幅，並為各

17) 參見沈津〈《聖蹟圖》版本初探〉，初刊於《孔子研究》，2003年第1期，後收入氏著《書韻悠悠一脈香》，桂林：廣西師大出版社，2006。

18) 永富青地教授考定日本島津家久《聖蹟圖》和刻底本為弘治十年刊本，又據家久本刻入之無名氏跋推考鄭振鐸《中國古代版畫叢刊（一）》所收之正統九年序刊本應係弘治十年刊本或該本之重刻本。筆者發現鄭書所收圖版體例不純，確或有贊或無贊之別，無贊之圖版應即何廷瑞增刻部份。詳參永富青地〈聖蹟圖在日本江戶時代的出版與傳播〉，收入沈乃文主編《版本目錄學研究》第八輯（北京大學出版社，2018），p.315-316。筆者獲東京大學陳捷教授賜下掃瞄版，得以拜讀啟益，藉此申謝。

19) 參引自鄭振鐸輯《聖蹟圖》（正統九年刊本）卷前，同註15，頁374。

圖賦以贊詩，木刻傳世。

弘治十年丁巳（1497），衡州知府何廷瑞新刻《聖蹟圖》，跋曰：

> 右聖蹟圖，自禱尼山至漢高過魯儲祀，通二十九事。蓋前都憲四明張公式之為御史時，取晦菴先生所纂《史記世家》及《家語》、《孔叢子》諸書所載夫子出處之大節而為之也。寅長汝南何公廷瑞守衛時，偶得刻本。公暇偕予輩玩其圖，考其實，誦其贊詞，宛然如身生其時，親履其地，而聆乎木鐸之餘音也。猗與休哉！但惜其傳之不廣，且歷歲既久，中間人物字畫不無磨滅。乃命畫工仿佛而一新之。其圖首序事及贊詞，一仍其舊。又嘗推類考之他書，有可紀而未及紀者九事，相與覈實，並增入之，通為一帙。方鋟梓而公捐館矣。……於是合同寅監邵長壽高君杲、貴谿徐君鳳、四明施君應麟、節推金華李君悌，各出己俸，助成公志，將以廣其傳也。……新圖皆無贊詞，不惟不能作，而亦不敢作，尚有以俟夫吾黨之善於形容聖人者。時弘治丁巳季春月朔日，吉府重刊。

何氏增九事成三十八圖重新刻印，新增者有圖有說，但無贊詩。[20]其後又有嘉靖二十七年（1548）瀋藩朱胤栘刻本，另有隆慶六年（1572）刻本，以及萬曆刻本、藍印本、崇禎刻本……等衍生本。張楷繪製之《聖蹟圖》為後世多種刊本的母本，傳世最廣。（沈津《書志》，第2冊，史部，頁497）各版本之圖版於數量、精劣、內容有所差異。

現藏哈佛燕京圖書館善本室之《大明萬曆孔聖夫子周遊列國全圖》（T 1786.2 1346），［圖9］一冊一卷，萬曆刻本。半頁，四周雙邊，白，經摺裝。框高28.8公分，寬25公分。前有朱熹節錄《史記・孔子世家》及整飭沂州兵備道前廣東道監察御史邵以仁〈聖殿圖說〉。末有萬曆二十年（1592）山東按察司副使奉勅督理清軍驛傳鹽法前吏兵工三科左右給事中巡視京營大倉侍經筵官張應登〈後序〉。燕圖所藏此本，疑為明代坊間所為，繪圖、刻工頗簡率。構圖、技法遠不及明代萬曆至崇禎間南京、杭州等地書坊所刻戲曲小說之工緻精美。

原刻於萬曆十九年的《聖蹟圖》，燕京圖書館藏有清代墨拓本（TP1063），簽題：「孔子行教畫贊」，原刻共120幅，此本僅殘存23幅。另藏有37頁圖崇禎本《聖蹟圖》（T1786.2 1346b），［圖10］金鑲玉裝，鈐印有「謙齋藏書」、「無畏菴」、「江都薄

20) 關於何廷瑞的弘治增刻本，永富青地考定日本島津家久《聖蹟圖》和刻底本為弘治十年刊本，以上跋文引錄自永富青地〈聖蹟圖在日本江戶時代的出版與傳播〉，同註18，頁316。相關討論亦參同註15，《孔子聖跡圖》版本考略（一）、（二），以及同下註孟久麗一書，頁194。

氏鑒藏書畫記」。又有張楷修、邵以仁增修《聖蹟圖》清初刻本（T 1786.2 1346d），書內有藏閱者圈點批註，以及鈐印：「江都薄氏鑒藏書畫記」、「守拙廬藏書記」。[圖11]（沈津《書志》，第2冊，史部，頁496-498）

以上四種孔子行誼之編纂與刊刻，便有三種與圖像有關。其一為《闕里志》，誠如李東陽序曰：「尊摹先聖肖貌及地形廟製而圖像」，卷一「圖像志」有：崇祀像、行教像、司寇像、凭几像、乘輅像、魯國圖、聖廟圖、闕里新城圖、尼山圖、防山圖、孔林圖……等。[圖12] 卷二「禮樂志」有：位次圖、禮器圖、禮器說、陳設圖、樂器圖、樂器說、樂舞圖、奏樂位次圖、歌章……等，[圖13] 皆圖文並置。明代弘治本以下幾種《闕里志》，多多少少地襲用了歷代以來的孔子畫像。其二為「孔子家語」，經鄭振鐸考察，明萬曆所刻幾部《孔子家語》，卷首均附有當時畫師、刻工們創繪孔子一生事蹟的插圖，據上海古籍出版社影印的《孔聖家語圖·跋》引證，該書由明吳嘉謨於萬曆十七年（1589）集校後刻印，共11卷，後十卷為《孔子家語》本文，卷一圖繪孔子自誕生到逝世共四十幅圖，以吳嘉謨的老師楊士經授予之曲阜《聖蹟圖》為藍本，經重新創繪而成，圖版與傳文按語並行。其三則為與「闕里誌」與「孔子家語」兩類編刻相互關涉又有巨構偉創之「聖蹟圖」，是孔子履歷圖誌中之最大宗。

四、儒家敘述性圖畫與聖蹟典範的兩種系統[21]

明代擔任皇帝侍講的焦竑為帝教修撰一部《養正圖解》，其序曰：「蓋講讀止于析理，圖說兼以徵事。理之用虛，虛，故隱約言之，而不必有所指；事之指實，實，故覽之者易，竟以象之，朝誦夕披，而觀省備焉也。」經籍中的紀錄性繪畫可以描繪事件發生的特殊情況，有助於將經典的權威性解讀確立至歷史記憶中，視覺圖像成為再現歷史的有力媒介。一般觀點認為敘事性圖畫主要吸引未受教育的觀者，尤其宋代興起文人畫後尤甚，學者孟久麗著手研究儒家價值觀與敘述性圖畫間的關係，則強調儒家除了慣常認為的文本及話語傳統外，還有一個視覺的傳統，透過繪製特定故事與建構道德訓誡以加強勸化與維護正統。[22]孔子「聖蹟圖」無疑是極重要的典範建構。

---

21) 本文以下關於孔子履歷圖誌的諸多觀點及思考靈感多得自於孟久麗（Julia K. Murray）著、何前譯《道德鏡鑒：中國敘述性圖畫與儒家意識形態》（Mirror of Morality: Chinese Narrative Illustration and Confucian Ideology）（北京：三聯書店，2014），獲益甚多，謹此致謝。

孔子「聖蹟圖」概有兩種版本系統，其一，明御史張楷採取朱熹意見，以為《孔子家語》太過揉雜，獨取信於《史記》，引朱熹考證節縮改寫之《史記・孔子世家》作為《聖蹟圖》之依據，以此創製之《聖蹟圖》較為精簡，圖版部分少至10幅，多也不過30幅左右。其二，以司馬遷《史記・孔子世家》及《論語》作為主要參照內容，再間雜以《孔子家語》與其他典籍之相關傳說，圖像動輒百多幅，對孔子行誼描繪全面、繁複而完整。

(一) 第一種版本系統

明太祖由蒙古族手中取回治權，恢復並重建漢族政統，亟需依傍久違的儒家精神，而孔子恰好是儒家精神的最高典範。到了明中期，朝政紊亂，尤其宦官干政使得精英階層的文官集團憂心，亟欲覓求儒家價值與忠於有序的治國方針。正統九年（1444）張楷（1398-1460）創製明代最早之精簡版《聖蹟圖》，其編製動機符應這股思潮。據孟久麗考察，時逢宦官王振逮捕國子監祭酒李時勉事件震驚朝野不久，孔子聖蹟圖的出現或即此際的產物。座落在國子監的文廟一年進行兩次祭祀，孔子作為儒家最高典範倍受崇敬，其一生經歷及其教化體現修身治國的崇高理想，重新制定的五經科考，無疑是遵孔的方針。首先委製《聖蹟圖》的張楷是一位監察御史，其職責是評騭官員品行，學者官員們對於與孔子精神連結的經義文章皆耳熟能詳，而孔子不順的仕途經歷更激勵著受制於政敵或因皇帝倒行逆施而仕途挫敗的文官群體。因此，著墨於孔子行誼是無可非議的正統性主題，贊助相關的圖畫可謂為表達對現狀不滿的安全途徑，通過圖畫傳達對當前情勢之抵拒與理想政局之追求。張楷引用朱熹節錄之《史記・孔子世家》，擇選29則，刪去孔子生平經歷較為次要或神異色彩較濃的軼事，請畫師繪圖並各寫一「贊」。以這個去蕪存菁的《聖蹟圖》鼓舞當朝官員，提供衡量自身行為的矩度。這部帶有評贊意味的孔子「履歷圖誌」，以視覺化途徑建構儒家最高典範，張楷的《聖蹟圖》不斷被複製，成為後代擴大編纂的核心。[23]

(二) 第二種版本系統

---

22) 參見同上註，孟久麗一書，頁190。

23) 參見同註21，孟久麗一書，頁190-191。正統九年張楷編纂之《聖蹟圖》研究，參見許瑜翎《明代孔子「聖蹟圖」研究：以傳世正統九年本《聖蹟圖》為中心》，臺灣師範大學美術系碩士論文，2009年。

若明代最早刊印張楷編定29幅《聖蹟圖》的創製在於為朝政重建儒家精神，那麼112幅繁複版《聖蹟圖》的編製動機何在？《闕里志》的編纂緣於祝融後闕里修建之孔廟落成，而萬曆年間編訂的《聖蹟圖》亦然。燕圖所藏《大明萬曆孔聖夫子周遊列國全圖》卷首有邵以仁〈圖說〉曰：

> 辛卯（按：萬曆十九年，1591）冬，奉簡命，備兵東魯，乃登杏壇，涉洙泗，遍觀宗廟之美，願學之心，駸駸然倍往昔。今聖圖殿之建也，無亦感發後人之意乎！是舉也，始於侍御何公出光，成於縣尹孔君弘復。工役別有記者，不具述。

據《（乾隆）曲阜縣志》卷49《古蹟》：「《聖蹟圖》百十有二副，明萬曆二十年（1592）御史何出光命畫工章草增舊圖刻於石。按：何出光，字兆文。河南扶溝人。萬曆11年進士。授曲沃知縣，拜監察御史。孔弘復，為孔子後裔，字以誠。萬曆元年山東巡撫請仍以世職管縣事，乃考選弘復為曲阜知縣。其在任二十三年，甚得民聲，後加都轉鹽運同知銜致仕。」《（乾隆）曲阜縣志》卷91有傳。據〈聖跡殿記〉曰：「闕里故有聖跡圖若干幅，在棗梨，……散在各廡。」萬曆十九年（1591），何出光感於孔廟有孔子之木刻圖，但散於各廡，故倡儀將木刻改為石刻。次年，按察副使張應登又增加「克復傳顏」、「孝經傳曾」等圖上石，將「聖蹟圖」增至一百十二圖。此石本《聖蹟圖》為曲阜縣學生員毛鳳羽彙校，淮陽畫工楊芝作畫，吳郡章草刻石，於萬曆二十年十二月告成。後何出光又籌得款項四千緡，於孔廟寢殿後築聖圖殿加以保存。此石本之內容首為先聖小像（顏子從行）、次為尼山致禱、麒麟玉書、鈞天降聖。自第四圖至第九十五圖，為孔子立學、立教、為宦、周遊列國、著述等史事。第九十六圖至一百圖，為三壠植楷、弟子守墓、哀公立廟，以及漢高祖、宋真宗祭祀圖。每圖對開一頁，並有文字釋解。圖之製作，乃據司馬遷《史記。孔子世家》。（沈津《書志》，第2冊，史部，頁496-497）

五、明代連結孔廟的聖蹟圖及文本發展

（一）相類於佛寺道觀的孔廟格局[24]

24） 明代以前各地早已興建孔廟，宋代期間的孔廟亦有孔子聖蹟圖石刻出現。參見安建峰、張建軍〈伯方文庙「孔子圣迹图」考〉，《文物世界》，2016年第1期，頁31-34。該文考察北宋年間，任晉城令的程顥力推儒學教育，大

弘治十八年（1505）《闕里志》之編訂，以及萬曆二十年（1592）《聖蹟圖》112幅圖之刻石，皆與曲阜最古老之孔廟築設有所連結，悉由朝廷官員與孔氏族裔合力贊助而成。吾人不妨再次關注1505年李東陽的〈闕里志序〉，文曰：

> 闕里孔廟成，東陽奉勅代告，周覽遐慕，欲為一書。巡撫都御史徐公源及衍聖公聞韶，力贊其議。比歸，至德州，巡按御史陸君偁、盧君翊及布政使曹君元等，合書以請。適聞提學副使陳君鎬，有事於此，因舉以屬之。

《闕里志》的編纂起因於火劫後闕里孔廟修葺落成，由幾位代表性官員合書請奏而編訂。宏大的《闕里志》成為完備的孔氏家乘，而再現孔子不凡一生雕於石版的《聖蹟圖》，逕置於孔廟新建的聖蹟殿中心，兩側還題有賀辭。朝廷通過創制這兩套敘述性圖畫鉅構，以茲表彰孔子並闡揚儒家價值觀，亦提昇孔氏族裔的威望。

呈現中軸建築的孔廟在大成殿內供奉著孔子聖像，內殿兩側走廊陳列著孔門四配十哲聖像，[25]聖蹟殿則處於孔廟中軸線末端，［圖14］聖蹟殿廳堂的石刻意味著「聖蹟圖」最初是在孔廟中展示。孟久麗以為，15世紀孔廟的祠堂建築布局與物質陳設，和佛教、道教及民間神靈祠廟頗有共通處，展示佛祖或太上老君生平的殿廳也處於廟宇中心軸之末端，供香客對主殿聖像頂禮膜拜後繞步至此觀覽而垂永懷之思。

（二）三教聖蹟與孔子形象聖神化

元代三教盛行，《新編連相搜神廣記》書首將孔子、老子、釋迦牟尼三尊並列，其後則繪出各種三教大小神祇。佛、道二教外，儒教之書在元代已盛行，孔子成為三尊之一。《祖庭廣記》、《素王事記》皆孔子之履歷文獻。佛教有《釋氏源流》、道教有《老子七十二變化圖》，儒家後出《孔子聖蹟圖》，可以看出佛道儒三教對於聖蹟的崇慕，以及寓教於圖的視覺化軌跡。

興社學，於當地興建伯方文廟，該文即考察該廟中的孔子「聖蹟圖」。唯聖蹟圖的大量刊刻仍要到明代以後。本段文字受孟久麗啟發良多，參見同註21，孟久麗一書，頁190-198。

25) 四配為孔門傳人：復聖顏回、宗聖曾參、述聖孔伋、亞聖孟軻。十哲是根據《論語》「先進篇」十大弟子而得名：「從我於陳、蔡者，皆不及門也。德行：顏回、閔損、冉伯牛、仲弓。言語：宰予、子貢。政事：冉求、子路。文學：子游、子夏。」

敦煌石窟早有表現佛本生故事的畫作，成為宗教藝術的一種標準類型。明代張楷定制《聖蹟圖》（正統九年，1444）前不久，描繪佛本生故事之《釋氏源流》甫於1425年出版，［圖15］乃永樂皇帝為興建南京大報恩寺特別的編製。該書搭配文字描摹釋迦牟尼誕育與生平事蹟以迄佛教東傳史之相關事蹟，這部208幅圖畫的作品在15世紀流傳甚廣，且時有重刊。半世紀後，明內府於成化22年（1486）再製精刊，其構圖甚至激發佛教寺廟之壁畫。正統九年（1444）張楷刻本之29幅圖畫，若與宏大之佛本生故事《釋氏源流》相較，顯得頗不完善。半世紀後，何珣廷瑞在衡州（沛南衡陽）任知府，重建當地孔廟和因朱熹聞名的石鼓書院，於弘治十年（1497），為補張楷本之不足，將張本《聖蹟圖》增刻9幅圖畫。其中有幾幅為孔母受胎及孔子降生瑞兆之相，如麟吐玉書、鈞天降聖、五老二龍等，［圖16］這些故事為戰國時期編造，經孔子後裔多次編刊後廣為流傳。何珣刻本採用這些故事進行補繪，譬如：孔子出生麒麟吐玉書的瑞兆圖畫，與悉達多太子其母夢白象入脇而感孕降生的圖畫頗為相似，何珣或受《釋氏源流》影響，借鑑佛本生故事表現手法，補入孔子形象的神靈化面向。[26]何珣刻本通過增加神奇故事使孔子形象往佛、道與民間宗教的聖神靠近。這部木刻在何珣離職後，由其他幾位官員共同捐資繼續完成。何珣增補的《聖跡圖》在16、17世紀多次被重刻，其中兩次是皇家所製。[27]

在元代三尊並行基礎上發展而出與釋道思維滲融的儒教聖像，在明中期正統九年（1444）張楷手中，曾因應朝綱廢弛而援引理學家朱熹思維編製的《聖蹟圖》，將元代教主濃厚意味的孔子淨化轉向至聖先師的形象，成為新傳統。然而，半世紀後的弘治十年（1497），何珣《聖蹟圖》增刻本的出現，既鞏固仲尼身世不凡的傳說，又進一步將孔子推向聖神，與道釋宗教的視覺文化建立新聯繫。

（三）孔聖全傳的形成及結構

再過一個世紀，萬曆十九~二十年（1591-1592），何出光感於孔廟聖蹟木刻圖散於各廡，倡儀將木刻改為石刻，「聖蹟圖」把何珣新增部份含括進來，擴增至百十二圖，於孔廟寢殿後築聖圖殿加以保存。112幅石刻孔子履歷圖展現了孔聖全傳，其結構包括：

---

26) 參見同註21，孟久麗一書，頁192-194。另參凌玉萱〈建構神聖者傳奇：從《釋氏源流》到《聖蹟圖》的傳奇孕生圖像發展過程〉，《議藝份子》第九期（2007.05），頁15-42。

27) 參見同註15，《孔子聖跡圖》版本考略（一）、（二）。

1.核心形象：透過其與統治者、賢者、門徒等人物的遇逢，標榜孔子的道德品質。孔子周遊列國的政治謀士形象、好學不倦為人師表的學者行跡、目光深遠格局恢宏的智識與不避卑賤的堅忍性格，融鑄孔子形象為至聖先師。

2.神靈化面向：存留元代三教教主之一、滲融佛道思維而形塑其超軼凡人的神異形象。

3.官方祭奠：以孔子去世後皇朝為推崇而舉行的重大祭禮作結，始於漢高祖於孔廟獻禮，止於宋真宗大中祥符元年的獻祭，［圖17］標誌著皇家對孔氏家廟祭祀的抬昇與贊許。

112幅「聖蹟圖」，隨圖出現的文字被轉錄到圖畫內的空間裡，原先錄自古文的語言改寫得更為淺直易懂，張楷的贊詩被省略，每段情節都帶有一個四字標題，使得觀者更容易辨認畫面且能夠喚醒他們所描繪的事件。[28)]

明代最早的《聖蹟圖》（1444），主要彰顯孔子的人文素質，何珣則加入了神靈化色彩，明代文官群體借鏡於釋道對廣大百姓的教化功能，俾儒教得以普世化，與孔廟連結的幾種「聖蹟圖」刻本，或許可由孔子行誼全面擴增為孔聖全傳的發展脈絡闡釋之。自嘉靖九年（1530）祭孔典禮改制後，除曲阜孔廟保留塑像外，餘處孔廟均改立木制牌位，「聖蹟圖」遂成為孔子形象視覺化的重要古典形式。[29)]

(四) 副文本

「聖蹟圖」多種版本應運而生，根據不同的目標與觀眾，圖版與文字都有微妙的修改，在相繼使用者間流傳。熱拉爾・熱奈特（Gerard Genette）認為與原始文本相對者稱為副文本，副文本既能調節書籍和與讀者間的關係，同時亦能將作品內涵傳達給不同的受眾，一旦受眾改變，背景轉移，核心內容亦隨而調整，不同媒介意味著預期受眾及功能之不同，副文本自然會對母本進行改裝。[30)]「聖蹟圖」最初奉贈官員以生儆惕，發展過程中，因應不同功能曾採取繪本、木刻、石刻等多種方式。木刻本最為普及，其廣泛流傳有助於提升人們的道德修養，易於複製且保存的印刷術，提供複製與流通的便利。隨著刻

28) 參見同註21，孟久麗一書，頁192-194。
29) 參見同註21，孟久麗一書，頁191-196。
30)「副文本」觀點轉引自同註21，孟久麗一書，頁165-166。

本的傳佈，再現與重刊的多向複製，必然參與了意義、生產和流通的體系。[31]吾人或可以副文本觀點掌握「聖蹟圖」的發展軌跡，正統九年（1444）張楷為朝廷官員刊製以朱熹人文質素為核心的29幅圖；半世紀後，弘治十年（1497）何珣為地方州縣匯入孔子神靈化面向而成38幅圖；再經一個世紀，萬曆二十年（1592），何出光回歸《史記．孔子世家》、《孔子家語》等舊籍而為曲阜孔廟修建擴增成112幅圖而創成「孔聖全傳」。「聖蹟圖」既帶有儒家知識體系濃厚的人文義理內涵，又因與孔廟興建連結而致流傳民間，與道釋傳統不斷滲融而成聖人崇拜的宗教化氣息，使得孔子履歷圖誌展現著奇異的風采。

貳、韓國的孔子履歷文獻

宋代理學大盛，孔子形象隨著理學的昌盛而深植人心。雖然學界無法得知孔子形象傳入朝鮮半島的確切時間，一般認知，應不晚於儒學東傳的高麗時期，西元1289年，高麗王朝的學者安珦跟隨王世子忠宣王來到元朝，他親自抄錄《朱子全書》，認同子孝臣忠，以禮治家，以信待人，修己誠敬的儒家價值觀，高麗因蒙古侵略痛苦不堪之時，這些思想像一絲曙光投向安珦。從此，安珦數次往來於元朝與高麗，用心觀摩元朝學風，亦購買樂器、經書和史書，為普及理學費盡心思，還派博士到中國描繪孔子及七十二賢之畫像並帶回高麗。至於朝鮮時代的聖蹟圖，多為燕行使臣攜回的產物，發展成各式本土風格。16-17世紀，可能有官員獲得明正統年間張楷創繪精簡的《聖蹟圖》帶回朝鮮，作為傳家寶私下擁有。之後，又有何廷瑞版、吳嘉謨版、何出光版之《聖蹟圖》東傳，在朝鮮時代產生不小的影響。[32]孔子的教義是道德和社會的準繩，它不僅是聖人自期的規範行為起源，也是學子教育和俗眾生活的指標中心，朝鮮時代的「聖蹟圖」成為很好的圖繪教本，兩班貴族或俗眾均可從中觀想聖人、閱讀知識、汲取智慧，從孔子性格形象中領悟教義詮釋。[33]

筆者近年欣逢諸多善緣而獲賜幾種珍稀文獻，對東亞漢文化之圖像課題略有涉獵，曾

31) 參引自同註21，孟久麗一書，頁169。

32) 韓國學者以孔子形象與理學的關聯性研究聖蹟圖，參見진영자，「남송-명대 공자 형상의 전개에 대한 연구-『성현도』와 『성적도』의 분석을 중심으로」(由南宋到明代孔子形像發展研究：以『聖賢圖』和『聖蹟圖』的分析為中心)，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6。至於韓國聖蹟圖的全面研究，請參見學者曺庭六最新力作：「韓中 孔子聖蹟圖 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2021. 06。

33) 參見趙善美，「孔子聖蹟圖考」，『美術資料』第60號，國立中央博物館，1998。

撰成數篇淺論，刻正努力拓建個人研究視野。筆者在美國哈佛大學訪問期間，於哈佛燕京圖書館善本室經眼數十種孔子履歷文獻，製成「哈佛燕京圖書館藏韓國孔子履歷文獻分類一覽表」與「中國、日本、越南孔子履歷文獻知見一覽表」（參見［附表一］、［附表二］）。筆者蒐見14種韓國編刊之孔子履歷文獻，［圖18］除《孔子通記》、《孔子編年》兩種以文字敘述為主無插圖之外，其餘12種皆有圖像。[34]這些由朝鮮王朝以迄日帝強占期之14種孔子履歷文獻，筆者按書籍內容大別為以下三類：

孔子編年紀事：有《孔子通記》、《孔子編年》、《孔子實紀》、《新刊素王事紀》、《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附：新刊素王事紀）》（有6卷、3卷兩種版本）等6種。

孔子闕里誌：有《東國闕里誌》、《魯城闕里誌》、《魯城闕里祠新安誌》、《先聖闕里圖》、《闕里誌》等5種。

孔子聖蹟圖：有《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續修聖蹟圖後學錄》（兩本）、《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圖》等3種。

本論文對各書進行初步考察，悉依傍各書之序、跋、目錄及圖版，為篇幅平衡之計，序跋原文或完整目錄不擬援引，均置於文末［附錄］中以見其詳。以下按類依編刊時序進行考論。

一、第一類：孔子編年紀事

筆者所見有《孔子通記》、《孔子編年》、《孔子實紀》、《新刊素王事紀》、《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附：新刊素王事紀）》等，以下一一討論。

(1)《孔子通記》(TK 1075 3600)

全書共8卷，分乾坤兩冊。卷一首頁標以：「廣東提學副使上虞潘府校著、弟建陽縣典史潘正捐俸刊行」兩行字樣，卷前有劉瑞、謝鐸二序。劉序文末署款：「弘治十四年辛酉（按1501）秋八月上旬吉翰林院國史檢討徵仕郎後學西蜀劉瑞謹序」，載明編撰動機。該書

34) 筆者識淺，未能全面研究韓國編刊之聖蹟圖，韓國學者於此研究頗有成果，例如：박광헌，「『孔夫子聖蹟圖』의 책판과 판본 연구」（《孔夫子聖蹟圖》的書籍和版本研究），『서지학연구』78，한국서지학회，2019。此文應可與筆者拙文相互參看。關於「聖蹟圖」相關研究，可另參：서성，「《공자성적도》의 제작 방향과 시각 표현 연구（《孔子聖蹟圖》製作方向與視覺表達研究），『中國學論叢』第64號，高麗大學校中國學研究所，1998。

有前紀1卷、正紀3卷、後紀3卷，共8卷。載錄孔子生平言行辭受出處等史傳紀事，上溯傳授正統，言及當時弟子、後世從祀諸儒，以及歷代封謚始末等，可謂一部以孔子史傳為核心之通紀。

第二篇謝鐸〈讀孔子通紀序〉亦曰：

> 凡八卷，前紀一卷推原其道統世裔之正；正紀三卷，敘述其出處言行之詳；後紀四卷，先之以歷代褒封祀典，次則及其當時弟子與夫後世從祀之賢，而終則以其宗子世襲者附焉。上自六經，下及子史，凡有關於孔子者，參考互訂，皆特書而備書之。

兩序之後，為「孔子通紀凡例」8條，次為潘府於弘治癸亥（按1503）敬書〈孔子通紀總辭〉。全書卷8最終有潘氏自言：「闕里之遊，忽忽八載，而感予生之易老也。」次以弘治甲子（按1504）仲夏羅僑識語：

> 孔子通紀一書，蓋南山潘先生提學東廣按部至新會出以示僑者也。僑得之不敢自愛，遂捐俸鋟梓以廣其傳云。

由序跋與頁面文字得悉，本書為明代文士潘府（1454-1526）編著，並由建陽縣典史潘正與羅僑等人共同捐俸鋟梓，此應為明孝宗弘治初年原刻，筆者僅悉日本筑波大學圖書館有藏本外，未見其他藏本。燕京圖書館藏此本封面、裝幀形式係為朝鮮本，復於內頁得見兩個訊息，其一，全書末頁有獨立一行頂格之「天啟五年（1625）十月日長城縣開刊」字樣，時為朝鮮仁祖3年（1625），或係《孔子通紀》東傳後，於原刻刊印百餘年後，朝鮮王朝按原刻模印而成。另外，在卷首第一篇劉瑞長篇序文後次行頂格開始，有一段明顯字體不同的記文曰：

> 中原闕里誌十三冊，刊印於皇明弘治年間，是為舊誌。東國之闕里誌一冊，實正廟遺志，而本孫設施者是為新誌，合十四冊印出。闕里祠在華城文獻公瑞麟舊址，而正廟創建，略仿魯城闕里祠。系譜自昌原伯紹為始。

這段識文與《孔子通紀》無關，概為另一部書《東國闕里誌》註記，雖文不對題，卻顯露兩個值得注意的訊息：首先，表示此本確曾在朝鮮時代重刊。其次，為朝鮮時代編刊

之《闕里誌》拉開序幕，待後詳論。

(二)《孔子編年》(TK1422 323)

序稱「紹興八年（1138）三月壬子績溪胡舜陟序」，共5卷1冊，無附圖。以孔子紀年編目，卷一始生至年四十三；卷二年四十四至年五十五；卷三年五十六至年六十七；卷四年六十八至年六十九；卷五年七六至七十三卒。卷一首頁：「宋績溪胡仔元任撰，裔孫湛重刊」，而書末有「嘉慶二十三年戊寅（1818）十月朔裔孫培翬謹識、裔孫日光繕錄，紹煐覆對」、「裔孫澍校字」等署款。編者胡元任苕溪公為胡氏遷績溪之八世祖，於南宋紹興時奉先三山公即胡舜陟之命撰《孔子編年》5卷，據四庫提要言及，書首有紹興八年胡元任之父舜陟所作序，是書輯錄孔子言行，以《論語》、《春秋三傳》、《禮記》、《家語》、《史記》、《世家》所載，按歲編排體例，不曰年譜，而曰編年，乃尊聖人之意。宋以後，纂集聖蹟者，其書日多，亦猥雜日甚，胡仔所論猶爲近古。數百年後由裔孫湛重刊於清嘉慶年間。

《孔子編年》為中國編纂，筆者於燕京圖書館所見乃《孔子編年》與《朱子年譜》、《安子年譜》三種合刊本（TK 1422 323），卷首有孔令貽〈合刊序〉曰：

> ……世局奇變，異說競作，東國諸儒懼聖教之將墜，建道統祠於硯山，奉先聖像，配以朱子，而從祠以安子，合刻孔子編年、朱子年譜、安子年譜三書，藏之祠中，以為國人矜式，問序於余。……今此三譜，列先聖昔賢平生行事以示國人，正如天之四時行、百物生，為不言之教。東方學者，誠能奉為規矱，亦步亦趨，吾知先正典型，必能永保不愆，不為末世波流之所汩，則諸君子之功不在安子下矣。

末署「孔子二千四百六十八年十月孔子七十六代孫襲封衍聖公孔令貽序」。此年為日本大正天皇6年乙卯（1917），應即出版年。合刊三書各書末頁皆有「孔子編年、宋子年譜、安子年譜，乙卯秋合刊藏版于晋州硯山道統祠」字樣。

安子為東國學者安裕，高麗高宗30年癸卯（1243）生於順興府竹溪上坪里村鶴橋傍第，卒於忠烈王32年丙午（1306），年64。高麗王朝與元朝互動密切。忠烈王年輕曾在元朝做人質，又娶元世祖忽必烈長公主為王妃。忽必烈為遠征日本，於高麗設征東行

省，任命忠烈王為左丞相。忠烈王欽服元朝。忽必烈入主中國，以朱子儒學做為官學，以興科考。高麗學者安裕曾隨忠烈王到達大都，忠烈王獲贈一部《朱子全書》，安裕返國後，力倡朱子理學。安裕門生白頤後隨忠烈王赴北京向博學名儒請益朱子儒學，攜回儒家經籍上萬卷，返國後，掀起朱子儒學熱潮。安子被推為高麗儒學正宗。是以，韓國編者將安子與孔子、朱熹排比，其來有自。年譜曰：

> 先生生而倡明斯學，大闡儒風，一洗三韓之陋，蔚為東方道學之祖，子孫蕃衍貴顯，久而不衰云。先生諱裕，後改珦，避我朝顯陵諱，以初諱稱號晦軒。

(三)《孔子實紀》(TK 1075 1138)

1冊4卷，為現代排印版，內頁署有「原州元泳義性求纂輯、南陽洪鎮裕而遠校閱、德水張慄元明校訂」字樣。《孔子編年》與《孔子實紀》，皆為韓國日帝強占期的產物，前者為編年體，梗概臚列孔子生平事蹟，晉州硯山道統祠藏版刊行。4年後，大正10年（1921），元泳義纂輯《孔子實紀》，由京城青邱儒學會本部印行，卷首附有聖像一幀。或可視為明治政府藉重刊孔子事蹟以推動儒學的一個旁證。

(四)《新刊素王事紀》(TK 1075 4312)

全書末頁款署：「甲子秋七月下澣泰仁田以采朴致維謹梓」，此為朝鮮王朝純祖甲子（1804）田以采、朴致維編印，朝鮮活字印本。[圖19] 無序跋，有全書目錄，圖版後，自「歷代追崇事始」起，載記孔子生前身後歷代崇祀祭儀襲封諸事。目錄次頁為「附（錄）」之目，主要為「會典祀儀」，包含齋戒、省牲、陳設、正壇、四配位、十哲位、東廡、西廡等儀節配位說明。卷首皆為圖版，依序為「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正壇陳設圖、四配陳設、十哲陳設、兩廡陳設。[圖20] 其次有先聖歷聘紀年之圖（表）、孔子世系之圖（表）、歷代封祀爵號圖（表），與目錄略有出入。此書乃將孔子視為無冕王，載其紀年、世系、追崇、廟宇、祠祭等制度與世系，可謂綜合《孔子通紀》與《闕里誌》之著述旨趣，繪製圖表，更利於讀者覽閱。

圖版繪「魯司寇像」，有小字註：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應是對繪製聖像著色的規

範。此外，文字首頁有一篇極有興味的聖像註解，開宗明義即引用古籍：

> 祖庭廣記曰：先聖生有異質，凡四十九表，反首，洼面，月角，日準，河目上下眶平而長，海口，斗唇，昌顔，均頤，輔喉，駢齒，龍形，龜脊，虎掌，胼脅，參膺，圩頂，山臍，林背，翼臂，注頭，阜脥，堤眉。地足谷竅，雷聲澤腹，面如蒙倛，手垂過膝，眉有一十二彩，目六十四理，立如鳳峙，坐如龍蹲，手握天文，足履度字，望之如仆，就之如升，脩上趨下，末僂後耳視若營四海（按：第六段引文對此句註曰：註長上而促下，末僂微曲也。後耳耳近後也。視若營四海則憂世之容可掬），耳垂珠庭，胷有文曰：制作定世符。身長九尺六寸，腰大十圍。

此文段後，續引另5段文字，復於文末總註「見《祖庭廣記》」。此篇6段引文，皆關於孔子形貌與後裔所藏孔子畫像的載記，此文較後出者之篇幅長而完整。

《新刊素王事紀》「附錄」主要載錄大明會典祀儀，據小字註得悉，乃編者引用廣東羊城陳際泰（1567-1641，字大士，號方城）註釋之《孔子家語》為概介，列聖朝頒行儀式從祀配位增減事蹟以製成，為祀儀細節文字子說明以及相關陳設配位圖示。

（五）《孔聖家語》（附：新刊素王事紀）（TK 1075 0011.1）

燕京圖書館藏有明刊本《孔子家語》，何孟春注，永明書院刻本，是一部針對孔子生平行誼兼採錄及考證之書。韓國《孔聖家語》6卷2冊，母本更早，目錄頁有「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次行「猷堂王廣謀景猷」。［圖21］此為元代王廣謨對《孔子家語》之句解，應係元仁宗延祐3年（1316）刊，迄明又有刊本，爾後東傳至朝鮮。全本依據「相魯」、「始誅」、「王言解」、「大婚解」……等卷次，於文句中夾註句解。並無任何格線，亦無附圖。坤冊後段卷尾有原刻王廣謨一篇長跋。

《孔聖家語》下冊附編為《新刊素王事紀》，唯版型與前書略不同，無分格線。目錄結束有「泰定甲子秋蒼巖書院刊行」大字。考元泰定甲子年（1324），是本書編者釐定《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原刻之紀年，早於《新刊素王事紀》約五百年。全書與前書相較，僅止於「拜謁蒞政」，而前書〈大明會典祀儀〉以降等「附錄」部份全未收入，篇幅明顯少很多。哈佛燕京圖書館另有3卷3冊本（TK 1075 0011）內容相同，唯分冊裝訂不同，第3冊含素王事紀、皇朝通制孔子廟祀、大明會典祀儀、後序、我朝文廟享祀……等。

二、第二類：孔子闕里誌

前文討論《孔子通紀》第一篇劉序後有段文不對題的識語，提及：

> 中原闕里誌十三冊，刊印於皇明弘治年間，是為舊誌。東國之闕里誌一冊，實正廟遺志，而本孫設施者是為新誌，合十四冊印出。闕里祠在華城文獻公瑞麟舊址，而正廟創建，略仿魯城闕里祠。系譜自昌原伯紹為始。

筆者在燕京圖書館善本室，蒐閱以下幾種：《東國闕里誌》、《魯城闕里誌》、《魯城闕里祠新安誌》、《先聖闕里圖》、《闕里誌》等5種。以下一一探討。

(一)《東國闕里誌》(TK1422/1161)

孔明烈編，2卷加附錄，1冊，漢城：朝鮮憲宗6年己亥（1839）後識。扉頁空白處有「隨軒先生　惠存　藤塚鄰　敬呈」字樣，此書曾為日本著名收藏家藤塚鄰先生收藏，後輾轉入藏哈佛燕京圖書館善本室。前有趙寅永〈東國闕里誌序〉，［圖22］序文末署「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趙寅永撰；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恭贊官春秋館修撰官知製教宋祥來書」，趙序交待了編撰動機，一開篇即言明其追慕明弘治年間陳鎬編撰之《闕里志》另編《東國闕里誌》，上溯孔子之後元翰林學士孔紹始居東國，以第六十三世孫文獻公孔瑞麟講學處為闕里孔氏建基，表聖人之祠。其次，將東國與東周繫聯，更遠溯箕子封於朝鮮東夷之地，強化聖人居東、興周道於東方之堅強理據。趙序言《東國闕里誌》乃瑞麟文獻公之後孫孔明烈編輯：「起倣舊誌之發凡，首之以聖像、廟制、祀享之式，次以國史、野乘，凡為孔氏典憲者，旁搜博採，編成一帙。」趙序張調《闕里誌》不是五經六藝，亦非聖人之書：「以廟堂禮器儀文之末，與列朝之恩澤，後承之派系，謂可輝映於百世，則此家史也，非聖人書也。」為此書定調。

明代編撰之《闕里志》，時代綿長，內容繁多，不列經部，而入史部，不僅是聖人孔子之家史，也是儒學發展之源流史與制度史。而《東國闕里誌》著眼於載記孔子後裔居東儒族後裔發展史而成一編，踵繼其後。編撰者與時間，可由兩篇跋識推得。其一〈闕里誌後

序〉，末署「崇禎紀元後四己亥後學唐城洪直弼謹撰」，另一篇長文跋識，署曰：「春秋獲麟後兩千三百二十年己亥秋，夫子七十五世孫東國闕里祠有司明烈拜手謹識」。「崇禎紀元後四己亥」與「春秋獲麟後兩千三百二十年己亥」皆為朝鮮憲宗6年己亥（1839），由跋文內容可知本書乃孔子後裔孔明烈編撰而成。明烈跋識言及刊刻歷程：「乃輯舊新二誌，合成一統，而鳩財付梓，始自丙申（1836）冬，粉刊於龍仁鄉舍，丁酉（1837）移于嶠南，戊戌（1838）又移設於京城，蓋緣事浩力綿之致也。」後於己亥（1839）刻竣編印。

《東國闕里誌》為朝鮮稀珍文本，其序跋三文交待該書之編撰動機、要旨、過程、體例、蒐採、人力，既對明代《闕里志》有所繼承，又有東國史實之擴充。三篇序跋為：趙寅永〈東國闕里誌序〉、洪直弼〈闕里誌後序〉、孔明烈〈後識〉，再加上《東國闕里誌》全書目錄，其大要可見一斑。圖版包括：先聖行像、華城闕里祠奉安像、華城闕里祠制圖、孔昌原伯墓圖。［圖23］其後［附錄］包括：新羅王子獻聖像事蹟、金文安公獻國學圖事蹟、安文成公奉聖像事蹟、魯城闕里祠創建事蹟……等。之後尚有九則「體例」，為本書編撰細節作出扼要交待。（以上諸項原文，詳參［附錄］）

筆者前引《孔子通紀》有段「文不對題」的卷前註記：

> 中原闕里誌十三冊，刊印於皇明弘治年間，是為舊誌。東國之闕里誌一冊，實正廟遺志，而本孫設施者是為新誌，合十四冊印出。闕里祠在華城文獻公瑞麟舊址，而正廟創建，略仿魯城闕里祠。系譜自昌原伯紹為始。

經過比對，原是抄錄自本書「體例」之第一、三、六條部份文字拼接而成，顯示二書的承襲關係。

（二）《魯城闕里誌》（TK 1422 1149）

1冊分上下，末頁有「己未冬闕里刊」大字，為朝鮮哲宗10年（1859）。無序，有二跋。一為宋來熙〈書魯城闕里誌後〉，文末記年：「崇禎紀元後四己未」，即朝鮮哲宗10年（1859）。宋氏交待編者孔明烈之編撰動機，弘治年間《闕里志》已甚完備，本書乃以東國兩座夫子祠：「魯城闕里」創建於肅宗43年丙申（1716）；「華城闕里」創建於正祖17

年壬子（1792），一前一後創建，以承繼弘治17年（1504）修竣之曲阜孔廟。[35]尤其在明朝覆滅200餘年，「神州陸沈，青邱一域，獨免腥穢」，東國能踵事增華，豈非孔子預言：「道不行乘桴浮於海」？已於東國應驗矣。其二為宋觀洙〈敬書魯城闕里誌後〉，文末署曰：「崇禎後四己未（1859）臘月（12）上澣（上旬）德殷宋觀洙謹識」。此文除與宋來熙口吻相類外，娓娓道出兩座夫子祠之創建過程，以及東國孔氏後裔與本朝諸賢如何編書以發揚崇儒衛道之盛德至善，令孔氏復顯於東。此序特別之處，在於將朱熹作為後繼者並論，為另書《魯城闕里祠新安誌》作了張本（詳下文）。

《魯城闕里誌》全書內容，目錄可見一斑，卷首圖版即目錄前幾條所示，包括：曲阜闕里圖、魯城闕里圖、華城闕里圖三幅中國與東國之闕里圖，［圖24］其次為「聖像魯司寇時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其次為「朱文公像」，將朱熹列入《魯城闕里誌》中，為下一部書揭開序幕。本書最末「刊誌有司錄」，乃刊印組織成員之職銜與姓名，如：都有司：李鶴運；掌貨：金在龍，以及校正、司書、監印、齋任等職務項下各若干名。

(三)《魯城闕里祠新安誌》(TK 1422 1149.2)

1冊，分上下。昭和11年（1936）重新刊印發行。無序，有二跋。第一篇是林準相〈新安誌跋〉。文末署：「崇禎元後四庚申（哲宗，1860）菊月（9月）上澣（上旬）通訓大夫行魯城縣監林準相謹跋」，時為清朝咸豐年間。文中交待此誌為孔夫子之後大儒朱熹世系、後承、門弟，以及中國、東國之祠廟形制禮儀等載記，博訪廣詢而編成。

第二篇朴炳文〈新安誌跋〉篇幅極長。開篇交待全書由真像開始，繼而包括：朱氏於東國建祠、聖朝教授與先正先賢事蹟，崇禎紀元后四庚申（哲宗，1860）秋於魯城闕里祠編成刋行。其次說明正祖時期，咸昌縣新安書堂原同時供奉孔、朱二夫子之像，正祖16年辛亥（1791），孔夫子移安闕里祠影堂，朱夫子獨留於書堂，後亦移於魯城闕里祠，並諸賢影幀一併同奉。暢論朱子繼孔子之學，東國人因為重孔子，所以重夫子，朱子《新安誌》刋於闕里祠，非徒重新安，亦重闕里。孔子生於周末，作春秋、嚴尊攘，以詔天下萬世大經大法；朱子生於宋末，使孔子之道，復得大明於世者，將朱子的地位抬至與孔

35) 曲阜孔廟是祭祀孔子的本廟，元、明兩代重新修建多達數十次。其中最重要的一次是明孝宗弘治12年（1499）。孔廟建築遭雷擊化為灰燼。此次重修歷時5年，弘治17年告訖，勅編《闕里誌》於次年編成。朝鮮時代孔子履歷文獻多推尊此本。

子並論。這個文段與《魯城闕里誌》宋觀洙後跋相同，蓋係朴炳文〈新安誌跋〉援引宋觀洙〈敬書魯城闕里誌後〉一文而來。續言後儒本孫亟欲編纂史誌，以垂不朽。

哲宗10年己未（1859）先後刊印《闕里誌》、《新安誌》，當時規模不過百餘帙，後因朴炳文於闕里祠都有司任職，故於原刊10年後，於高宗5年己巳（1869）兩誌重刊，直至高宗10年癸酉（1873）告訖，斯文盛舉，儒界榮幸。那麼，正祖辛亥（1791）孔、朱二夫子由新安書堂移安至闕里，以迄高宗癸酉（1873）兩誌重刊告訖，果真歷「七十有餘年」，作者朴炳文詳細改摹奉安之沿革略歷。文末署「閼逢（甲）奄茂（戌）仲夏（6月）下澣（下旬）後學務安朴炳文跋」，此為高宗甲戌年（1874）。

東國言孔子闕里，何以並論朱子？事實上，中國確有文公闕里，朱熹與孔子關係密切。北宋寧宗慶元元年（1195），外戚韓侂胄糾黨擊倒丞相趙汝愚。朱熹等被斥為趙汝愚朋黨遭貶，朝廷視道學與朱熹等倡者責為「僞學逆黨」，一律罷黜，終生不得出仕，史稱「慶元黨禁」。朱熹晚年處於死亡陰影中，嘗自言「某今頭常如黏在頸上。」慶元6年（1200）3月初9日（4月23日）午時，朱熹病逝於建陽考亭滄州精舍內，享壽69歲。9年後，朱熹開始受到尊崇，嘉定2年（1209），帝詔賜謚曰「文」，後世因稱朱文公。寶慶3年（1227）正月己巳，宋理宗下詔：「朕觀朱熹集註大學、論語、孟子、中庸，發揮聖賢蘊奧，有補治道。朕勵志講學，緬懷典刑，可特贈熹太師，追封信國公。」後改封徽國公，從祀孔子廟。明朝通稱先儒朱子，崇禎15年（1642），帝詔位居七十二子之下、漢唐諸儒之前，特稱大賢朱子，清康熙51年（1712）詔升大成殿，配享位列孔門十哲之次。徽州婺源縣城建有文公廟（文公闕里）祭祀朱熹。徽州篁墩村（今安徽黃山市）曾建有程朱三夫子祠和程朱闕里坊。闕里，魯曲阜地，春秋時孔子舊居暨講學授徒之所，因有兩石闕得名。後之誌其地以述聖人，明弘治間闕里誌所由而輯。後代指稱先賢儒學，是以先儒大賢朱熹故居暨其講學授徒之所，亦稱朱子闕里。[36]

《魯城闕里祠新安誌》將從祀孔子並同奉的朱子並論，後世為效慕至聖之朱子編撰史誌之動機與沿革略歷，朴炳文一一具詳於〈新安誌跋〉。本書既為朱子家史，可由上下冊目錄得悉全文概要（詳後）。卷首有一幅朱文公畫像圖，伴隨有池光翰像跋，交待這幅畫像恭謹繪製的細節，言此像乃家廟所藏，文公六十一歲時的寫真，最為傳神，畫家謹依

36) 朱子闕里相關史實詳參維基百科「朱熹」條https://zh.wikipedia.org/……E7%86%B9 (2021.10.20)

原像摹寫鋟梓於卷首，以寓景仰之誠。文公畫像後有〈考亭紀〉。其後，有幾幅附有說明文字之圖版，首為「晦菴陽基圖」，註曰：「韋齋先生愛此山水，恒欲卜居未果，文公奉先志居遷居此地。」其次「文公塋墓之圖」，註曰：「先君塋墓在建陽縣嘉禾里唐石之大林谷地名龍居，後塘九頓峰下，風吹羅帶形。宋慶元六年十一月壬申，蔡元定（按朱之學生）遷葬先君，初未遇此地，時夜夢神人，報云龍居後塘，既得此地，果後塘也。今七世孫金禹在被居住看守，婺源奉祠，八世孫湛謹識。」其次「文節公塋墓圖」，註曰：「墓在綾州牧東北五里連珠山下，地名懷德洞，高麗忠烈王十三年丁亥，公以壁上三韓三重大匡知都僉議府事引年乞退，是歲十月壬子卒葬於此。」最後「道學統宗之圖」，為世系圖表。

《魯城闕里祠新安誌》為日帝強占期昭和11年（1936）重刊本。書末「重刊有司錄」，首行「都有司 前參奉 朴炳文 仝金斗植」，次行「總務 前參奉 朱燦馨 校正 李麟鎔」，次行「總裁 前參奉 孔在周 仝權洪圭」……等人員眾多，封底有資訊清楚的版權頁。[圖25]

(四)《先聖闕里圖》(TK 1787 1660.1)

無序無跋，全書共34頁，除首頁為聖像句解外，餘皆為圖版。全書編次如下：

> 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聖像(按：句解)、先聖行教小影顏子從行、凭几像、乘輅圖、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魯國圖、防山、顏母山尼山相對、尼山顏母山相對、孔林圖、宋闕里廟制、金闕里廟制、國朝闕里廟制、新廟圖一、圖二、圖三、禮器圖、樂器圖、舞佾圖。

首頁首行為標題：「聖蹟圖」，下方小字曰：「皇明闕里志圖本」。編者將纂輯聖人家史之「闕里圖」與「聖蹟圖」作了連結，這些稱為「聖蹟圖」之圖像包括：一、孔子聖像與弟子陪侍像；［圖26］二、魯國圖、防山、顏母山、尼山、孔林等地圖類；［圖27］三、從祀配位之宋金明闕里廟制之新廟三圖；四、屬於禮樂制度之禮器圖、樂器圖、舞佾圖［圖28］……等，共計四類。這些圖像源於明代張鎬《闕里志》圖版而來，與明代張楷編製之《聖蹟圖》無涉。

其次，「聖像」選用「魯司寇像」，小字註曰：「紅玉綠簪黃纓穿紫褐裘」，係對聖像著色的標準規範。回到首頁「聖像」註解，引句：「先聖生有異質長九尺六寸腰大十圍」，小字註曰：

> 出祖庭廣記。又云先聖凡十九表，反首，洼面，月角，日準，手握天文，足履度字，或作王字，坐如龍蹲，立如鳳峙，望之如仆，就之如升，耳垂珠庭。龜脊，龍形，虎掌，胼脅，參膺，河目，海口，山臍，林背，翼臂，斗唇，注頭，隆鼻，阜脥，堤眉。地足谷竅，雷聲澤腹，昌顔，均頤，輔喉，駢齒。眉有一十二采，目有二十四理。其頂似唐堯，其顙似虞舜，其項類皐陶，其肩類子產。自腰以下，不及禹者三寸，胸有文曰：制作定世符。今家廟所藏畫像，衣燕居服，顔子從行者，於聖像最真。

整篇對孔子形貌的引句與註解，［圖29］其旨趣與第一類《新刊素王事紀》之聖像註解相近，經參照比較，《新刊素王事紀》長篇之聖像集釋與此書短幅之聖像句解詳略不同，二文似無承襲關係。

《先聖闕里圖》為朝鮮哲宗10年己未（1859）原刻，光武9年（1905）重刊。高宗於朝鮮王朝末期推動現代化，改元光武（1897），稱光武改革，然朝鮮重儒之風，似未隨著光武現代化改革而消匿，聖人典籍的重刊工作似為鄉里基層在推動，一如本書末頁所載：「京鄉約所重刊」、「光武九年四月 日」，以及有司名錄：

約 長：	前承旨 鄭寅燮
	前都事 鄭殷采
	前議官 鄭在錫
	前監役 尹震求

(五)《闕里誌》(TK 1788 7270)

3卷3冊，有序，末署：「閼逢（甲）困敦（子）陽月（11月）辛巳（18日）月城崔鉉弼謹序」。後有二跋，其一〈泗水齋記〉，末署：「閼逢困敦乾（4月）之上浣（上旬）月城崔鉉弼謹記」。其二〈識〉末署「夫子七十四世孫鎣杓謹識」。由三篇序跋內容推得本書為大正13年甲子（1924）由李燮宰編纂刊印。

此輯為東國所編《闕里誌》內容最完備者，［圖29］雖為日帝強占期之編印本，取材皆有所本，值得探究。首先是〈闕里誌序〉，為崔鉉弼於大正13年甲子（1924）所撰。開篇說明《闕里誌》於皇明弘治17年甲子（1504）陳鎬奉命纂次，隔年編成。半世紀後，於朝鮮宣宗時期（1567-1608），由中國使節攜來一本十冊，「命賜夫子六十四世孫文獻公瑞麟之胄孫」，開始流傳東國。孔子思想言行載籍多種，闕里誌則更詳備家史淵流，此誌由李燮宰踵繼皇明，特加入東國事蹟，公傳於世。然而僅編傳誌，刊布未廣，故又由夫子第七十四世孫孔鎣杓入中國，合譜曲阜，並請奉聖像還建廟於青嶺里之道統山下，泗水之上，士林齊聲同議，以廣其影響。

本輯之編，在於皇明儒學裔孫脈傳東國，使斯道復明於世，是故，即使地非曲阜闕里，自不愧為闕里之人。本書擷取明編《闕里志》，又加入東國紀事，繁複內容由三卷目錄可見一斑。

卷一包括聖像、地理、廟制與禮樂制度等圖版。卷二為孔子姓氏世系年譜封謚墓宇杏壇及弟子列傳。卷三為獻像學政廟祠祀祝等典制或記蹟，特加上東國孔氏本誌及授官恩澤。第三冊後半部則為延續孔氏之東國闕里誌。

目錄結束隨即為「闕里誌卷一　圖像」，首頁「聖像」引句：「先聖生有異質長九尺六寸腰大十圍」及小字註文，乃對孔子形貌的引句註釋，與前書《先聖闕里圖》完全一致，版型亦同，唯字體略異，二者並非來自同一刻版。［圖30］「聖像」後之圖版，目錄似有遺漏，以下依實際附圖臚列之：

先聖行教小影顏子從行、凭几像、乘輅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朱文公像、魯國圖、防山、顏母山尼山相對、尼山　顏母山相對、孔林圖、宋闕里廟制、金闕里廟制、明朝闕里廟制、新廟圖一～圖三、李朝魯城闕里廟制、華城闕里廟制、影殿圖、禮器圖、樂器圖、舞佾圖。

這些圖版又與《先聖闕里圖》一致，亦於下一類「聖蹟圖」書籍反覆出現。唯一不同處在於「朱文公像」，置於聖像之後，地圖之前。於《闕里誌》添加朱文公，推尊東國性理學大儒，強調朱子為孔聖後繼。「朱文公像」次頁有文字註說：［圖31］

本朝英廟辛亥，因聖教奉來咸昌縣新安書堂所奉聖像及宋朝五賢畫像于魯城闕里祠。時嶺伯洪檍以聖像移奉之後，朱子遺像獨留書堂，事體未安之意，啓聞傳教內城闕里祠，

取其名義。則意雖不符於朱子，然其在師弟之義，一體移奉可也為教。以祠宇之狹隘，未即升配，權安于櫝中，後純廟乙丑，廣其祠宇而配享焉。

英祖9年辛亥（1731），將新安書堂所奉孔子聖像及宋朝五賢畫像移至魯城闕里祠，原同奉之朱子遺像獨留書堂，洪檍公提議宜移奉闕里祠。70年後，純宗6年乙丑（1805），拓建魯城闕里祠配享孔子。這段「朱文公像」註說文字，與前書朴炳文於高宗甲戌（1874）〈新安誌跋〉相同，應係李燮宰取用《魯城闕里祠新安誌》朱熹配享魯城闕里之略歷以入東國闕里誌中，故置入「朱文公像」以成孔氏世系。

書末有跋，可窺其編撰因緣及概要。第一跋為崔鉉弼撰〈泗上齋記〉，崔鉉弼既寫前序，又寫後跋，完整交待《闕里誌》編撰動機、因緣，並記述孔紹於麗朝隨公主東嫁成為第一代，之後雲祁遍域中，及至當代孔氏後裔赴曲阜謁廟，獲贈夫子真像及孔廟靈薈百莖，東還建廟揭虔……等歷程。崔鉉弼言其受命於孔鎣杓之囑而撰文。孔鎣杓為孔子七十四世孫，生於朝鮮高宗5年（1868），卒於日治昭和8年（1933），第二跋為孔鎣杓〈識〉，對前事作了摘要補充。依崔鉉弼序於大正13年甲子（1924）可知，哈佛燕京圖書館藏韓國善本之孔子履歷文獻，後代重刊者不計外，李燮宰編《闕里誌》為第二類「闕里誌」類5種善本中為最晚成書者，其擷取明弘治陳鎬編《闕里志》精華，效法前四書體例，納入東國史實，還附入朱文公像以擴大闕里誌之解釋範圍，可謂韓國孔子闕里誌之集大成。

三、第三類：孔子聖蹟圖

筆者在燕京圖書館善本室，蒐閱三種，以下一一探討。

(一)《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TK 1787 1660.31)

本書卷首有金正穆序，序末有「甲子（1924）重刊」4字。序文清楚交待編撰動機，表達慕孺聖人經傳，尊敬如對君師，但對聖人誕降之蹟，稟質之異，老少狀貌，出入儀軌皆漠然無知，故興起編書動機。每見孔聖諸圖，如升聖人之堂，入聖人之室，無異於與七十子之徒同在進退之列，周旋左右，躬執杖几。故首引道統源流，尾附東儒淵源，以

完一編。全書有兩個核心，其一為「孔子聖蹟圖」，其二為「聖學淵源儒林錄」。第一部份卷首有「序」與「道統源流圖」，其後為「聖蹟圖」，圖版依序為：

先聖行教小影顏子從行、凭几像、乘輅像、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魯國圖、尼山顏母山相對、新廟圖一、圖二、圖三、禮器圖、樂器圖、舞佾圖。

揭示「道統源流圖」後，由書名「聖蹟圖」開篇小字得悉，母本並非明代聖蹟圖，而是「皇明闕里誌圖本」。在幾種聖像之後，有地圖類之「魯國圖」、「尼山圖」；有孔廟建築群俯瞰之「新廟」三圖，以及屬於禮樂制度之「禮器圖」、「樂器圖」、「舞佾圖」。[圖29] 至於6種孔子像中，接續「聖像」之「魯司寇像」，有佩紅玉綠簪黃纓穿紫褐裘的標註，可作為孔子繪像著色的依據。再者，頁首「聖像」，有引句「先聖生有異質長九尺六寸腰大十圍」及小字註解」。本書第一部份「孔子聖蹟圖」內容與前書《先聖闕里圖》完全相同，顯係以其為母本的後代刊印。

本書第二部為「聖學淵源儒林錄」，內容依序如下：東方聖學源流圖、文廟大成殿從享圖、啟聖祠、釋奠饌品、東方儒林淵源錄、補遺。

筆者細查「東方聖學源流圖」，始於檀君，歷彭虞到箕子，其下薛聰、崔致遠、金良鑑、崔沖、安裕……以降，分支分派，後有李穡、金宗直、李滉、李珥、宋時烈、權尚夏、吳熙常、洪直弼、宋秉濂、田愚等東國大儒。其後為「東方儒林淵源錄」，各家小傳樣式，舉隅如下：

薛聰：字聰智新羅神文王時人以方言解九經又製吏文高麗顯宗時封弘儒侯從祀文廟
崔致遠：字海天號孤雲沙梁部人十二歲入唐登制科二十八東還無意進取放迹山水林泉隱于伽倻山不知所終高麗顯宗時封文昌侯從祀文廟

此處則為兩欄：上欄姓名、下欄字號封謚等簡傳。始於薛聰，終於宋秉濂、田愚。「東方儒林淵源錄」與前引「東方聖學源流圖」人員相符，共計108位。其後又有「補遺」，小傳較短。「補遺」始於黃喜，包括：洪履祥、朴趾源、丁若鏞，終於宋啟軒，共計94位。本書封底裡之版權頁已顯露現代出版樣態。[圖32]

(二)《續修聖蹟圖後學錄》(TK 1787 1660.2)

同一個索書號有兩本，第一本無異就是前書之複本，皆為鄭殷采、金正穆編，序文皆金正穆序於大正6年（1917），二序字句略有些微出入，此本頁面無格線，前本有格線，前本應係後本之擴編，於大正13年甲子（1924）重刊。序後接「道統源流圖」，其下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及聖像註解，以下圖版依序：

先聖行教小影顏子從行、凭几像、乘輅像、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魯國圖、防山、顏母山尼山相對、尼山顏母山相對、孔林圖、宋闕里廟制、金闕里廟制、國朝闕里廟制、新廟圖一、圖二、圖三、禮器圖、樂器圖、舞佾圖。

圖版較前書為多。至於書之第二部「東方聖學源流圖」相同，「東方儒林淵源錄」亦較前書多，計123人。「補遺」則同前94人。此本詳而前書略，既前書「甲子重刊」，應為後出，那麼先刊的此本較為完整，重刊的前書作了部份刪節。

《續修聖蹟圖後學錄》之第二本，無序、無「道統源流圖」，首頁為「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及聖像註解」，後僅接「先聖行教小影顏子從行」、「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三幅圖版。此外，全本為「後學錄」清冊，由頁一至頁六十一，每頁有左右兩欄，每欄少則5人，多至10人，共計近千人。始於：鄭殷采、朴基英、趙敬植、張赫、卞容圭，……柳文熙、柳光熙、李德基、徐丙周（終）。

值得玩味的是，第一、第二種（兩本）書名，均取源於明代編繪孔子豐富行跡圖像之「聖蹟圖」，然翻覽三書，前二種，雖有孔子與弟子多種畫像，有地圖、廟體建築並禮樂制度等物質性圖像，然未承繼明代展現孔子生平行誼履蹟之「聖蹟圖」。而此三書皆有明顯訴求，是載記聖學淵源及儒林後學姓名之小傳簿錄。

(三)《孔夫子聖蹟圖 續修五倫行實圖》(TK 1787 1660.32)

此書最晚出，大正15年（1926）鄭成默編，為現代刊印版，僅有一幀聖像圖，既無冠於書名之「聖蹟圖」，亦無「五倫行實圖」，全書為一薄冊，僅有忠賢9人姓名生平（附逸文）及賢媛12人生平，如此名實不符，或係題文張冠李戴？或係錯漏使然？有待深考。此書為日帝強占期由京城先聖廟事務所編印，有組織頗為龐大之「京城先聖廟」編

輯委員會，包括都約長（創立約長）、約長、編輯部長、事務約長、有司等人員多達164位，封底裡的版權頁亦稱完備。[圖33]

四、韓國孔子履歷圖誌的特色

（一）以「闕里誌」為核心

根據以上考察，韓國的孔子履歷圖誌大抵以中國刊本為底稿，將卷次繁多大部頭的明刊本擷取精華，重行刊印為輕簡本者居多，如《孔子通紀》、《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等。雖陳鎬《闕里志》李東陽序曰：「以《孔氏實錄》、《孔庭纂要》、《素王事記世家》補鈔本致之，以備采擇。」提及了《素王事記世家》，然中國似未見以書，朝鮮時代編印之《新刊素王事紀》，或掌握中國底本，或自行創編，「新刊」二字莫不顯現其珍稀的文獻價值。再者，有擷取中國菁華素材增入東國事蹟者，以《東國闕里誌》、《魯城闕里誌》、《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為代表。拙文試為韓國編刊之孔子履歷文獻分成「編年紀事」、「闕里誌」、「聖蹟圖」三大類，經過細究發現，各書實受明弘治十八年（1505）陳鎬編定之十三卷《闕里志》影響最深。韓國多種刊本皆溯及此本，或逕以小字註曰：「皇明闕里志圖本」字樣。陳鎬編《闕里志》是一部專門載錄孔子故里、典制及其生平事蹟的綜合史志，後世迭有增補擴編，此書在朝鮮時代受到廣泛關注，可能與修葺祝融劫後之曲阜孔廟有關。曲阜孔廟是祭祀孔子的本廟，位於孔子故里山東曲阜城內，又稱「闕里至聖廟」，始建於魯哀公17年（478B.C.），歷代增修擴建，經兩千四百餘年祭祀不絕，是中國淵源最古、歷史最長的一組建築物，也是海內外數千座孔廟之先河，和相鄰之孔府、城北孔林合稱「三孔」。元、明兩代孔廟重新修建多達數十次。其中最重要的一次是明孝宗弘治12年（1499）。當時孔廟遭雷擊，大成殿等120餘楹建築化為灰燼。此次重修，總共歷時5年，於弘治17年（1504）告訖，同時敕編之《闕里志》於次年（1505）編成。[37]此本宛若神聖正典之里程碑，據最晚出李燮宰編《闕里誌》可知，明弘治年間陳鎬奉命纂次編成。半世紀後，朝鮮宣宗時期（1567-1608），中國使節攜來一本十冊，「命賜夫子六十四世孫文獻公瑞麟之冑孫」，開始流傳東國，朝鮮時代編纂孔子履歷文獻多推尊此

37) 曲阜孔廟參見維基百科https://zh.wikipedia.org/wiki/……E5%AD%94%E5%BA%99 (2021.10.20)

本，並增益東國史實。

哈佛燕京圖館藏14種孔子履歷文獻第二類「闕里誌」之5種書籍，全以此命名：《東國闕里誌》、《魯城闕里誌》、《魯城闕里祠新安誌》、《先聖闕里圖》、《闕里誌》。其中可以朝鮮稀珍文本《東國闕里誌》為代表，序跋交待該書之編撰動機、要旨、過程、體例、蒐採、人力，既直接繼承明代陳鎬《闕里志》，又有東國部份史實之擴充。本書刊刻乃輯舊新二誌，合成一統，鳩財付梓，前後歷3年始成。二序署款具有強烈的正統意識，〈闕里誌後序〉以明朝紀年：「崇禎紀元後四己亥」，另篇跋識則以春秋紀年：「春秋獲麟後兩千三百二十年己亥」，二者皆為朝鮮憲宗6年己亥（1839）由居於東國之孔子後裔孔明烈編撰，接續春秋與明亡之王室正統之意識鮮明。至於最晚成書之李燮宰編《闕里誌》，擷取弘治《闕里志》精華，效法前諸書體例，納入東國史實，還附入朱文公像以擴大闕里誌之範圍，可謂韓國孔子闕里誌之集大成者。

(二)「闕里圖」與「聖蹟圖」的重疊

「闕里誌」為韓國孔子履歷文獻之核心，圖版方面亦值得注意。再以《魯城闕里誌》為例，卷前圖版有中國之「曲阜闕里圖」，與東國之「魯城闕里圖」與「華城闕里圖」兩種；其次為「聖像魯司寇時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其次為「朱文公像」。本書以文字載記為核心，圖版僅選「闕里圖」與「聖像」二者。至於《先聖闕里圖》，則全書為圖版，首頁首行為標題「聖蹟圖」，下方小字註曰：「皇明闕里志圖本」，其編次如下：

> 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聖像、先聖行教小影顏子從行、凭几像、乘輅圖、聖像、魯司寇像玉紅色綠簪黃纓紫褐裘、魯國圖、防山、顏母山尼山相對、尼山顏母山相對、孔林圖、宋闕里廟制、金闕里廟制、國朝闕里廟制、新廟圖一、圖二、圖三、禮器圖、樂器圖、舞佾圖。

這些圖像包括：一、孔子聖像與弟子陪侍像；二、魯國圖、防山、顏母山、尼山、孔林等地圖類；三、從祀配位之宋金明闕里廟制之新廟三圖；四、屬於禮樂制度之禮器圖、樂器圖、舞佾圖等，共有四種類型。經過比對，《先聖闕里圖》圖版悉採自明代陳鎬《闕里志》之「圖像志」與「禮樂志」而來。「圖像志」包括：崇祀像、行教像、司寇像、凭几像、乘輅像、魯國圖、聖廟圖、闕里新城圖、尼山圖、防山圖、孔林圖……等。「禮樂志」包括：位次圖、禮器圖、禮

器說、陳設圖、樂器圖、樂器說、樂舞圖、奏樂位次圖、歌章……等。有趣的是，《先聖闕里圖》的編者將纂輯聖人家史之「闕里圖」與表徵孔子行誼的「聖蹟圖」作了連結，在該書內頁的標題定為「聖蹟圖」。

明清時期孔子的「聖蹟圖」，有以張楷為代表的29幅圖版本系統，以及孔聖全傳多達112幅圖的版本系統，而明萬曆年間吳嘉謨編《孔聖家語圖》，除彙輯《孔子家語》文字內容外，又刻入四十幅「聖蹟圖」，凡此皆表現著明清時期對孔子生平圖編繪的高度興趣。

《先聖闕里誌》的內頁雖命名為「聖蹟圖」，卻與明代張楷編製及其後續系列之《聖蹟圖》完全無涉，還特別注說「皇明闕里誌圖本」，這個「聖蹟圖皇明闕里誌圖本」字樣，及其繪刻之圖版，在韓國第三類「聖蹟圖」諸書中反覆出現，似乎是韓國「孔子聖蹟圖」的母本，呈現著「聖蹟圖」源出「闕里誌圖本」的特色。

筆者在哈佛燕京圖書館所見韓國孔子之履歷圖，無論名為「闕里圖」、「聖蹟圖」或「孔子家語」，均與明代融合「闕里誌」與「孔子家語」兩類編刻創成偉構的「聖蹟圖」無涉。然筆者蒐閱燕圖所藏日本繪刻之聖蹟圖，如《孔子家語圖解》、《孔子行狀圖解》二書，皆與張楷《聖蹟圖》有承襲關係，而「聖蹟圖」在日本江戶時代的出版與傳播可謂盛極一時。（下詳）筆者不解的是，韓國究竟有無與日本相類、沿承中國明代繪刻系統之《聖蹟圖》？係因為燕京圖書館藏書有所侷限？或確無此類書籍？理由何在？有待細考。

（三）關注「聖像」

孔子聖像之繪刻，貫串於韓國三類孔子履歷文獻中，大抵源自於明刊《闕里志》之「圖像志」如：先聖行教小影顏子從行、凭几像、乘輅圖等，特選傳吳道子繪「魯司寇像」作為「聖像」，並有小字註曰：「紅玉綠簪黃纓穿紫褐裘」，相互傳刻，反覆出現，是對聖像繪製著色的標準規範。[圖34] 其次，翻至首頁「聖像」句解，引句：「先聖生有異質長九尺六寸腰大十圍」，以下有大幅註曰：

> 出祖庭廣記。又云先聖凡（按：漏四）十九表，反首，洼面，月角，日準，手握天文，足履度字，或作王字，坐如龍蹲，立如鳳峙，望之如仆，就之如升，耳垂珠庭。龜脊，龍形，虎掌，胼脅，參膺，河目，海口，山臍，林背，翼臂，斗唇，注頭，隆鼻，阜脥，堤眉。地足谷竅，雷聲澤腹，昌顏，均頤，輔喉，駢齒。眉有一十二采，目有二十四理。

其頂似唐堯，其顙似虞舜，其項類皐陶，其肩類子產。自腰以下，不及禹者三寸，胸有文曰：制作定世符。今家廟所藏畫像，衣燕居服，顔子從行者，於聖像最真。

前文曾引《東家雜記》載曰：「今家廟所藏畫像，衣燕居服、顔子從行者，世謂之小影，於聖像為最真。」由此可看出中韓印本文字的承襲關係。這篇對孔子形貌的引句與集釋，其旨趣與第一類《新刊素王事紀》相仿，兩相比較，「聖蹟圖」聖像句解「身長九尺六寸腰大十圍」為單頁簡版，《新刊素王事紀》聖像集釋為兩頁繁版，雖二者文字的組構重心與詳略不同，皆引自孔氏後裔輯纂如《祖庭廣記》等載籍，為後來《闕里志》所吸納，故李東陽序曰：「陳君乃參閱孔氏所藏《祖庭廣記》與凡遺碑斷刻諸書所載，踰年而後成。」上述簡版的聖像句解反覆在「聖蹟圖」出現，表示韓國近世對聖人形貌的高度關注。[38]

(四) 其他特色

韓國孔子履歷文獻除了以上三點特色外，尚可歸納如下幾點：

1、東國接續的正統意識

誠如《魯城闕里誌》跋曰：「我東有兩處夫子祠，而考其創建，魯城則在於肅廟丙申，華城則在於正廟壬子，列聖朝衛道慕聖之意，極為隆摯。」東國接續正統孔子早有預言，彷彿是天賦使命：「矧今神州陸沈，青邱一域，獨免腥穢，則夫子浮海之嘆，殆啟就此肹蠁之前知矣歟？今欲倣古闕里誌，而更成此誌，以備事實，則逖處遐僻，不獲躬見者，亦皆知有東魯之偉觀也，殊非細幸？」孔子之後以迄於明亡滿清入關，即「神州陸沈」，有賴東國傳承漢儒脈系，此種接續正統的意識隱伏貫串於孔子履歷文獻中，朝鮮時期之東國或魯城闕里誌，到日帝強占期之儒學淵源錄等，莫不強調東國儒學法脈不斷。

---

38) 關於韓國近世對孔子「聖蹟圖」之形貌賦以高度關注，尚有多種韓國學者論述可以參酌：曺庭六，「경상대도서관 소장 蔡龍臣의〈至聖先師孔子像〉연구」(慶尚大學圖書館藏蔡龍臣的〈至聖先師孔子像〉研究)，『南冥學研究』66，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2020。曺庭六，「萬世師表의 表象〈孔子行教像〉의 연원과 展開 과정」(萬世師表之表象：〈孔子行教像〉的由來及展開過程)，『동악미술사학』19，동악미술사학회，2016。송희경，「공자 고사의 시각화 기기도(欹器圖) 연구」(孔子儒學的形象化：「欹器圖」研究)，『동양고전연구』62，동양고전학회，2016。

2、朱子的置入

韓國編刊之「闕里誌」系列，特意將朱子與孔子連結起來，以鞏固性理學繼承儒學之道統基礎。如《東國闕里誌》卷前圖版置入一幅「朱文公像」，其序曰：「昔金元亂華，宋室南遷，特封孔玠賜田承祭，因之紫陽朱子，倡明聖道，化閩越為鄒魯。我朝君臣上下篤信聖人傳授心法者，同一義諦。」而《魯城闕里祠新安誌》亦序曰：「朱子繼孔子者也，重朱子所以重孔子也。」另序曰：「夫子生於周末，作春秋、嚴尊攘，以詔天下萬世大經大法，而朱子生於宋末，使夫子之道大明於世者，亦豈非後孔子一人耶？」將朱子與孔子作了儒學脈系的繫連，故視朱子舊居為闕里，以朱子配享孔子，仿孔聖作朱子家史。這是韓國孔子履歷文獻的鮮明特色。

3、日帝強占期的編刊意涵

韓國於日帝強占期有多種編纂，大抵皆舊本重刊，按年份排序如下：《先聖闕里圖》（哲宗10年己未1859原刊，光武9年1905重刊）、《孔子編年》（大正6年乙卯秋1917）、《續修聖蹟圖後學錄》（大正6年1917序）、《孔子實紀》（大正10年1921刊）、《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大正13年甲子1924重刊）、《闕里誌》（大正13年1924重刊）、《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圖》（大正15年1926刊）……等。朝鮮王朝末期高宗推動現代化，稱光武改革，改元光武（1897），諸種編刊，或由晉州硯山道統祠藏版刊行，或由京城先聖廟事務所、京城青邱儒學會本部等不同機構組織有司推動重刊事宜。

《聖蹟圖》在朝鮮末期有一段時間停滯出版，似乎與大院君廢除書院有關。1873年大院君失去統治權後不久，聖蹟圖被大量繪製，恢復朝鮮王朝盛況。日帝強占期大量製作聖蹟圖，可能與當時出現許多受儒學啟蒙的公民團體試圖將儒學提升為宗教的風氣有關。人們需要教科書來教化大眾，開始繪製聖蹟圖，這或可說明1904年，孔在憲製作了精美的木雕聖蹟圖，同時亦出版韓國風格的鄭殷采聖蹟圖各25幅。[39]日帝強占期紛紛成立道統機構，並斥資人力、物力重新編整聖人事蹟，纂輯重刊，表示朝鮮重視儒學之風，並未隨著光武現代化改革而消匿，儒籍重刊的工作，幾乎是鄉里基層在推動，這個現象

39) 此論點，參引自同註32，曺庭六，「韓中 孔子聖蹟圖 研究」，東國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2021. 06。

韓國可謂獨樹一幟，非常值得深究。

參、餘論：尋繹儒家的知識型態

筆者上節針對韓國的孔子履歷文獻進行了初考，受限於時間，尚未及展開全面細部研究，以俟來日。至於日本方面，由江戶以迄明治初期，出現多種孔子履歷文獻和刻本，依刊刻時間排序有：《孔聖全書》(TJ 1075 3444)、《新刻鄒魯故事》(TJ 1042 2160)、《孔子家語》(TJ 1075 1130.1)、《孔子家語》(TJ 1075 1152.4)、《標箋孔子家語》(TJ 1075 1130.2)、《孔子行狀圖解》(TJ 1075 1122)、《孔子家語豕虎註》(TJ 1075 1130.7)、《孔子事跡圖解》(TJ 1075 1256)、《孔子集語》(TJ 1075 1120)、《孔子一代記（又名大聖傳）》(TJ 1075 1721)、《孔子履歷考》(TJ 1075 2644) 等書。日本學者永富青地撰有〈『聖蹟図』在日本的伝播情況以及研究現状与課題〉、〈江戸期における『聖蹟図』の出版について〉、〈聖蹟圖在日本江戶時代的出版與傳播〉幾篇大文，並作出啟發性總結曰：

> 貫穿江戶時代整個時期，文之、羅山、山東京傳等超一流知識階層以及嘉休（住友政友）、嵩山房（小林新兵衛）這些富有特色的書肆都積極參與了面嚮庶民階層的儒教普及活動。在日本刊刻多種多樣的《聖蹟圖》無疑是其中最具象徵性的存在。

作者非常詳盡梳理並探究江戶時期多種「聖蹟圖」的流傳，啟引筆者甚多，[40]筆者未來將在其堅實的考察基礎上，進一步將中、韓、日、越等《聖蹟圖》相關刊本進行比對研究。

筆者長期考察文人畫像文本，由畫蹟伸向刻本，由單幅拓向系列，由文人個案擴大為履歷圖誌。在考察宦蹟圖或履歷畫的過程中，筆者發現儒、釋、道皆有「聖蹟圖」，可能是明中葉以降文士履歷圖形式與內容的來源，由經籍擷取以表徵孔子行誼的「履歷圖誌」包括《闕里志》、《孔聖家語圖》與《聖蹟圖》，尤為重要。將融合倫理教化、經義闡析與傳記行誼等不同載籍來源的孔子履歷圖誌，賦以圖錄風格的視覺化敘事及特有的規制性思辨，新建聖人形象。雖標舉宦涯刑儀，亦不避物質日常瑣細，奉為至尊典範的孔子在聖

40) 參見永富青地〈聖蹟圖在日本江戶時代的出版與傳播〉，同註18，頁311-338。

俗之間穿梭，締造新穎視線及規訓性強的儒家知識景觀。東亞各國不乏孔子履歷圖誌：朝鮮時代《東國闕里誌》、《魯國闕里誌》、《新刊素王事紀》、《先聖闕里圖》；江戶時期《孔子家語圖解》、《孔子行狀圖解》；越南黎阮二朝《闕里合纂》，可交互參照以資觀測「聖蹟」為核心所輻射東亞漢文化圈之異趨共構圖像。

筆者未來擬將孔子「履歷圖誌」置於明清圖文書的脈絡，聚焦於聖人與經典組構而成之「儒家知識型態」，探討其如何形塑典範、詮釋歷史與經典闡析。進而尋繹近世東亞各國透過視覺化途徑如何對孔子「履歷圖誌」等聖人家史與制度文獻涉及之義涵進行建構、重整與流傳，祈以參照理解東亞儒家型態的知識樣式，對近世文化轉型之命題作出回應。

[附錄] 哈佛燕京圖書館藏韓國孔子履歷善本 序跋/目次 輯錄

《新刊素王事紀》(TK 1075 4312)

全書目錄

魯司寇像、先聖紀年圖、先聖世系圖、歷代追崇事始、廟宇、祠祭、行幸、正南面、賜衮冕、州縣學廟、設戟、二仲丁祀、祭用三獻、獻官法服、賜禮器、賜樂、設拜、頒祝、賜賛、禁淫祀、賜書、賜田、蠲稅役、襲封、世宦曲阜、墓給灑掃、墓禁樵採、拜謁蒞政

「附（錄）」之目

附素王事紀有目錄、大明會典祀儀羊城陳際泰大士父註釋家語憲未篇大概列聖朝頒行儀式從祀位增減事蹟、皇朝通制、省牲、釋奠笏記、正壇陳設圖、迎神以下樂章凡十五章、四配陳設圖、奠幣、十哲陳設圖、捧俎、兩廡陳設圖、徹豆、祝文、送神、月朔釋菜儀、望瘞、啟聖祠祭儀、正配位陳設圖、祝文、從祀位陳設圖、大成殿排班圖、省牲圓揖位圖

《孔聖家語》(TK 1075 0011.1)

全書目次

(乾冊)

卷第一：相魯第一、始誅第二、王言解第三、大婚解第四、儒行解第五。

卷第二：問禮第六、五儀解第七、致思第八、三恕第九、好生第十、觀周第十一、弟子行第十二、賢君第十三

卷第三：辯政第十四、六本第十五、辯物第十六、哀公問政第十七、顏回第十八、子路初見第十九、在厄第二十

卷第四：八官第二十一、困誓第二十二、五帝德第二十三、五帝第二十四、執轡第二十五、本命解第二十六、論禮第二十七

(坤冊)

卷第五：觀鄉射第二十八、郊問第二十九、五刑解第三十、刑政第三十一、禮運第三十二、冠頌第三十三、廟制第三十四、辯樂解第三十五、問玉第三十六、屈節解第三十七、七十二弟子解第三十八

卷第六：本姓解第三十九、終記解第四十、正論解第四十一、曲禮子貢問第四十二、曲禮子夏問第四十三、曲禮公西赤問第四十四。

《東國闕里誌》(TK1422/1161)

趙寅永〈東國闕里誌序〉

闕里，魯曲阜地，而聖人之舊居也。後之誌其地以述聖人，固宜此，明弘治間闕里誌所由輯也。然吾東之又有闕里誌，抑何哉？粤在我正宗大王，以聖人尊聖人，就聖人之後之基建祠，以祀聖人，額曰：聖廟，命其地曰闕里。在今水原府之南九井里，即聖人六十三世孫文獻公瑞麟講學處。孔氏之居吾東，自元翰林學士紹始，而文獻公為其後也。然則因孔氏之基，表聖人之祠，亦可謂闕里也。夫子曰：吾其為東周乎？釋之者曰：興周道於東方，魯非周也，而曰周也者，由其為周道之可興焉耳。今我闕里之稱，與魯之為東周，何以異哉？夫子欲居九夷，釋之者曰：箕子封於朝鮮東夷之地也，則聖人之意，未始不以吾東為可居也，此可以質聖人矣。文獻公後孫明烈甫遵先王之義，起倣舊誌之發凡，首之以聖像、

廟制、祀享之式，次以國史、野乘，凡為孔氏典憲者，旁搜博採，編成一帙，以為東國闕里誌，以寅永先人嘗銘文獻公墓，述其誼，俾為序。寅永不敢辞，拱手言曰：昔柳若謂子思曰：子聖人之後也，四方於子乎觀禮，子盍慎諸推是義也。凡為聖人之後者當如何也。其學易也；其志春秋也；其行孝經也；其言詩書執禮也。六藝之義尚可考也，四教之旨尚可遵也，苟不於斯乎惓惓，而徒以廟堂禮器儀文之末，與列朝之恩澤，後承之派系，謂可輝映於百世，則此家史也，非聖人書也。聖人不云乎？禮云禮云，玉帛云乎哉？樂云樂云，鐘鼓云乎哉？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監春秋館事趙寅永撰；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恭賛官春秋館修撰官知製教宋祥來書

全書目次

(卷一) 華城闕里祠奉安像、華城闕里祠制圖、孔昌原伯墓圖、曲阜闕里原誌、東國孔氏本蹟、命建闕里祠事蹟、祀品、祝文式、賜額、祀典、御製祭文二、傳教揭板、錄用、傳教、賜改貫、承傳寄齋、給復戶、贈諡、筵說、禮曹關文、吏曹覆啟、禮曹覆啟

(卷二) 列聖朝授官恩澤、錄勳、列聖朝受教、御製詩、孔休嚴諡狀、休嚴行狀、休嚴神道碑銘、孔酒隱行狀、酒隱墓碣銘、上言二、告墓文、通文二、洪孺人旌閭事蹟 (孝烈并附)

(附錄) 新羅王子獻聖像事蹟、金文安公獻國學圖事蹟、安文成公奉聖像事蹟、魯城闕里祠創建事蹟、孔漁村字說、漁村記、李文靖公牧隱詩二、鄭文忠公圃隱詩、孔孤山行蹟重見、金文穆公思齋輓休巖詩、權忠定公齋堂後日記、齋交遊錄、巳卯錄 闕里祠完議節目跋文二、華城闕里記、遂安道東影堂事蹟、世表、世文

「體例」

一　中原闕里誌十三冊，刊印於皇明弘治年間，即孔氏之家史，斯文之廣記，是為舊誌。東國闕里誌一冊，實正廟遺志，而本孫設施者是為新誌，合十四冊印出。凡五百餘件，分排賫送于諸藏書所，及各邑校宮，俾為廣布久傳之計。

二 新誌一依舊誌例，而自昌原伯東來以後，恩澤褒嘉及子孫賢行先正撰述，圖像系譜，并為詳錄而謹載焉。

三 闕里祠在於華城文獻公舊址，而正廟義起刱建之所也。略倣魯城闕里祠例，傳教獻議及祝式祀品并一一謹書。

四 魯城亦有闕里祠，而此誌既以華城為主，故魯城事蹟不得不入於附錄中。

五 舊誌中，聖像圖摹刻頗有刓缺，故以闕里祠所奉真本，复為敬摹入梓。

六 系譜自昌元伯為始，而孔氏自有世譜，故只以兩派直孫入編，以著其代。

七 本孫行蹟之可記者，隨得入錄。故不以昭穆先後年代久近為拘。

八 子孫之出力添印者，亦為聽施以廣覩記。

九　舊誌百餘秩，先於嶺營開局刊印，而釐整於京局，時多有誤落，故并為洗草，复以京版印頒，尤致慎重之意。

洪直弼〈闕里誌後序〉

闕里誌成於皇明弘治之世，摹先聖肖像，爰及地形、廟制、世家宗系，附以顔曾思孟羣聖之出處行治，明叙禮樂制度沿革損益、歷代詔誥、勅祝、遺文、古事，靡不畢集。非直為孔氏之家史也。我邦列朝象德崇聖，夐越千古，逮健陵壬子，卽孔夫子六十三世孫文獻公瑞麟水原遺墟，建廟以祀夫子，名之曰闕里

祠，出內閣所藏先聖遺真，揭虔而尸祝焉，為之圖，用紀其宮牆井落為之譜用名其源流派族，又錄其遺裔，用襲垤組，世世不絕，所以賁治教而尚世類者，其盛矣乎！文獻公後孫明烈遵聖教，述先志，收輯創廟顛末、公私典籍，並及魯城闕里故實，號為東國闕里誌，合印闕里誌原本，而問序于不佞。不佞竊謂，夫子素日浮海欲居于吾東者，已啓今日之事，若有前定者存焉。昌原伯紹仕麗朝，不還庶，可謂遂聖祖之遺志，而雲仍克纘先休，世篤忠烈，至文獻公益闡家傳，卓然為善類領袖，真不愧 聖人之後焉。然苟非正廟寤寐宣尼江漢秋陽之慕，恒篤於羹牆之間，曷能隆報毖祀至於斯極哉？時固有待而然歟？噫！神州陸沉，鳧繹龜蒙舉入於犬羊之區，則今之闕里，非復昔之闕里也。夫子作春秋以尊華攘夷，為茅一義，則豈肯肹蠁於左衽之類乎，其必睠顧東華，克享宗廟子孫之饗者審矣。四海九州，固莫不尊親，而吾道既東，羣哲繼興，所誦法者孔子，則如水之靈，亦必感應而歆格。然則左海一域，雖謂之昌平曲阜亦可也。夫子不陋厥居，殆至誠之前知歟？昔金元亂華，宋室南遷，特封孔玠賜田承祭，因之紫陽朱子，倡明聖道，化閩越為鄒魯。我朝君臣上下篤信聖人傳授心法者，同一義諦。是固夫子聲教之東漸，而亦可占世運之郅隆也。天降將聖，使其道昌大休顯卒以塞宇宙而範無極者。若偏於我啓東土之文，明開萬世之太平，是可以見天心也。夫天地日月，縱無不覆載照臨，而法象度數，固必待仰觀俯察，而後覩盈虛餘閏，亦必待推步考驗而後知。願學孔子者，當體斯義，無屑屑於纂述聖蹟，惟求仁為己之是勗，馴致於鑽仰瞻忽，欲罷不能，則可以得其心而傳其道。其不日不用聖人許多工夫，看聖人底不出乎，為聖人後者，其欽念哉？是為闕里誌後序。

孔明烈〈後識〉

魯曲阜闕里，吾始祖宣聖之鄉也。今復紲見於箕邦者，何也？蓋以聖祖之像，妥侑於賢孫別胥之地，故義起而命名，亦稱闕里者也。皇明弘治年間，衍聖公聞韶氏與陳徐諸公，撰闕里誌十三篇，歷代崇聖之蹟，極其詳核，既有是誌矣。於東也亦不可無述焉。此新誌之所以繼舊誌而作也。嗚呼！我孔東出之派，有四賢祖焉，在麗季，則有若漁村孤山之節義，逮國朝，則有若休巖酒隱之名行，觀其世德而于聖祖有辭焉。此乃百世之公，言非小子之所敢溢美也。恭惟我正宗大王，以君師之尊，闡聖學之源，挽回三古之隆，吾道煥然復興。乃於壬子秋　聖教若曰：夫子後孫瑞麟，蔚為我國名賢，予甚嘉之，其特贈謚文獻，聞其舊址近在畿南。華城有文公之山，有文杏之樹，予甚異之，盍就聖裔所居，以建聖祠乎？日道臣鼎修，汝卽其地圖形來，予其相之。日守臣敬懋，汝其構廈而丹雘之。日燕价諸臣，予欲詳夫子家史乘，汝其購闕里譜來。日昌原諸孔，汝皆魯孔同族，自今以後，其本曲阜日允東，汝是東孔名裔，闕里系譜為汝自芸閣印頒可矣。粤明年六月，新祠告成，奉安　夫子影幀，額其扁曰聖廟，號其祠曰闕里，凡百祀典，皆出睿財，且收錄聖裔已有　列聖遺教而益軫體先之念。特書兩派，調用事于御覽官案及政案卷首，使之著式永遵。又以館學一窠，定為輪代之典。於戲！聖德大業至矣哉。賤臣名列，心常感泣，夙抱對揚之願，跧伏草野報答，無路苟能卒成是役，則庶可為闡揚萬一粗效涓埃之忱矣。是以不揆僭越，蒐而採之，自羅初至本朝，事關先蹟者，悉用抄錄，略倣舊誌以立条例。首揭聖像及祠圖、墓圖，尊體統也；次叙曲阜原誌，及東孔源流，詳本蹟也；載祭文香祝享官之儀，而祀典嚴矣；錄贈謚賜貫揭板之命，而恩典隆矣；明世德則有諸先祖之行；錄證淵源則有諸先證之撰述，以至筵說道啟關文及己卯史錄之類，因不備補且述東來昌原伯以上，衍聖直統以下，兩派冑傳，合為世表，以附其後。

書凡二篇，名之曰東國闕里誌，原任太學士趙相國寅永序以弁之，洪洗馬直弼又製後序，乃輯舊新二誌，合成一統，而鳩財付梓，始自丙申冬，粗刊於龍仁鄉舍，丁酉移于嶠南，戊戌又移設於京城，蓋緣事浩力綿之致也。搢紳章甫咸曰：是役也，師門事也，空士林之所公共，非本孫之獨私者於是乎？館學章甫主其事以紙筆相役，遐土縫掖，亦出幣以助費，匝二年而功迄。總為卷十四為帙五百，適是時內閣所藏。聖蹟圖出，卽吾夫子始終真蹟皇明時傳來真本，凡一百十二幅也。遂敬摹作帖，與二誌共成。吁！亦異哉！其必有所待者耶？乃收士林之齊議，先以一部全書謹備乙覽。又內自太學館閣，外至八域校庠，各頒一帙，使大東民士，莫不興起。其於聖代崇奬之道，豈日小補乎哉？噫！夫子之聖，天高日朗，然於天日之行，不推分度，則焉能測景，師聖之道亦類是。誦其書，考其蹟，然後可以無復餘蘊。余故曰；天日之行，不可無曆，象聖人之蹟，不可無圖誌也。至若華東闕里之地，異名同竊，有所興感者，雲仍之世，護賢儒之繼出，尚不愧於衍派之襲爵，則比之洙泗鄒魯之間，不其多歟？且吾夫子乘桴浮海之嘆，竟符於千載之後，則亦豈偶然也哉？嗚呼！先聖之大道，由正廟而益明，正廟之大烈，莫盛乎闕里建祠，蓋東方之有闕里誌，寔尊聖師立人極之一大關棙也。春秋獲麟後兩千三百二十年己亥秋，夫子七十五世孫東國闕里祠有司明烈拜手謹識

《魯城闕里誌》(TK 1422 1149)

全書目次

[魯城闕里誌上] 曲阜闕里圖、魯城闕里圖、華城闕里圖、聖像圖并配位、曲阜闕里原誌、歷代封謚、世表、東國孔氏本誌、新羅王子獻聖像事蹟、金文安公獻國學圖事蹟、安文成公奉聖像事蹟、孔漁村字說、孔孤山行蹟、受教判付、御製詩、筵說、賜改貫、承傳寄齋已上見東國闕里誌

[魯城闕里誌下] 本祠事實、陳設圖、刱建事蹟、祭物單子、笏記、祝文式、記文、邑誌、本誌、重修本蹟付從事邑、重修搢紳有司、重修通文、畫像本蹟、移建本誌、上樑文、還安告由文、配享告由文、配位祝文式、配位陳設圖、配位祭物單子、聖像移木苗誌、物目、移安告由文、還安告由文、齋舍創建事蹟、道內政閣優助錄、移摹懸板記、付錄

宋來熙〈書魯城闕里誌後〉

曩以聖像綃本之歲久渝損，後裔來恒等謀其改繪，屢次委詢，其儀節配位五賢諸影，並為移摹揭虔之後，今又致慨於本祠，文獻之莫徵，裒粹遺蹟，輯為一篇，名以魯城闕里誌。在昔皇明弘治年間，有闕里誌，圖像、事蹟、制勅、譔述，罔不備載。孔氏家史，更無加焉。我東有兩處夫子祠，而考其創建，魯城則在於肅廟丙申，華城則在於正廟壬子，列聖朝衛道慕聖之意，極為隆摯，矧今神州陸沈，青邱一域，獨免腥穢，則夫子浮海之嘆，殆啟就此肹蠁之前知矣歟？今欲倣古闕里誌，而更成此誌，以備事實，則逖處遐僻，不獲躬見者，亦皆知有東魯之偉觀也，殊非細幸？孔君之來謁，文非謏淺所敢當，而感其至意，畧叙前後，與聞於篇末云爾。崇禎紀元後四己未恩津宋來熙書。

宋觀洙〈敬書魯城闕里誌後〉

今去孔子，殆二千餘年矣。不幸而不出於夫子之時，未得摳衣於三千子之列，幸而生於朱子之後，得見夫子之道復明於世。嗚呼！夫子生於周末，作春秋、嚴尊攘，以詔天下萬世大經大法，而朱子生於宋末，使夫子之道大明於世者，亦豈非後孔子一人耶？尊攘之義不明於世，則人將盡入於夷狄之域，而夷狄

之有君者，亦能知夫夫子之為大聖，而或諡之以大成、或頌之以萬古夫子，則夫子之聖，宜其有萬世之祀矣。粤在肅廟丁卯，吾先祖文正公以魯聖山下闕里村，偶合於曲阜世祀之闕里，議與文谷金先生創建夫子廟而未及遂焉。時值龍蛇之禍，遺托於遂菴權先生矣。其後因夫子後孫思中、益善、益蕃等上言，蒙允以肅廟丙申創建祠宇，實遂菴先生奉遵遺教與丈巖睡村四大臣諸先生相議周旋，克竣其事也。嗚呼！自朱夫子沒而吾道東矣，我東諸賢以是相傳，以至吾先子，而又值明末，尊攘之義賴以復明，豈上下數千載之間，聖賢相符，必有應時相待者歟？又是一片青邱，腥塵莫穢，廟宇巍然，圖像儼臨，豈夫子浮海之歎，實為今日肹蠁之符驗歟？以至我純祖乙丑，又以朱子配享焉。則以集羣賢之大成，配集羣聖之大成，自有感應之理，而理固不誣，德必有隣者歟？然則士生斯世，獲睹盛儀，亦云幸矣。令其本孫孔敏洙以闕里誌屬余以文，夫文以贈人君子事也，余何敢焉？且圖像事蹟序記本末諸賢之述備矣，豈可王上加泥，以招後人之譏哉？其誠可感，辭不獲已，只以平日所嗟，惜於心者，為孔氏勉勵而為世道公誦焉。覽者或不以僭越為罪耶？嗚呼！勝國恭愍之世，夫子之孫翰林學士有諱紹者，有事東來而因居焉，位至平章事，爵封昌原伯，東國之有孔氏自此始矣。至其子若孫，家傳忠孝，世襲平章，遂致大顯，而至若孤山之際，本朝開國初，累徵不起者，苟非所守卓異，焉能致此哉？自其後顯官令職，略略相承，而挽近以來，子姓零替，家聲不振，殆不復知有大聖後裔，可不惜哉？惟我正宗朝壬子八月二十七日，筵教特出於尋常萬萬而惜乎，其時詢謀不一使，大哉王言，徒歸文具，此誠志士之恨，而且以列聖朝崇儒衛道之盛德至善，凡在本朝諸賢亦尚調用其子孫，況於大聖後裔，豈可任其昧沒不為之收錄乎？實為明時之欠典也，此在本孫，亦豈非自反處耶？苟能誦詩讀禮，飭躬操行，承襲世德，毋忝所生，則焉有後來之衰替耶？若使孔氏諸族，平居而行仁處，義有事而親上死長，則孔氏之復顯於東，余將側耳而佇聽矣。惟孔氏勉乎哉！勉乎哉！

《魯城闕里祠新安誌》(TK 1422 1149.2)

全書目次

(《新安誌》上目錄) 文公畫像圖、考亭記、晦菴陽基圖、文公塋墓圖、文節公塋墓圖、道學統宗之圖、文公年譜、門人錄、四書輯釋大成引總錄、廟宅、祠、書院、坊、亭、東國建祠錄、中國世系、列聖朝授教、文公行狀、清溪公事蹟、清溪公小傳、文節公遺書、文節公行狀、文節公傳、文節公墓表、行蹟遺補、綾城邑誌。

《新安誌》下目錄) 文忠公行蹟、忠孝錄、武烈公行蹟、武烈公辭金山疏、武烈公遺書、武烈公碑撰、遺鄭公起龍書、宣廟中興誌、參判公祭文、贈二朱君序、上言本草、刑曹關文、太學通文、成均館節目、前後族譜序文、禮曹單子。

朱文公畫像圖/池光翰像跋

此像乃家廟所藏，文公六十一歲時所寫真也。威儀儼肅，與常泛觀者大相逕庭。因拜手謹依原像摹寫鋟梓于卷端，使觀者亦可想見先生平日之氣像云，括蒼葉公回謹識。先生自題畫像曰：從容乎禮法之場，沈潛乎仁義之府。是予蓋將有意焉，而力莫能與也。佩先師之格言，奉前烈之遺矩，惟闇然而日修，或庶幾乎斯語。謹按蘇湖所藏記譜通編，即尤菴宋先生所編也。卷中有文公真像，遂命畫師粘紙原像摹出，可以毫髮不爽，謹存鴻史，年譜之末以寓景仰之誠。

〈考亭紀〉

建陽，考亭朱夫子陽基在建陽縣西五里，地名考亭。其龍與縣共祖雲谷山，來遠不述此，入局分縣龍右派於十里外，開帳出脉，過峽重疊，將入首又大斷，起玉枕峰，開大帳正脉玉枕中，奔騰磊落，數節即結穴，悠揚高爽，左右小水，界合分明，前有大溪繞帶，縣龍為下關，以攔水口，大安山聳前為正，朝滄洲鋪展於明堂之間，山明水秀，別一乾坤，其右地護龍，結大禪寺，文公初遷居於寺前，蓋其正基為陳承相業，而未可遽圖歟？

林準相〈新安誌跋〉

新安誌上下篇一卷，即文公朱夫子世系也、後承也、門弟也，中國及我東揭虔之所也，紀載之書也。竊惟今去夫子之世千有百許年之久矣。地之相距為四五十里之遠矣，而入我朝以後，聖君代作，醇儒輩出，必根極乎！夫子之書，至于遐鄉窮晩，莫不尊敬而講習，則今是誌之出，可謂有之無所補，無之無所闕也。然而是誌也，豈徒然哉？夫子之孫，東來之後，氏族鮮少，歷世不振，文節武烈之后，道德文章，高位大官尚矣。勿論國學鄉塾之間，桂籍蓮榜之上，夫子家人，絕無而僅有，至於編伍之賤而極矣。此不亶朱氏之冤鬱也。列朝眷眷之至意，果安在哉？然則是誌之出，亦足為警世道勉後昆之一助也。朱君顯基，朱氏之白眉也，實任是書之刊，以余之為知縣也。強委弁卷之文，余何敢當也。謹書刊書之始末而歸之，因此而竊有所感慨于中者，我東之朱氏，今如是矣。武夷、婺源之間，朱氏之雲仍（按即遠孫），其果幾人乎哉？果不如我東之朱氏乎？果能深夜發篋潛修篤工，讀夫子之書，講春秋之義，以待夫鐵杖木馬之世，以紹我夫子當日之盛德，至善否乎？今朱氏試博訪而廣詢焉。

朴炳文〈新安誌跋〉

謹按新安誌，誌卽文公新安朱夫子真像，儼然存在，如聞謦咳，且夫晦庵陽基道學統宗之圖，及考亭記、年譜、行狀、門人錄、四書輯釋、廟宅 祠、書院、坊、亭、中國世系、東國建祠錄、列聖朝教授，及出東朱氏始祖淸溪公以下，弘功偉烈，諸公事實行蹟。我東先正先賢，記文序跋，與刑禮曹太學所關書類，次第裒輯編成上下卷一冊，崇禎紀元后四庚申秋，魯城闕里祠刋行者也。而在昔正廟辛亥，因聖教咸昌縣新安書堂所奉孔夫子遺真，移安于闕里影堂矣。時嶺伯洪公檍聖像移奉于闕里祠後，朱夫子遺像獨留於新安書堂，事體未安之意，啓達矣。聖教内魯城闕里祠，取其名義，則意雖不符於朱子，然其師第之義，一體移奉可也。為教故仍，卽奉安于闕里者也，而意者五賢一幅幀，及諸賢影幀，亦同奉来者歟？考閱近思録，咸淳五年，詔賜文公闕里於婺源，則咸昌縣新安書堂文公真像移奉於魯城闕里祠之聖教，偶合咸淳故事也。宋御史王完疏以為，朱子繼孔子者也，重朱子所以重孔子也。朱子新安誌刋於闕里祠者，非徒新安亦重孔子闕里祠者也。嗚呼！孔子生於周末，作春秋、嚴尊攘，以詔天下萬世大經大法；朱子生於宋末，使孔子之道，復得大明於世者，此豈非後孔子一人耶？孔朱兩夫子，一體奉安於闕里祠者，吻合義意者也。大尤王言，正顔壬子，特教曰：兩夫子家畜之狗猶可愛，惜況其血孫乎？後儒之慕聖，本孫之孝思，倘復何如哉？徃在己未之刋行闕里誌，庚申之刋行新安誌，數不過百有餘帙，則無乃事巨力綿，不能廣佈於八域内校院及本孫家與儒林界者也。則以来本孫之遺，感儒林之齎鬱者久矣。余以後生末學，忝在本祠都有司之任名，欲遂萬一之誠者，亦有年所，而幸與一二同志詢謀協議，去己巳春闕里誌刋役始開於闕里祠，因力不逮而停役，百方周謀，辛未不獲已刋，所移轉於大田，閱歷三星霜，而癸酉夏告訖，須頒帙于八域，則知我罪我都在於此。然而闕里誌既是後功，則依前刋例，新安誌亦繼續刋行，此

固後學與本孫之責，故協謀同志，歸一克終，則七十有餘年，前後兩夫子真像改摹之事實，本祠之沿革略歷，開卷瞭然，兩誌重刋亦足以警世道勉後學，則斯文之盛舉，儒界之榮幸，孰有大於此欤？由此觀之，則一線之陽，庶乎在斯，然則遂庵權先生闕里祠廟庭碑曰：古賢有詩云：，天地中間有二人仲尼元氣紫陽真者，深得道學之源理者也夫！闕逢奄茂仲夏下澣後學務安朴炳文跋。

《闕里誌》(TK 1788 7270)

闕里誌序

闕里誌者，志吾夫子闕里之巔末，而皇明所刊行也。猗！我正考宣皇帝，因中使印來一本十冊，命賜夫子六十四世孫文獻公瑞麟之冑孫，自是以後吾東始知有此冊。於乎！詩書易禮之文，無非夫子之所刪正撰述也，春秋論語則載其心法言行者也。繼而有家語焉，有通紀焉，可謂詳且備矣。此猶未盡，又有此誌。洎于東土由羅，迄今尊聖崇文之舉，無代無之，况又魯城、華城兩邑，借其闕里之偶合同名，建祠奉像，朝野共崇，乃夫子桴海居夷之意，非若遍天下邑邑文廟之比也。近延安李燮宰，撮誌中大要，後附東國事蹟，編為數弓（按音義同卷），使之公傳于世，而刊布未廣，吾州之夫子后孫鎣杓，頃入闕里，合譜于曲阜，謹奉聖像而還建廟于其所居，青嶺里，道統山下，泗水上，杏亭之坊，使不可私於姓孫故，一省士林，齊聲合議，揭虔而釋菜焉。吁！亦盛矣。鎣杓又采立廟時事實，附于末端，將付剞劂，責不佞以弁卷，一語顧淺學謏聞，惡敢措辭，而乃若所告則有之。是誌也，原於中朝，經我乙覽，及于本孫，又一轉而至君，始得均布，覽是編者，徒知尊慕之，如是而不知所以尊之之實，則其可乎哉？要當益讀夫子之書，講明夫子之學，獲覩其宗廟之美，百官之富，然後施諸事，為措之於修身及家治國平天下之地，使斯道有以復明於世，則雖地非闕里，自不愧為闕里之人矣。可不勉哉？歲閼逢困敦陽月辛巳月城崔鉉弼謹序。

全書目次

(卷一) 聖像四本附弟子真像十二本、朱文公像、魯國圖、孔林圖、歷代闕里廟制、李朝魯城闕里廟制/華城闕里廟制、禮器圖、樂器圖、舞佾圖

(卷二) 姓譜、本姓、世表、尼山毓聖、年譜、歷代封謚、林墓、廟宇、杏壇、弟子列傳

(卷三) 獻聖像、獻國學圖、興學政奉聖像、立廟、建祠、祀典、親釋奠、祝式、樂章、王世子酌獻入學、辨祀、傳教、給田臧獲、文廟記蹟、聖像移（木苗）記蹟、東國孔氏本誌附賜改貫、授官恩澤

崔鉉弼〈泗上齋記〉

東土之有孔氏，昉自麗季恭愍王。朝元公主下嫁于麗，八學士陪從，而出吾夫子五十四世孫檜原君諱昭與其一焉。自是以後，雲仍（按：遠孫）遍處域中。中葉而有自龍仁移居于吾州之青嶺里者，至今為六七世矣。往在乙卯，龍仁孔在周、青嶺孔鎣杓，慨然以為，為夫子之裔，未覩夫子之遺風，其可乎哉？乃相與入中華，訪曲阜，則夫子冑孫衍聖公令貽論其世而考其譜，如合符信，即使謁廟而拜墓，繼又合譜，講明花樹之誼。及其歸，各賜夫子真像，且贈廟內之靈著一本，曰：以吾祖之裔，流落海外，今五百餘年，復合于一天，豈偶然哉？其恪守虔奉焉。在周歸來創議，士林齊聲，廟奉而禋享之。鎣杓則闔門窮約，誠未迄踐，近自數年來，公議始發，僉曰校宮之尊聖，自是國典也，聖裔之尊祖，豈可使偏而不咸乎？因列名成帖，以寓慕聖之誠，乃相地于本里泗水上，道統山下，面東而立廟，適茲青赤兩

土，出於其山，取足於丹艧之用。谷名杏亭，允合乎時雨莊壇之號，於乎異哉！山水土木之若有待於今日也。以夫子之德之盛，模臼夭於一幅綃面，天使之東渡，地應於上吉，人叶於多士，有非智力之容私於其間者也。以中元甲子夏五月中丁，奉安聖像而奠焉。仰之高、即之溫，優然若夫子在座，顔曾後先，寧可以七分而忽之乎？百世而疏之乎？苟使摳衣親炙於三千子之列，則何等榮幸！而不幸不生於當時，今於二千餘年之後，猶幸及覩於萬里之外，敢不景仰而瞻慕哉？廟下舊有本孫先齋，仍以為多士，釋菜時齊宿之所，扁其顔曰：泗上齋。鎣杓責余以記其顛趾，顧眇末膚淺，烏敢窺數仞之牆？而乃所願，則學夫子者也。况今道喪千載，邪說橫而詖行作，士失趨向，人各異路，吾道之微危於一髮，於是乎，而此廟適成，其將天地复霽，日月重華，使夫子之道煥然復明於斯世耶！是非獨弼也之願，實多士之願，實天下生靈之願。歲閼逢困敦乾之上浣月城崔鉉弼謹記。

孫鎣杓〈識〉

粤在赤蛇，鎣杓以宗國之戀，入闕里，拜夫子，嗣孫衍聖公令貽公慨然謂余曰：昔我學士公東出後五百餘年之間，未聞有一人來訪，意其子孫無有矣。今子始遠來，豈非天使吾祖之孫復合于一耶？優禮甚厚，因使修契合譜于曲阜，進謁夫子塑像，巍然若泰山之臨上，殆不敢仰視。及拜泗上墓，儒生數百，環列左右，冢上楷木鬱鬱成林。及還，公賜夫子真像一本，且贈廟內靈蓍百莖，戒以慎守，厚牘而別，伏念莫重。聖祖之像有不敢奉於私室，故因詢謀于吾州，士林僉議協同，一省僉君子欣然共之，乃建廟揭虔焉。今此闕里誌者，明朝之所刊也，正考之所印也，文獻家之所藏也，未及廣布。近為李燮宰所撮要，約之為數冊，乃敢末附真殿事實，并付剞劂，將公傳于世，其於公共之眼未知，不以為僭妄歟？敢識一言以暴私悃云爾。夫子七十四世孫鎣杓謹識。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TK 1787 1660.31)

金正穆序

學者每讀聖人經傳，尊敬如對君師，篤信如承面命，其開廢之際，思慮之間，斯須不敢忽諸心，故其書雖非聖人手筆，尊敬如是，篤信如是，開卷臨講，肅敬如聖人臨前，一心兢兢者，慕其威儀儼莊。而其誕降之蹟，稟質之異，老少時狀貌，出入時儀軌，皆有可模可範者，而為後學者漠然無知，實為千古深感。然其事槩載於闕里誌、聖學圖矣。今鄭君殷采，恐斯圖久而泯滅，後學無觀瞻興起之資，將重刊廣行，請余編訂。余妄猥奉閱，以整次序，瞻於聖像五本，有行教小影、凭几圖、乘輅圖，及聖像、魯司寇時像，則是雖不過當時之典型，而使後學一瞻肅敬嚴畏之心，自然而生，怳如升堂承顔，必欣必喜，尤敬尤信，稍敘千載願覿之憾矣。觀於魯國圖，及防山、尼山、孔林、顔母山諸圖，則亦不外於地理區界之略，而使後學一玩，怳如身到曲阜闕里，徜徉予洙泗之間，游覽山川之勝景矣。至於聖廟、家廟，及禮器、樂器、舞佾諸圖，則亦無過廟宇制度，享禮節次，而使後學一觀，怳如目睹其殿陛壯麗，規模宏大，次第詳明，儼若神在，肅敬之心油然而作，雖欲不學，自不可已。然則斯圖也，於學者對聖人之書，敬信如升聖人之堂，入聖人之室，無異於與七十子之徒同在進退之列，周旋左右，躬執杖几，雖欲不學，亦不可得也。斯圖之為後進為學之方，不為無助，斯圖若存，自有觀感而興起篤學者，鄭君之力亦大矣。美鄭君之意，廣後學之知，首引道統源流，尾附東儒淵源，以完一編云爾。歲丁巳榴夏後學月城后人金正穆謹序。

[附表一] 哈佛燕京圖書館藏韓國孔子履歷文獻分類一覽表

書 名	編撰者	卷 冊	刊刻時間 / 序 跋	索書號 / 備 註
孔 子 編 年 紀 事				
孔子通記	潘府 (1454-1526) 編著	8卷2冊	弘治辛酉 (1501) 劉瑞、謝鐸二序 , 癸亥 (1503) 潘府總辭、甲子 (1504) 羅僑識 朝鮮仁祖3年 (1625 , 天啓5年) 長城縣開板	TK 1075 3600
孔子編年	胡仔 (1110-1170) 編纂	5卷	大正6年乙卯 (1917) 晋州硯山道統祠藏版 孔子七十六代孫襲封衍聖公孔令貽序	TK 1422 323 朱子年譜、安子年譜三種合刊
孔子實紀	元泳義纂輯	4卷1冊	京城青邱儒學會本部 , 大正10年 (1921)	TK 1075 1138
新刊素王事紀	泰仁 : 朴致維編	1冊	純祖甲子 (1804)	TK 1075 4312
孔聖家語 (附 : 新刊素王事紀)	王廣謀句解 泰仁 : 田以采、朴致維編刊	6卷2冊	朝鮮純祖4年甲子 (1804)	TK 1075 0011.1 內頁書名 : 新刊標題句解孔子家語
(書名同上)	(同上)	3卷3冊	同上	TK 1075 0011 第3冊含 : 素王事紀、皇朝通制孔子廟祀、大明會典祀儀、後序、我朝文廟享祀… 等。

孔子闕里誌				
東國闕里誌	孔明烈 編	2卷1冊	漢城 : 朝鮮憲宗6年己亥 (1839) 己亥後識	TK 1422 1161
魯城闕里誌	孔來恒 等輯.	1冊上下	朝鮮哲宗10年己未 (1859) 編。高宗5年己巳 (1869) 重刊 , 高宗10年癸酉 (1873) 告訖	TK 1422 1149
魯城闕里祠新安誌	朴炳文	1冊上下	朝鮮哲宗11年庚申 (1860) 編。高宗5年己巳 (1869) 重刊 , 高宗10年癸酉 (1873) 告訖。昭和11年 (1936) 重刊 庚申 (1860) 林準相跋 / 甲戌 (1874) 朴炳文跋	TK 1422 1149.2
先聖闕里圖	鄭殷采	1冊	漢城 : 京鄕約所 , 朝鮮哲宗10年己未 (1859) , 光武9年 (1905) 重刊	TK 1787 1660.1
闕里誌	李燮宰	3卷3冊	大正13年甲子 (1924) 刊印 , 崔鉉弼〈闕里誌序〉、〈泗水齋記〉、孔鎣杓〈識〉	TK 1788 7270
孔子聖蹟圖				
續修聖蹟圖後學錄	鄭殷采、金正穆編	2冊	京城 : 大正6年丁巳 (1917) 金序	TK 1787 1660.2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	鄭殷采、金正穆編	2冊	京城 : 先聖廟事務所。丁巳 (大正6年 , 1917) 榴夏 (5月) 後學月城后人金正穆謹序 , 大正13年甲子 (1924) 重刊	TK 1787 1660.31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圖	鄭成默	1冊	京城 : 先聖廟事務所 ,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重刊 , 淵源儒林 , 鄕約本所。大正15年 (1926) 刊	TK 1787 1660.32 ′

[附表二] 中國、日本、越南孔子履歷文獻知見一覽表

中　　國					
書 名	編撰者	卷 冊	刊刻時間	版本訊息	燕京圖書館索書號 / 備註
聖蹟圖	張楷（式之)		英宗正統9年甲子(1444)	張楷序日：「時正統甲子秋七月望日，四明張楷式之盤手謹書于西臺公署。」	《聖蹟圖》材料多取自《論語》《史記》二書，有繪本、刻本、石刻、拓本等多種版本類型。
聖蹟圖	張楷、何珣		何廷瑞重刻、文友續成於弘治丁巳10年(1497)刻本	跋日：「……寅長汝南何公廷瑞守衡時，偶得刻本。……乃命畫工仿佛而一新之。其圖首序事及贊詞，一仍其舊。又嘗推類考之他書，有可紀而未及紀者九事，相與覈實，並增入之，通為一帙。……弘治丁巳（十年，1497）季春月朔日吉府重刊」(撰者不詳)	以正統甲子本為底本重刊。
聖蹟圖	張楷	彩繪本	武宗正德元年（1506）刻本	武宗正德元年（1506）刻鄧文質刊本已佚。北京大學圖書館藏應為後出本，為目前保存《孔子聖跡圖》最早的紙質版本。	北京大學圖書館藏。北京大學出版社《孔子聖跡圖》中英對照本（2017）即採此館藏明刊彩繪本。
闕里志	陳鎬	13卷	武宗正德元年（1506）增修本	李東陽於弘治17年(1504)首倡，並親定凡例，由陳鎬等修成。	
孔子家語	何孟春注	8卷/4冊	永明書院刻本，武宗正德2年	題「宋王肅纂注，明太子太傅襲封衍聖公孔胤植編正，何孟春補注，	T 1075 2215 永明書院刻有《標題句解孔子家語》3卷

			(1507) 何孟春序前刊	孔尚達參訂」。正德2年 (1507) 何孟春序，正德16年 (1521) 林俊題辭，正德16年黃鞏跋。	
聖蹟圖	張楷撰、朱見浚增補		世宗嘉靖27年 (1548) 瀋藩朱胤栘刻本		中國國家圖書館藏
闕里志	孔弘幹續	15卷	世宗嘉靖31年 (1552) 孔承業刻本		
闕里志	孔弘幹續	8卷/首1卷	世宗嘉靖43年 (1564) 刻、隆慶3年 (1569) 增修本		
聖門通考	包大爟編輯	12卷/年譜2卷/6冊	神宗萬曆15年 (1587) 書林清心堂刻本	題「四明後學包大爟編輯，從姪包垕校正。」前有萬曆8年 (1580) 馮時雨序，萬曆5年 (1577) 包大爟序。末有萬曆9年 (1581) 包垕跋。《引》13則，《凡例》11則 (後割去半頁)。	T 2261.1 2149 鈐印：「書林清心堂梓」
孔聖家語圖	明吳嘉謨輯	11卷/6冊	神宗萬曆17年 (1589) 自刻本	卷二題「武林後學吳嘉謨集校」。前有王鏊序及「凡例」9則。 是書曰「家語圖」者，乃從《家語》舊名而增其圖。卷一前為圖四十	T 1075 2340 卷一共四十幅。各圖皆為單幅，空白處標上四字圖名。據王重民指出，國家圖書館藏本有嘉謨自序，云圖依闕里所傳《聖蹟圖》

				幅，以孔聖像為首，「凡例」日：先聖歷年事蹟，雜見傳記諸書者，多牽合附會，莫可據信。惟《家語》、《史記》及《孔氏世譜》載先聖歷年事蹟頗詳，今謹據其說，續以聖蹟圖彙成四十篇，而以意按之於後，以便考古者稽焉。」自卷2起，乃為《家語》本文。	輯成。是本佚萬曆17年自序、王世貞序、萬曆17年楊士經跋。刻工為黃祖信。先聖像題「新都程起龍伯陽甫薰沐寫，歙人黃祖鑨。」燕京圖書館藏。另有一複本，有「岡田真之藏書」印。
大明萬曆孔聖夫子周遊列國全圖	何出光、孔弘復	1卷/1冊	神宗萬曆20年（1592）刻本	前有朱熹節錄《史記。世家》及整飭沂州兵備道前廣東道監察御史邵以仁《聖殿圖說》。末有萬曆20年（1592）山東按察司副使奉勅督理清軍驛傳鹽法前吏兵工三科左右給事中巡視京營大倉侍經筵官張應登後序。此本之刊刻，疑為明代坊間所為，繪圖、刻工頗簡率。構圖、技法遠不及明代萬曆至崇禎間南京、杭州等地書坊所刻戲曲小說之工緻精美。	T 1786.2 1346 各圖幅有四字題名及敘文。首為先聖小像（顏子從行）、次為尼山致禱、麒麟玉書、鈞天降聖。自第四圖至第九十五圖，為孔子立學、立教、為宦、周遊列國、著述等史事。第九十六圖至一百圖，為三壠植楷、弟子守墓、哀公立廟，以及漢高祖、宋真宗祭祀圖。共104圖。每圖對開一頁有文字釋解。據《史記・孔子世家》
聖蹟圖			神宗萬曆刻本		北京大學圖書館、河南省圖書館、北京師範大學圖書館等藏
聖蹟圖			神宗萬曆藍印本		中國國家圖書館藏
聖蹟圖（墨		原刻拓	神宗萬曆20年	孔子行教畫贊簽題。原刻120幅，此殘存23	TP1063 現藏哈佛燕京圖書館

拓)		片，23摺葉	(1592)原刻，清代拓本	幅。	
闕里志	孔貞叢撰	12卷	萬曆37年(1558)刻本		
聖蹟圖			穆宗隆慶6年刻本(1572)		安徽省博物館藏
聖蹟圖		1卷	莊烈帝崇禎刻本(1628-1644)	金鑲玉裝。鈐印有「謙齋藏書」、「無畏菴」、「江都薄氏鑒藏書畫記」。圖像結構與細節描繪承襲自正統九年刊本，但並非翻刻。亦非萬曆刻本之翻刻。	T1786.2 1346b 首頁「至聖先師像讚」僅半頁，右側應出現之從行顏子成為卷首孔子另像。其次，後人以頁三十六「漢高帝祀太牢圖」之後半葉移來成第二頁之前半葉。其次，第二頁~第三頁應係「禱尼山圖」，然此圖之前半頁誤挪移至最末成頁三十七之前半葉，此僅餘該圖之後半段。第四頁「麟吐玉書」以下則均為全頁圖幅。圖共編成三十七頁。「麟吐玉書」、「空中奏樂」、「二龍五老」三圖彼此接續失次。
闕里志	孔胤植重加訂補	24卷/10冊	明崇禎年刻、清雍正年間增修印本(1723-1735)	明陳鎬撰，孔胤植重輯。明崇禎間刻清雍正增修印本。前有弘治十八年(1505)李東陽〈闕里誌序〉、楊士聰〈重修闕里誌序〉，末有孔胤植〈闕里誌後序〉。卷1以降分別為卷1《圖像志》、2《禮樂志》、3《世家	T 1786 7582.12 卷1《圖像志》、卷2《禮樂志》均附圖，包括：孔子像、行教像、司寇像、凭几像、乘輅像等。其次是先師廟周邊地圖、聖廟俯瞰圖、明朝新築闕里城圖、尼山圖、防山圖、孔林圖、先賢位次圖、廡廊位次圖、啟聖

				志》、4《事蹟志》、5《史記世家》、6《祀典志》、7,8《宗子世紀》、9,10《人物志》、11《林廟志》、《山川志》、《古蹟志》、12《恩典志》、13《弟子志》、……18《撰述志》、……20,21《藝文志》……等。	王位圖。下卷二為禮器圖、陳設圖，含先師位、四配位、十哲位、兩廡）、樂器圖、樂舞圖、奏樂位次圖。
闕里廣志	宋際、宋慶長撰	20卷	清康熙13年（1674）刻本		
聖蹟全圖 .	張楷修、邵以仁增修	不分卷/2冊/卷前有闕名墨筆批語	清乾嘉（1736-1861）刻本	此本前後無序跋，無卷端題名，版心題「聖跡全圖」。扉頁刻「萬世師表」。書內有藏閱者之圈點批註。鈐印有：「江都薄氏鑒藏書畫記」、「守拙廬藏書記」	T1786.2 1346d 前有「至聖先師孔子遺像」，次為孔子事蹟諸圖。每圖一文，圖繪工緻。有四字標題，計：尼丘禱祠、麟吐玉書、龍繞星聖……。末附復聖像、宗聖像、述聖像、亞聖像及唐宋元明詩詞銘贊。 單幅圖像結構與萬曆刻《孔聖家語圖》為接近。全書結構如後附復聖像、宗聖像、述聖像、亞聖像及唐宋元明詩詞銘贊等，另成一系。
孔子集語	孫星衍	17卷/4冊	光緒3年（1877）浙江書局據陽湖孫氏本校刻	孫氏輯本被收入《續修四庫全書》，後者不但從文字數量上超出前者六至七倍，而且從編輯品質上也大大超過前者。他對薛氏輯本很不滿意，在晚年引疾歸田	9100 1435 《孔子集語》是關於孔子言行事蹟的文字彙編，傳世有兩種： 一是宋朝薛據輯的兩卷本。薛氏輯本被收入《四庫全書》。此本但分二十篇，

				後，與其族弟星海、侄婿龔慶一起檢閱群籍，從《易十翼》、《禮小戴記》、《春秋左氏傳》、《孝經》、《論語》、《孟子》，《孔子家語》、《孔叢子》、《史記・孔子世家》、《史記・仲尼弟子列傳》以外的八十三種典籍中采輯了八百一十三條孔子言行記錄，並仿照《說苑》的體裁按類編排，共分十四篇十七卷，前十篇反映孔子的基本思想，後四篇多屬於孔子生平事蹟和寓言故事。初稿纂成之後，請嚴可均審校，歷時六年成書。	僅有三卷。殆舊以一篇為一卷，後人并之歟？所列書凡三十餘種。其凡例謂《曾子》、《大戴禮》、《孔叢子》、《孔子家語》四全書及《左氏》、《莊子》、《荀子》、《列子》概不采及，惟見於他古書者采之。 二即是清朝孫星衍輯的十七卷本。(詳左)
歷代名家繪孔子聖跡圖精解	張楷 仇十洲 改琦等繪	1 函 // 2冊	北京：國家行政院出版社，2015 限量出版	選明張楷圖贊《聖跡圖》38幅（夾谷會齊有2幅）、仇十洲繪、文徵明書《聖蹟圖》40幅、清改琦繪《孔子聖跡圖》10幅、李炳銓《聖跡圖》20幅、近代臨本《聖跡圖》105幅彙集成書。	以安徽涇縣上等宣紙印製，採傳統古法手工裝訂。 此書由劉偉見博士針對不同版本的圖文內容加以解讀。
日　　本					
書 名	編撰者	卷 冊	刊刻時間 / 版本訊息	燕京圖書館索書號 / 備註	
聖蹟圖（屏風及書冊)	張楷撰		家久本 慶長十三年（萬曆三十三年，1608）島津家有慶賀即藩主位之聖蹟圖屏風。寬永七年（崇	島津家久署名序（非為刊刻《聖蹟圖》而作，實島津繼承藩主位後命畫工臨摹複製「聖蹟圖」屏風而作），今日本鹿兒島縣有	

			禎三年，1630）於京都則有家久本之重刻。故家久本之刊刻應於慶長十三年到寬永七年之間。 此為創製於日本鹿兒島最早之明刊和刻本。家久本尚未流通普及。	「孔子聖蹟圖屛風」。家久本序文題有正統甲子（1444）秋七月望日之張楷序，以及撰者不詳署有弘治丁巳（十年，1497）之〈聖蹟圖跋〉，故家久本的底本應係弘治年間何廷瑞所策劃重刻之張楷《聖蹟圖》。該屛風基本上與弘治十年明刻本插圖基本相同。而家久本之插圖則繪筆略顯稚拙。（永富青地p.313-314）
聖蹟圖			嘉休本 寬永七年（崇禎三年，1630）於京都依家久本之重刻本。江戶流行	江戶時期流行較廣之最早重刻本。有島津家久、張楷序、無名氏跋，文章訓點亦忠實於家久本，並於卷末載記：「時寬永上章敦祥（庚午，寬永七年）仲夏吉辰，洛陽（京都別稱）下嘉休（住友政友，法名空禪，於京都開設經營書籍及醫藥品反魂丹之富士屋）刊行」。日本國內流行的《聖蹟圖》刊本由此本開始流行。（永富青地p.321-322）
聖蹟圖			元祿本 元祿四年（淸康熙三十年，1691）於武城（即江戶，今東京）河井德久序刊本。	蘭棲野人〈新刊聖蹟圖敍〉、張楷序，末附有「元祿四年余月穀旦武城（即江戶，今東京）河井德久謹題」字樣。卷末有「辛未仲秋上浣深津又一藏版」

				字樣。敘、跋均論及當時儒學於日本之隆盛，並盡可能去除「家久本」受何廷瑞增補本關於孔子誕生神靈不經之說的影響及圖版。此本並非中國刊本之翻刻，係參照了正德九年刻本模樣根據家久本或嘉休本重刻。（永富青地p.322-326）
聖蹟圖說諺解	林羅山（1583-1657）編		萬治二年（清順治十六年，1659）由荒川四郎左衛門刊行、又有文化戊辰（嘉慶十三年，1808）再印本。.	本書採混用漢字假名之日文書寫。末有混用漢字假名日文翻譯之明鄧棨正統乙丑（十年，1445）跋。原三十八幅圖減為二十幅，而文章則翻譯並增益解說，具教育色彩。（永富青地p.326-329）
孔聖全書	安夢松纂、明黃大年校	首卷與13卷/3冊/繪入本	京師（Kyoto）：武村三郎兵衛，寬文8年（1668）	TJ 1075 3444
新刻鄒魯故事	魏時應纂輯	5卷/1冊	京都（Kyoto）：今井善兵衛，延寶3年（1675）	TJ 1042 2160
孔子家語	魏王肅註、岡白駒補註	10卷/5冊	京師（Kyoto）：風月堂莊左衛門重梓，寬保元年（1741）有元文2年（1738）岡白駒（1692-1767）自序	TJ 1075 1130.1
孔子家語	魏王肅注、太宰春臺增注	10卷/5冊	江都（Tokyo）：書肆嵩山房，寬保2年（1742）	TJ 1075 1152.4
標箋孔子家	魏王肅注、太宰春臺	10卷	江都（Tokyo）：嵩山	TJ 1075 1130.2

語	增注、千葉芸閣訂	/5冊	房小林新兵衛，寬政元年（1789）元文2年（1738）自序、寬政元年（1789）自序跋。嵩山房藏板	內題：孔子家語。
孔子行狀圖解	高圓乘画	1冊	江戶（Tokyo）：東都尚古堂，岡田屋嘉七梓，寬政己酉元年（乾隆五十四年，1789）	TJ 1075 1122 注：「標箋孔子家語 卷第一孔子行狀圖解」，有「岡田屋嘉七等三都七肆」字樣。小林新兵衛以明刊吳嘉謨《孔聖家語圖》為藍本刻印之。封面有三行，中間為大字書名「孔子行狀圖解」，右行為「寬政己酉新鐫 翻刻必究（篆印）」，左行為「東都書肆嵩山房梓」等字樣。全書採用漢文加訓點方式書寫。插圖由高圓乘繪製。此本有嵩山房獨自印本（卷末標有「小林新兵衛梓行」）與嵩山房及尚古堂岡田屋嘉七共同出版之印本。（永富青地p.329-330）
孔子家語冢虎註	魏王肅註、冢田（大峯）虎註.	10卷/5冊	東京：嵩山房小林新兵衛，寬政4年（1792）冢田大峯（1745-1832）寬政4年（1792）自序。	TJ 1075 1130.7 明治初期。環堵室嵩山藏版目錄（小林新兵衛）
孔子事跡圖解	瑞陽先生口授、天民（大窪詩佛）司馬鸞洲（1767-1838）畫	3冊	江戶（Tokyo）：東都嵩山房小林新兵衛，文化2年（1805）	TJ 1075 1256 封面有三行，中間為大字書名「孔子事跡圖解」，右行為「瑞陽先生口授 不許翻刻 千里必究」，左行為

				「天民/司馬鸞洲二先生畫嵩山房梓行」等字樣。有文化乙丑（1805）里景龍〈孔子事蹟圖解序〉，道出瑞陽先生為小林新兵衛之叔舅，並言及此書乃以《孔子行狀圖解》為藍本修潤改訂而成。序文多次出現「童習」、「童蒙」等詞語，具啟蒙用途。後附高英（小林新兵衛）日文〈書孔子事蹟圖解之後〉，末有「杉田金助刻」字樣。 此本文體採用漢字和平假名混同體（稱為漢文書き下し文體（兼用漢字和日語名、語序為日語語法的漢文體日語）。 p.s.深受歡迎的中國著作來到日本，往往先翻刻在漢文旁加注訓點，之後再出版「漢文書き下し文體」（兼用漢字和日語名、語序為日語語法的漢文體日語），更通俗易懂的版本。此書為《孔子行狀圖解》之簡明版，印刷量大，封面亦有全彩與黑白之不同印本。此本有嵩山房獨自印本（卷末標有「小林新兵衛梓行」）與嵩山房及尚古堂（江戶書肆）岡田屋嘉七共同出版之印本。（永富青地

				p.330-333)
孔子集語	宋薛據編、明鍾人傑閱	2卷/1冊	江都 (Tokyo) ：西村源六大和田安兵衛，文化12年 (1815)	TJ 1075 1120
孔子一代記（又名大聖傳)	北尾紅翠齋重政 (1739-1820) 画 山東京伝 (1761-1816) 撰	5卷/4冊	寬政二年 (乾隆五十五年，1790) ，江戶麩町三丁目的文榮堂 (三崎屋清吉) 刊行出版。其後有小林新兵衛於天保九年 (1838) 戊戌正月之再版。	TJ 1075 1721 共五卷，分元烹利亨四冊（元冊有兩卷，餘各一卷）。亨冊先「大聖傳卷三」，後接「孔子一世大聖畫傳卷上」(目八圖八) ，利冊先「大聖傳卷四」，後接「孔子一世大聖畫傳卷中」(目七圖七) ，亨冊先「大聖傳卷五，後接「孔子一世大聖畫傳卷下」(目八圖八) 。其內容與構圖均不同於明刊或日本重刻之「聖蹟圖」。末頁有「天保九 (戊戌) 年正月日　東京書肆日本橋通二丁目 小林 新兵衛」字樣。封底裡頁則有「三都 發行 書林」字樣，以下羅列「京都三條通升屋町 出雲寺文治郎」、「大阪心齋橋北久太郎町 河內屋喜兵衛」、「東京芝神明前 岡田屋嘉七」……等共十間書肆名錄，為其聯合出版之證明。圖中空白處有語體漢字題目，畫中物象多江戶時期色彩，為展現日本風味自創性高作品，日本讀者更易親近。

				*按：嵩山房因此從事了三種聖蹟圖的出版。事實上，明治時期嵩山房後印本之版權頁還印著小林新兵衛在江戶時期出版之新書廣告「孔子家語國字解 全五冊/孔子行狀圖解 全一冊/孔子事跡圖解 全三冊」（永富青地 p.330-333）
孔子履歷考	角田九華撰	2卷/2冊	浪華書林松根堂梓，嘉永2年（1849） 文化11年（1814）自序	TJ 1075 2644 江戶岡田屋嘉七、京都出雲寺文次郎、大阪加賀屋善藏
聖蹟圖	張楷撰	吉藩刻本	明弘治年間（1488-1505）刊，吉藩翻刻	日本內閣文庫藏
永富結論：天保九年（道光十八年，1838）距幕末美國將軍培里來航之嘉永六年（咸豐三年，1853）僅僅十五年。這樣看來，貫穿江戶時代整個時期，文之、羅山、山東京傳等超一流的知識階層以及嘉休（住友政友）、嵩山房（小林新兵衛）這些富有特色的書肆都積極參與了面嚮庶民階層的儒教普及活動。在日本刊刻的多種多樣的《聖蹟圖》無疑是其中最具象徵性的存在。（永富青地〈聖蹟圖在日本江戶時代的出版與傳播〉，收入沈乃文主編《版本目錄學研究》第八輯（北京大學出版社，2018），p.311-338。				

越　　南				
書 名	編撰者	卷 冊	刊刻時間 / 版本訊息	備 註
闕 里 合纂	阮朝裴輝松	10卷1冊，闕卷 第1-第9	河內壽昌縣文址印，題「壽河秀嶺裴輝松敬集」。	哈佛燕京圖書館藏有一本為孔子傳記及有關資料彙編。
闕 里 合纂	阮朝裴輝松	10卷	孔子傳記及有關資料彙編，題「壽河秀嶺裴輝松敬集」，河內壽昌縣文址印 (今越南河內漢喃研究院藏有一套，此提要採錄於該館藏本)	此書共十卷，卷一為「聖源發祥」和「謚封崇典」，內容是關於孔子身世事業的考述.卷二為「闕里圖繪」和「禮樂圖繪」，內容是關於孔子師弟及祭孔禮樂（含地圖、舞調、俎豆）的圖繪；卷三、卷四為「名賢配享」、「山川古蹟」和「寵蔭恩秩」；卷五至卷十為讚頌、歌詩、辭賦、詔諭、序論、銘跋、碑文、記文，載錄歷代關於孔子及其弟子的作品。
闕 里 合纂			圖釋本（據漢喃院善本書目著錄)	

[附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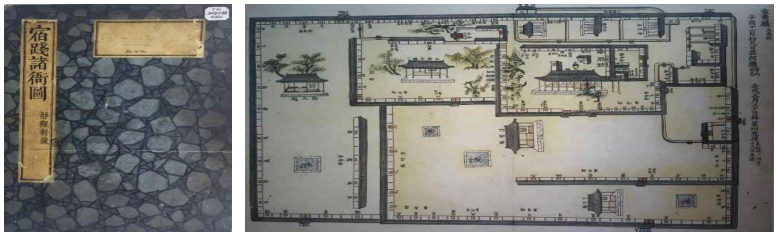
[圖1] [明] 江一桂《安南來威圖冊》擧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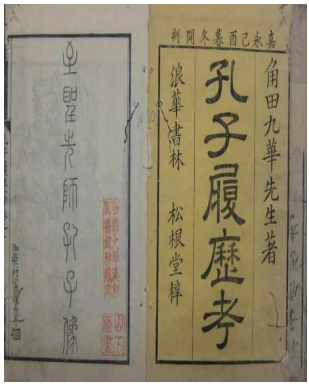
〔圖2〕[明]《徐顯卿宦蹟圖》冊頁擧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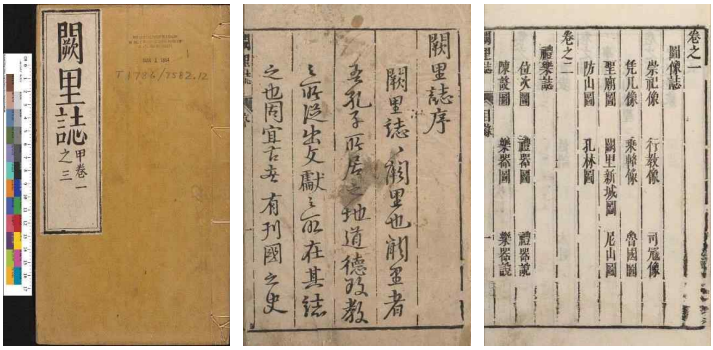
〔圖3〕[明] 釋大汕《行跡圖》版畫擧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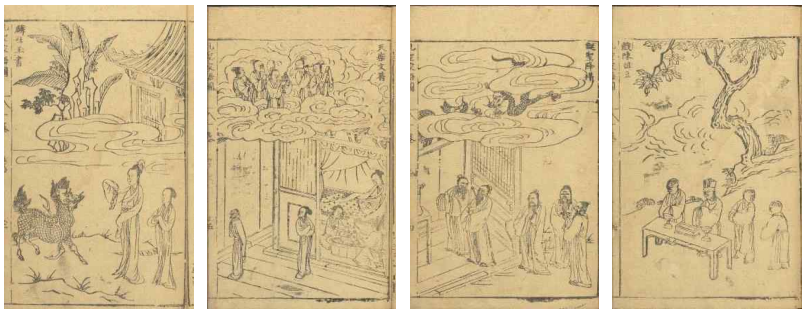
[圖4] [韓國] 韓弼教《宿踐諸衙圖》封面 / 內頁:「掌役宣惠廳」



[圖5] [日本] 角田九華撰《孔子履歷考》扉頁



[圖6] [明] 張鎬編《闕里志》 封面 / 序 / 目錄



[圖7] [明] 吳嘉謨《孔聖家語圖》(左至右) : 麟吐玉書/天樂文符/誕聖降祥/戲陳俎豆



[圖8] [明] 正德元年 (1506)《聖蹟圖》彩印本 (摹) : 尼山祝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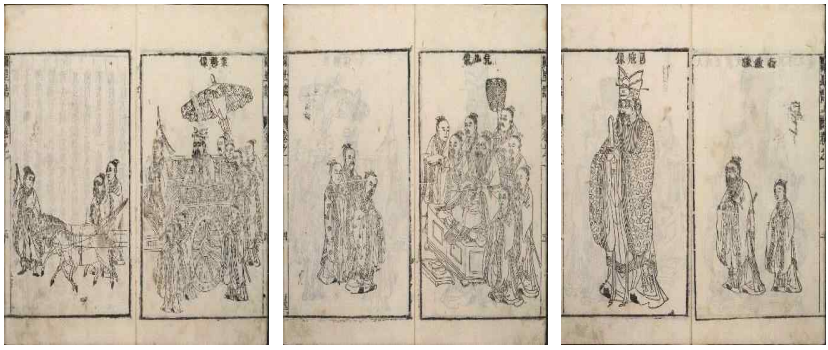
[圖9] [明]《大明萬曆孔聖夫子周遊列國全圖》封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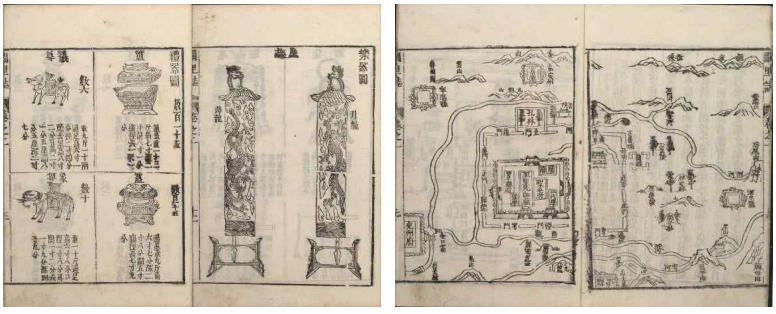
[圖10] [明] 崇禎本《聖蹟圖》卷首孔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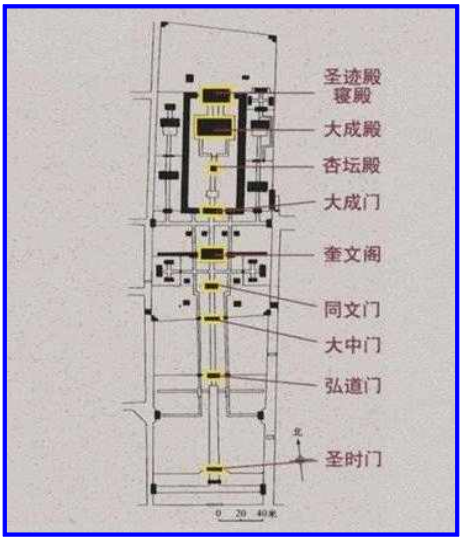
[圖11] [明] 張楷修、邵以仁增修《聖蹟圖》清初刻本
書內有藏家圈點批註與鈐印：「江都薄氏鑒藏書畫記」、「守拙廬藏書記」



[圖12] [明]《闕里志》卷一「圖像志」圖版舉隅



[圖13] [明]《闕里志》卷二「禮樂志」圖版舉隅



[圖14] 曲阜孔廟的中軸建築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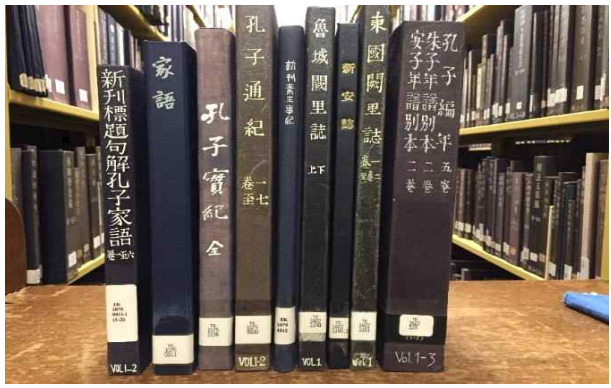
[圖15] [明]《釋氏源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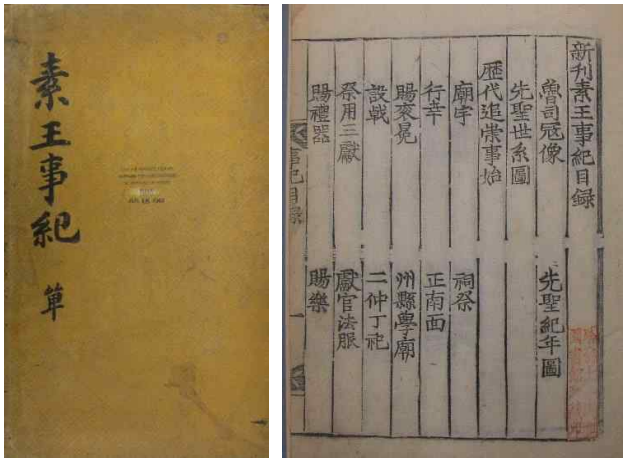
[圖16] [明]《聖蹟圖》孔子神靈化面向 : (左) 麒麟玉書 / (右) 鈞天降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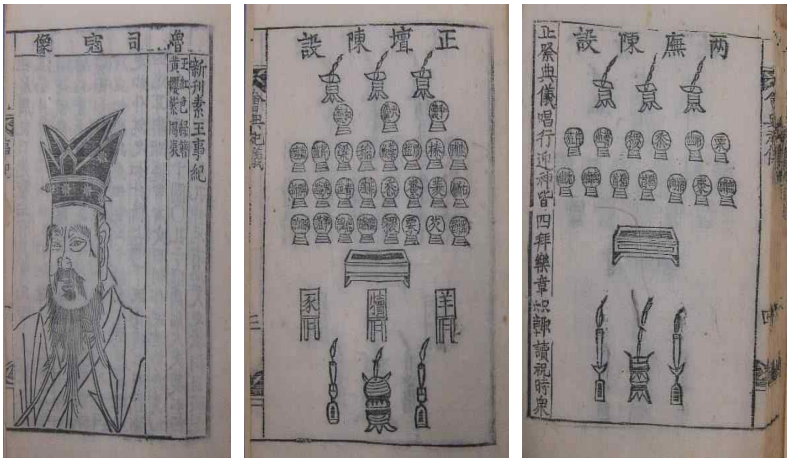
[圖17] [明]《聖蹟圖》官方祭奠 : (左) 真宗祀魯 / (右) 漢高祀魯



[圖18] 哈佛燕京圖書館善本室藏 韓國孔子履歷文獻九種書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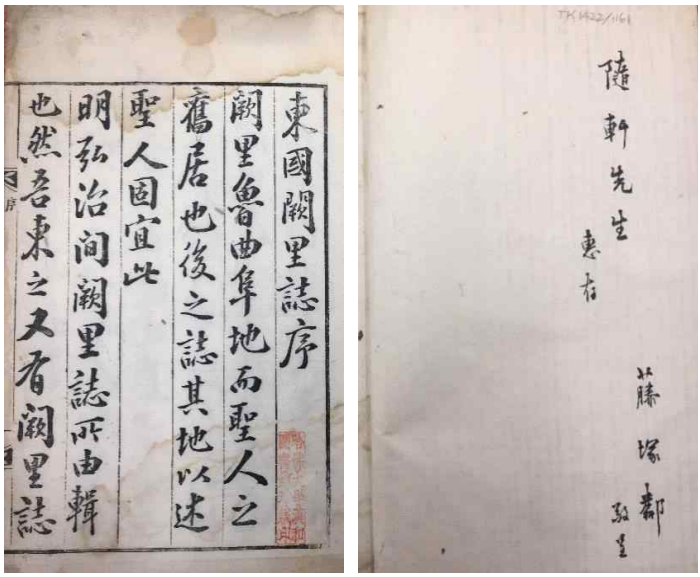
[圖19]《新刊素王事紀》封面 / 目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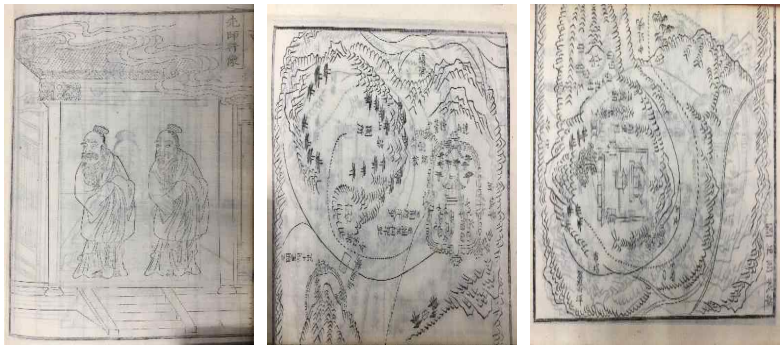
[圖20]《新刊素王事紀》聖像 / 兩種陳設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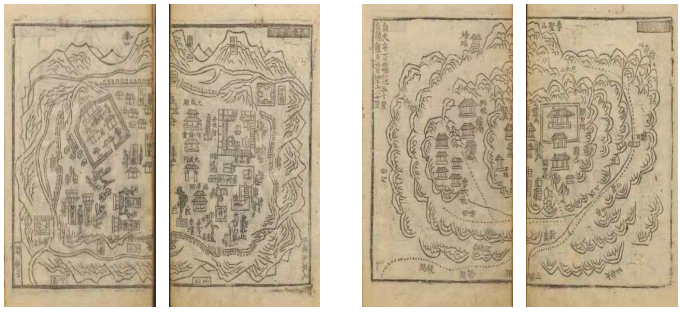
[圖21]《孔聖家語》目錄頁 / 後附《新刊素王事紀》目錄及聖像



[圖22]《東國闕里誌》序 / 藤塚鄰先生題贈



[圖23]《東國闕里誌》圖版 (左) 先聖行像 / (右) 華城闕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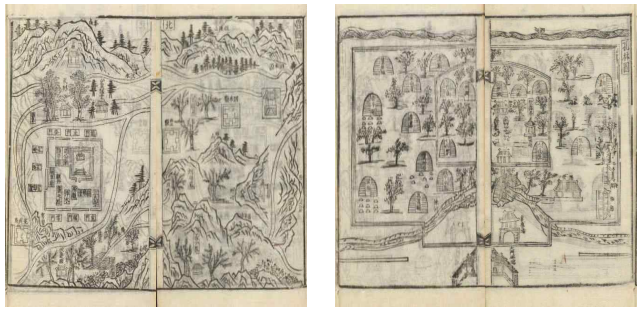
[圖24]《魯城闕里誌》圖版 (左) 曲阜闕里圖 / (右) 魯城闕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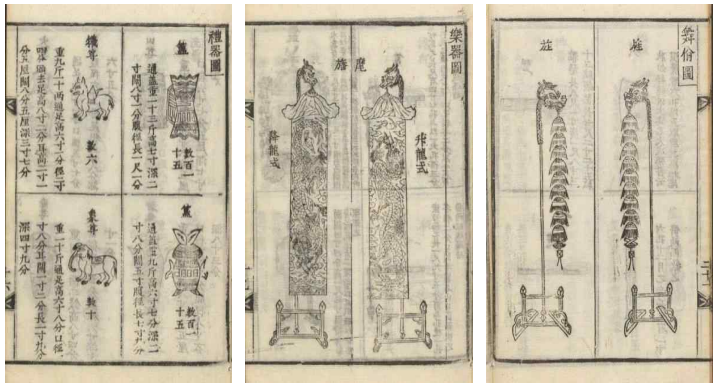
[圖25]《魯城闕里祠新安誌》「晦菴陽基圖」/ 朱文公畫像圖 / 版權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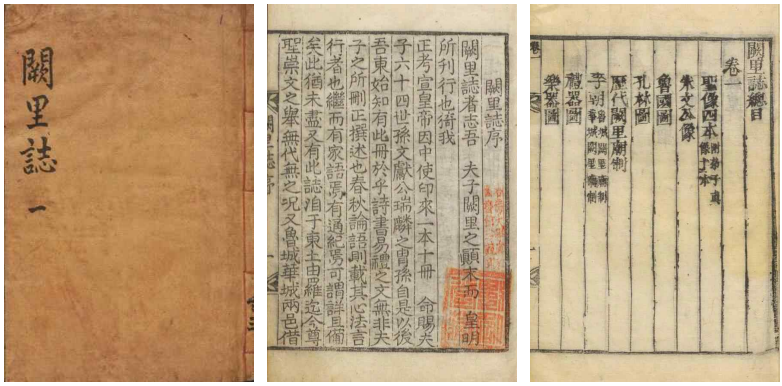
[圖26]《先聖闕里圖》圖版舉隅之一 孔子聖像與諸弟子陪侍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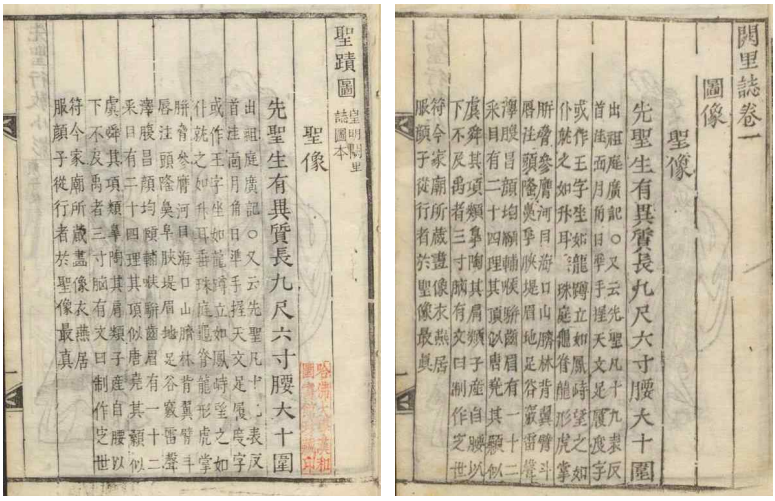
[圖27]《先聖闕里圖》圖版舉隅之二 (左) 魯國圖 / (右) 孔林



[圖28]《先聖闕里圖》圖版舉隅之三 : (左) 禮器圖 / (中) 樂器圖 / (右) 舞佾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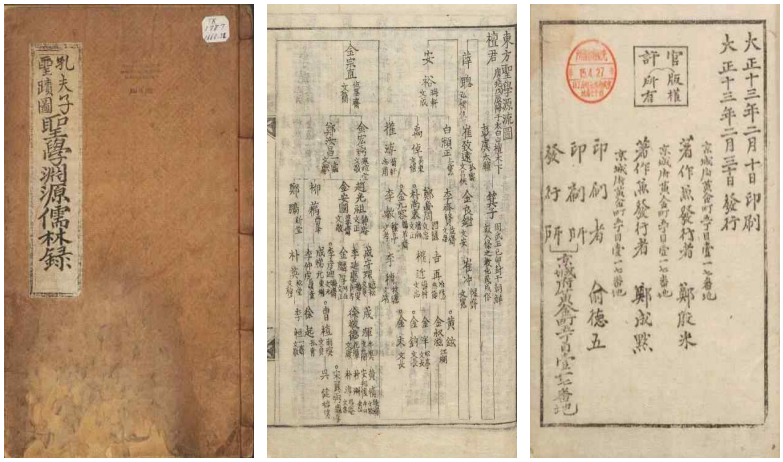
[圖29]《闕里誌》封面、序、總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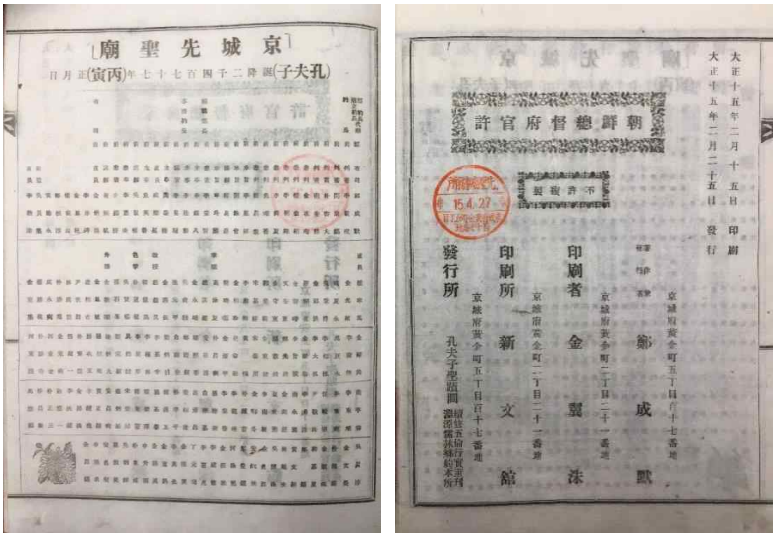
[圖30] 聖像句解： (左)《先聖闕里圖》/ (右)《闕里誌》



[圖31]《闕里誌》「朱文公像」及繪像說明



[圖32]《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封面、東方聖學源流圖、版權頁



[圖33]《孔夫子聖蹟圖 續修五倫行實圖》「京城先聖廟」編輯委員會 / 版權頁



[圖34] 聖像 (魯司寇像) (左)《魯城闕里誌》/ (中)《先聖闕里圖》/ (右)《闕里誌》

▮ 참고문헌

『中國版畫史圖錄』(5冊 , 現代印本), 北京 : 中國書店, 2012.
『中國古代木刻畫選集』(10冊 , 大開本線裝 , 含目錄冊), 北京 : 人民美術出版社, 1990-1999.
『中國古代木刻畫史略』(1冊 , 現代印本), 上海 : 上海書店, 2011.
『中國古代版畫叢刊』「初編」及「二編」(共40種),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88、1994.

岡雅彦・青木利行 編集, 『ハーバード燕京図書館和書目録』(2冊), 東京 : ゆまに書房, 1994.
董倩倩・范菲菲, 「성인의 형상 : 도서관이 관장하고 있는 문물에서 본 공자 형상의 변천」, 『鑑賞』108期, 2017, 44-51면.
鈴木淳・マクヴェイ山田久仁子 編著, 『ハーバード燕京図書館の日本古典籍』(1冊), 東京 : 八木書店, 2008.
劉春銀・林慶彰・陳義主編, 『越南漢喃文獻目錄提要補遺』(2冊), 臺北 : 中央研究院, 2004.
馬雅貞, 「전훈과 관적: 명대 전쟁과 관계된 그림과 관원의 시각문화」, 『明代研究』第17期, 2011.
孟久麗(Julia K. Murray)著, 何前譯, 『道德鏡鑒 : 中國의 서술적圖畫와 儒家의 意識形態』(Mirror of Morality: Chinese Narrative Illustration and Confucian Ideology), 北京 : 三聯書店, 2014.
毛文芳 「顧盼自雄 . 仰面長嘯 : 清初 佘大汕(1637-1705)『行跡圖』및 그림에 쓴 글에 대한 연구」, 『清華學報』第40卷第4期, 2010, 789-850면.
_____, 「生命圖史와 文本複調 : 晚清『鴻雪因緣圖記』初探」, 『旅行의 圖像과 문장 : 現代 華語의 환경 속에서 매개 간의 연계』, 吳盛青編, 上海 : 復旦大學出版社, 2016, 3-30면.
박광헌, 「『孔夫子聖蹟圖』의 책자와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78, 한국서지학회, 2019.
서성, 「『공자성적도』의 제작 방향과 시각 표현 연구」, 『中國學論叢』第64號, 高麗大學校中國學研究所, 1998.
송희경, 「공자 유학의 형상화: 기기도(欹器圖) 연구」(孔子儒學的形象化 : 「欹器圖」研究), 『동양고전연구』 62, 동양고전학회, 2016.
楊麗麗 : 「明代 한 翰林官員의 履歷 : 徐顯卿의 「宦跡圖」圖像에 대한 분석」를 참고, 『故宮博物院院刊』2005, 42-66면.
楊秀娟, 「『闕里志』 : 공자의 가족사」, 『曲阜師範大學校報』第30期, 2013.
永富青地, 「日本江戶時代에 聖蹟圖의 出版과 傳播」, 『版本目錄學研究』第八輯, 北京大學出版社,2018, 315-316면.
尹忠男・金成煥 編著, 『哈佛 燕京圖書館 韓國貴重本 解題』(5冊), 景仁文化社, 2004.
鄭振鐸, 「「聖蹟圖」跋」, 『中國古代版畫叢刊』第一輯,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88, 390-392면.
鄭振鐸, 『聖蹟圖』 (正統九年刊本)卷前,同註15, 頁374.
趙善美, 「孔子聖蹟圖考」, 『美術資料』第60號, 國立中央博物館,1998.
曺庭六, 「경상대도서관 소장 蔡龍臣의「至聖先師孔子像」연구」『南冥學研究』 66, 경상국립대 경남문화연구원, 2020.
曺庭六, 「萬世師表의 表象「孔子行教像」의 연원과 展開 과정」, 『동악미술사학』 19, 동악미술사학회, 2016.

曺庭六,「韓中 孔子聖蹟圖 硏究」,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21.
陳東,「張楷 聖跡圖의 몇 가지 문제」,『孔子硏究』, 2019年第2期, 83-93면.
진영자,「남송에서 명대까지 공자 형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성현도』와 『성적도』의 분석을 중심으로」를 참고.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16.
沈津,「『圣迹图』版本初探」,『孔子硏究』, 2003.
___,『美國哈佛大學哈佛燕京圖書館藏中文善本書志』(6冊), 桂林 :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___,『書韻悠悠一脈香』, 桂林 : 廣西師大出版社, 2006.
許瑜翎,『明代孔子「聖蹟圖」硏究 : 현존하는 正統九年本『聖蹟圖』를 중심으로』, 臺灣師範大學美術系 碩士論文, 2009.

【Abstract】

A Study of Illustrated Biographical Records 履歷圖誌 on Confucius from the *Ming-Qing* Dynasty and Related Documents from Korea —Centered around the Rare Books Collection of the *Harvard-Yenching* Library—

Mao, Wen-fang*

There is no lack of Confucian relic images (孔子聖蹟圖) across the countries of East Asia, and this paper centers around Ming-Qing and Joseon period biographical sources on Confucius from the rare books collection at the Harvard-Yenching Library 哈佛燕京圖書館. It is split into two major parts, the first investigates how several illustrated biographical records of Confucius from the Ming-Qing period formed the two systems of narrative illustration and relic model within the school of Confucius. It also explores the textual development process which linked this to temples of Confucius and sanctified his image. The second part uses the three systems of chronicles, the Queli Zhi 闕里誌and relic paintings 聖蹟圖to discuss fourteen kinds of Joseon period biographical sources, as well as including features such as the centrality of "the Queli Zhi" 闕里誌, continued orthodoxy, focus on icons and Zhu Xi's 朱熹placement, etc. Through the examination of biographical sources on Confucius from China and Korea divergent trends and common constructions of images centred around "relics" (聖蹟) that radiated out through the East Asian Chinese cultural sphere of influence can be observed. This paper also compares in depth how the two countries of China and Korea shaped these models and interpreted history and classical analyses, which are seen as focusing on the "Confucian knowledge model" constructed by sages and classics. This paper additionally explores how countries in East Asia used visual means to form this Confucian concept of knowledge, responding to the modern cultural transformation proposition.

* Professor, Dept. of Chinese Literature, and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books and Confucianism in East Asia, National Chung Cheng Univ, Taiwan.

Keywords: *Ming-Qing* Dynasty, Illustrated Biographical Records, Confucius, Confucian relic images, Joseon period, *Harvard-Yenching* Library.

접수일: 2021.09.30. ‖ 심사일: 2021.10.08. ‖ 게재확정일: 2021.11.26.